금주의 법구-〈법구경〉
불행한 운명은 입에서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7월 1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3호 2017년 9월 6일 수요일

'계층'서 '지역'으로 불교복지 확장된다

[진단] 변화된 불교 복지 Trend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계 복지관 건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계층 복지를 넘어 지역 · 문화복지로의 복지 수요의 변화가 감지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불교계 복지관의 지역 복지 아젠다 공유 및 연대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 원명, 봉은사 주지)은 8월 29일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을 정식 개관했다.

2013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399억 원이 투입된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6612㎡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지만 지하 1층에는 수영장과 콘서트홀이, 1층에는 스크린 골프장 시설이 건립됐다. 수영, 탁구, 골프, 필라테스 등 유료프로그램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하게 마련됐다. 모두 개관 전 공청회의 복지 수요 조사를 통해 개설한 프로그램들이다.

안정만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부장은 "설계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요구로 인해 당초 계획에 없던 수영장이 도입됐다. 판교지역 몇군데 수영장이 있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수영장을 건립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개관 초기 어르신들 위주로 운영되지만 지역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8월 25일 증축 개관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도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와 같이 지역의 복지수요를 반영해 증축을 진행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1,812㎡ 대지에 5개 층으로 북카페와 테라피실, 목욕탕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하의 공연장이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의 공연도 진행되지만, 지역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복지관을 찾아온 청년들에게 어르신들의 전통장 담그는 기술 등을 전수하는 교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스님은 "어르신 복지는 단순히 어르신을 대상으로만 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도 어르신 복지"라며 "복합적인 복지수요에 맞춰 복지관이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우수명 대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선별적으로 복지가 진행됐다면 현재는 주민 · 마을 복지 등 보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나눠 복지를 제공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장애인은 어느 범주에 속해야 하나.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도 복지관의 역할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아동복지관도 마찬가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학부모 등 연관 계층도 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老복지관서 지역·문화로
골프장 · 공연장 등 개방

보편적 복지 확대 변화
영세한 불교복지관 연대
"복합적 수요 반영해야"

이어 "다양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직 역량이 부족한 영세한 불교계 복지관들은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인접 불교계 복지관이 연계해 계층을 넘어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경우 시설장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논의는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건립과정에서 수영장을 도입, 빠른 시간 내 불사를 이뤄낸 미국 리빙인리치먼트 센터 교회 경우를 보아도 지역요구를 파악, 반영하는 것은 원동력 확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불교복지 발전을 위한 권역별 논의기구를 보다 강화하고 요구를 파악 반영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복지 새 장 여는 힘찬 출발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 원명)은 8월 29일 분당구 판교에 위치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국내 노인복지관중 최대 규모다.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을 보유해 개관 당일 하루 2500명이 이용 등록을 할 만큼 지역의 복지수요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오른쪽 아홉 번째)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여덟 번째) 등 관계자들이 개관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이다.

템플스테이, 올림픽 홍보 위해 '뉴욕 상륙'

하반기 2018 동계올림픽 다양한 홍보 사업 전개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 올림픽'으로서 성공 유치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이 팔을 걷어 붙였다. 한국전통 및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문화의 1번지 뉴욕에도 직접 찾아가는 것.

불교문화사업단은 8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다양한 홍보 계획을 밝혔다.

먼저 불교문화사업단은 9월 24~29일 뉴욕에서 '템플스테이와 함께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행사를 연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여행과 음식을 각각 슬로건으로 내걸고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홍보하는 이번 행사는 크게 4가지 △뉴욕 템플스테이 위크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전시 · 체험 △사찰음식 만찬 △사찰음식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뉴욕 템플스테이 위크'는 뉴욕일대 사찰 5곳(원각사 · 불광선원 · 조계사 · 원적사 · 보리사)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또한 24~28일 아스토센터 갤러리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전시 · 체험' 행사는 한지 부채 만들기 · 연꽃지화 만들기 · 스님과 차담 · 사찰음식 시식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특히 26~28일에는 현지 언론 및 미디어 관계자, 문화 · 조리계 관계자, 주 뉴욕 한국협력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사찰음식 만찬을 펼친다. 만찬 메뉴는 청정자연 강원도에서 재배된 식재료를 활용, 감자옹심이죽 · 배냉면 · 메밀전병 · 잣더덕생채 · 인삼말이 등 사찰음식으로 구성돼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의 식문화를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욕 사찰 5곳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전시 · 강의 · 만찬도

아울러 불교문화사업단은 강원 지역 사찰 5곳(낙산사 · 백담사 · 삼화사 · 신흥사 · 월정사)을 평창동계올림픽 맞이 외국인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 운영한다. 각 사찰에는 외국어 가능 실무자가 1인 이상 배치되며, 이곳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100여명의 발대식을 9월 중 갖는다.

또한 각 사찰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관광코스 개발에도 나선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와 지역관광 체험이 포함된 코스 개발을 통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가이드북 및 리플릿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와 연계한 셔틀버스 운영 등은 논의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앞서 불교문화사업단은 평창올림픽 대비 사찰음식 홍보의 일환으로 8월 29일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IOC조정위원회 오찬을 사찰음식으로 마련했다. 오는 10월에는 패럴림픽 선수단을 위한 사찰음식 만찬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문화사업단은 이날 2017 주요 사업현황으로 템플스테이 및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의 외국인 참가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템플스테이 외국인 참가자는 40,261명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했으며, 인사동에 소재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의 외국인 참가자는 595명으로 전년대비 480명, 417% 증가했다. 이에 반해 내국인은 템플스테이 참가 5.7%,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13%로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총무원-연석회의 '대화 場' 열리나

종단현안대화위원회 9월 6일 기자회견 개최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와 이를 규탄하는 종단개혁 연석회의-적폐청산 시민연대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조계종 백년대계본부가 대화 테이블 마련에 나선다.

백년대계본부는 제2차 사부대중공사서 종단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양측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8월 31일 회의를 거쳐 '종단현안 대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년대계본부는 9월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종단현안 대화위원회의 기자회견 준비에 착수, 중도성향을 가진 출재가자를 위원에 위촉키로 했다.

앞서 25일 한국문화연수원서 열린 제2차 사부대중공사에서는 대중공사 위원부터 참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지원 전북불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마곡사, 용주사 문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싸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스스로 참회하고, 세속에 부끄럽지 않은 단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용숙 위원은 명진 스님 제적 논란과 관련해 양측 2박3일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중공사 추진위는 백년대계본부에 위임해 총무원 집행부와 종단개혁 연석회의, 적폐청산 시민연대 등에 대화를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양측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중도성향을 가진 출재가자를 위원으로 섭외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종단개혁 연석회의는 30일 기자회견서 "대화채널에 신뢰가 없다" "일종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현재 단식 중인 명진 스님은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단 전제조건으로 '적광 사미 폭행 사건 진실규명'을 내세웠다.

명진 스님은 "총무원과 대화를 하려면 진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 형식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면서 "적광 스님 폭행 때문에 이 자리서 나부터 참회하고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사건 경위를 거짓 없이 먼저 밝힌다면 대화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명진 스님, 봉은사 퇴출’ JTBC보도 조계종 반박

“퇴출 아닌 임기만료” 강조

JTBC가 ‘민간인 사찰’ 관련 보도 과정서 명진 스님에 대해 봉은사 주지서 퇴출됐다고 표현함에 따라 조계종이 이를 정정 요청했다.

JTBC는 8월 30일 뉴스룸에서 “명진 스님은 2011년 봉은사 법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얼마 뒤 봉은사에 명진 스님이 나가달라는 요청이 들어가 결국 쫓겨났다”면서 “당시 명진 스님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이상득 前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총체적 합의 속에 이뤄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JTBC의 보도 직후 조계종은 즉각 논평을 내고 “JTBC가 명진 스님의 입장을 인용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며,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종단과의 협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이어 “명진 스님은 봉은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종헌종법에 의거해 주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만료하고 수행자로 돌아갔다. 당시 논란은 명진 스님이 재임을 하고자 해 벌어진 논란”이라며 “JTBC는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정정 보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한글의례 ‘운곡’ 시범 녹음

인묵 스님 등 6개월간 시연

조계종이 한글 의례의 음률인 ‘운곡’ 정비에 본격 나섰다. 조계종 의례위원회 운곡실행팀은 8월 30일 양재동 이음사운드 스튜디오에서 상단헌공 등 헌공의례와 ‘붓다로살자’ 수록 운곡 음원을 시범 녹음했다.

조계종은 2011년부터 각종 의례와 의식을 우리말로 표준화해 우리말 의례 보급에 나선 바 있다. 최근까지 칠청례와 반야심경, 천수경, 삼귀의, 사홍서원 등이 한글로 제작돼 전국사찰에 보급된 상태다.

이번 운곡은 한글의례에 대한 정확한 음률을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운곡실행팀은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시범 녹음된 음원을 통해 6개월 간 대중처소 시연하며 문장의 매끄러움과 실용적인 발음 등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녹음에는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을 비롯해 화암, 법안 스님 등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공명선거 위한 감시조직 대대적 출범

조계종 중선위, 교구선거위원 · 호법국장 등과 ‘공명정대 선거 실현 선포’… 담화문도 발표

전국에서 선거위반 감시활동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대처
부정선거 SNS신고센터 운영
“왜곡된 선거문화 바로잡자”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정선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 발족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 실현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렴한 선거를 위한 제반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비롯해 각 교구선거관리위원과 교구별로 추천받은 공명선거위원, 본사 호법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중앙선관위원장 종훈 스님은 “종단은 그동안 금권, 비방, 폭로 등으로 왜곡된 선거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잘못된 선거풍토를 단호히 근절하고, 승가화합과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정립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종도는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명정대한 선거 실현을 위해 감시활동에 대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선거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호법부장 세영 스님도 “운전할 때 운전법규를 숙지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듯이 선거 관련 법규를 숙지해 선거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종훈 스님은 공명선거위원으로 위촉된 스님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7교구 금산사 위원 구담 스님은 대표로 위촉장을 받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사전 선거운동 및 부정선거 감시활동에 진력해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 실현 선포식’이 끝난 뒤 선거감시활동에 나서는 위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다졌다.

중앙선관위는 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총무원장 선거일정을 비롯해 선거업무 ·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부정선거 SNS신고센터(카카오톡) 운영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위원들은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선거법 위반 현장 및 위반자, 증거물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채증한다. 이를 선관위 SNS신고센터에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지휘를 받아 이후 상황을 대처한다.

선포식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종훈 스님과 호법부장 세영 스님이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두 스님은 담화문서 “종단개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선거제도는 종도들의 참종권을 보다 확대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왔고, 승가의 공의를 바탕으로 종단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원력을 계승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님들이 선거철만 되면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를 즈음해 자신의 주장을 집단의 위력을 통해 폭력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불법 집회의 개최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선거과정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불법선거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동시에 종헌종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승가의 가장 큰 미덕인 화합을 깨는 행위이므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각 교구와 권역별로 금권선거를 비롯한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강화하고, 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징계심판청구 등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의료원, 역대 最高 성과 달성

전년 대비 8% 성장… 개혁 노력에 성과

비구니 스님 전용 병실 설치
승가 위한 의료서비스 구상도
자광 스님, 의료원 격려 방문
임직원에게 피자 · 햄버거 보시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일산병원을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피자 370판과 금일봉을 보시했다.

“개원 뒤 12년 동안 걱정만 끼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걱정이 아니라 동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의료원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말을 읽는 이진호 동국대 의료원장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떨렸다. 최근 동국대 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전년 동월 대비 8% 이상의 성장을 거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사장 자광 스님의 8월 29일 일산 병원 격려 방문 자리에서였다.

그간 동국대 의료원 산하 병원들은 경영상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경주병원의 경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된 경영적자로 인해 한때 유동성 위기까지 겪었다. 이후 경영진단과 인력 조정, 진료환경 개선 프로젝트 등이 이뤄졌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장 자광 스님은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며 사기 진작을 도모했고, 병원장 진료시간을 유지토록 했다. 이를 통해 경주병원은 지난 3월 개원 이래 최고 진료실적을 달성했다.

분당한방병원은 행정사무실을 지하공간으로 이동하고 진료실을 전면에 재배치함으로써 공간의 효율화를 시도했고, 이는 곧 병원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 일산병원은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공감 · 참여’ 캠페인 등 고객만족사업과 인사단행 등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지난 7월 최고 월 진료실적을 달성했다.

동국대 의료원 자체의 변화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동국대 의료원은 5월 1일 ‘의료원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의료원 산하 기관과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불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점도 변화의 모습이다. 동국대 일산병원의 경우 최근 5인실 병실 2곳을 비구니 스님 전용실로 배치했다. 병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1달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평균 3~5명의 비구니 스님께서 병실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동국대 의료원은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전국비구니회와 협약을 맺고, 사전 건강검진 등 승가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키로 결의했다. 현재 어려운 스님들을 위한 순회 검진 사업 등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산하병원 임직원들이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실적을 달성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로 최상의 진료를 하는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광 스님은 의료원 산하 병원 임직원들에게 4월부터 격려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 5일에는 경주병원에 피자 198판, 햄버거세트 38개를 전달했으며, 7월 7일 분당한방병원(피자 44판)에서 피자 파티를 열었다. 8월 29일에는 일산병원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피자 370판과 금일봉을 보시했다.

일산=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반HC, 행사기획대행 자회사 갖춰

(주)스태프미래 8월 30일 조인… “사찰행사 보완”

불교 문화행사 정체성 정립
사회일반 현장 진출 계획도


도반HC와 스태프미래의 조인식. 왼쪽부터 김용환 도반HC 사장, 총무원 사업부장 각운 스님, 이상종 스태프미래 대표.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가 앞으로 행사기획대행까지 활동영역을 확장한다.

도반HC(사장 김용환)는 종단차원의 기획행사 추진과 행사대행의 질적 향상을 위해 8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주)스태프미래(대표 이상종)의 자회사 등록을 마쳤다. 도반HC는 7월 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회사로 행사기획대행사를 설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여 년간 연등축제를 비롯해 월정사 · 청량사 산사음악회 등 각종 불교계 행사대행을 맡아온 스태프미래와 협약을 맺었다. 도반HC는 스태프미래 주권 일정부분을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재했다.

이날 양사 간 조인식에서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 각운 스님은 “지금의 산사음악회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 스태프미래의 역할이 컸다. 앞으로 지역사찰 축제 기획에 종단이 도움을 주고, 불자연예인 등을 통한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종 스태프미래 대표는 “크고 작은 행사를 참여하며 종단과 20년 동안 인연을 다져왔다. 하지만 불교계에 문화적 소프트웨어가 많은데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느꼈다”며 “이번 기회가 불교문화를 구축해나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반HC에 따르면 스태프미래는 향후 불교계 행사기획대행 분야에서 종단 회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사찰과 지역 문화행사 등을 보완하고 지원한다. 또 불교계 문화행사 정체성 정립해 사회일반 행사기획 현장에도 진출, 불교계 문화콘텐츠를 알리고 자긍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告

알려드립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입추 지절에 종도 및 제방의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가내에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 6세 종정 지자, 공자 지공 엄외출 대종사께서 숙환으로 지난 7월 3일 열반에 드셨습니다만 종도 여러분들과 제방의 사부대중에게 알리지 못한점은 생전에 종정 예하님께서 가족에게 “내가 입적하거든 종단의 종도는 물론 일붕문도를 비롯 제방의 사부대중에게 절대로 알리지마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며,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루라는 유언을 남기셨기에 부득히 알리지않고, 가족장으로 모신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종도 여러분들은 물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는 변함없는 애종심으로 화합단결하여, 더욱 더 종단발전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2061(2017)년 8월 29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 원 총무직원 일동 합장

■ 총 무 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전화 : (02) 991 - 8175, 8904 www.ilbung.org
■ 총무원장 주석사찰 호불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룡로 80 (옥련동) 전화 : (032) 834 - 8904, 833 - 8175

가야불교 복원, 동국대·김해시 앞장선다

8월 30일 상호협력 협약… 官·學 연계 첫 사례

가야사와 가야불교 복원을 위해 동국대와 김해시가 손을 맞잡았다.

동국대(총장 보광)와 김해시(허성곤)는 8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야사와 가야불교문화에 대한 공동연구 및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이의수 동국대 기획부총장, 허성곤 김해시장이 참석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가야불교문화와 콘텐츠 연구 개발 공동협력 △왕후사지 발굴 복원 공동협력 △가야·인도 불교 연관성 및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동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가야사와 가야불교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국정과제로 선택된 '가야사 복원'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게 됐다.

이의수 동국대 기획부총장은 "지금까지 삼국시대에 묻혀서 가야는 제대로 발굴도 없었고 조명도 받지 못했다"며 "동국대와 김해시가 공동연구를 통해 삼국이 아닌 사국시대의 고대사의 면모를 조명하고 대중에 알려나가겠다. 또한 여러 콘텐츠 개발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가야사와 가야의 정신문화였을 가야불교를 조명하는 데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야불교 복원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은 것은 첫 사례"라며 "서울과 지방의 협력이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가야사와 가야불교 연구를 위해 김해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야 불교사 연구 협력
왕후사지 발굴 복원 등
공동 연구사업 추진 나서
9월 중 실무위 구성 예정
동국대 세불연 세미나도

이와 함께 협약식 이후에는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가 주관한 '가야사와 가야불교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영섭 소장(불교학과 교수)은 '가야 명칭의 어원과 가야불교의 시원'에서 김수로왕이 붓다의 성도지인 '부다가야'를 의식해 불교식 국명(國名)인 '가야국' 혹은 '대가락(가야의 이명)'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와 김해시는 가야불교 복원을 위해 8월 30일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수로왕은 가야의 새로운 왕성터를 '16나한이 살만한 곳'이자 '일곱 성인이 살만한 곳'이라는 불교적 왕성 비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앞선 선진문물인 불교 이념에 의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며 "이 때문에 수로왕이 대륙에서 서해를 건너온 서기 42년은 가야국의 건국 원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에 의해 법제적으로 공인된 가야불교의 시원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재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는 '가야사 연구와 가야사의 지위'를 통해 근대부터 해방이후까지 가야사 연구 변천과 성과 및 한계를 분석했다. 아울러 '사국시대론' 등 한국고대사에서의 가야사의 위상을 조명했다.

이밖에도 이영식 인제대 고고학과 교수가 '가야사와 고고학 자료의 발굴 현황'을, 최경아 동국대 불교학부 외래교수가 '남아시아 불교와 가야불교의 접점'을, 정진원 동국대 세불연 연구교수 '가야불교 인물의 발굴과 활동 분석'을, 김복순 동국대 국사학과 교수의 '가야불교와 신라불교의 특성과 차이'를 각각 발표했다.

한편 김해시는 오는 10월 28일 회현동 가야의 거리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7 허왕후 신행길 축제'에서 식전행사로 가야불교국제학술대회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⑧ 아름다운 마지막이란

뒷모습이 참모습이다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감동적으로 각인된 법정 스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실제로 나는 불교신자가 아닌 몇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대답은 놀랍게도 같았다. TV로 방영된 스님의 장례식 모습이었다.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대부분의 고승들이 꽃으로 장식한 운구차를 이용했지만 스님은 당신의 유언에 따라 그러지 않았다. 누운 스님을 가사 한 장으로 덮은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스님의 그 모습은 송광사를 찾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때 나는 뒷모습이 참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송광사 다비장 산길을 오르는데 서옹 스님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려왔다. 백양사로 스님을 뵈러 갔을 때 "참사람은 삶도 죽음도 없어. 죽어도 산 사람이 있고,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지"라고 말씀했다. 중국의 조주 스님도 어느 장례행렬을 보고 "한 사람이 살아서 가는데 만 사람이 죽어서 따라간다"는 말을 남겼다. 나는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어찌 나뿐일까. 스님의 마지막 길을 보려고 온 사람들도 모두 그러지 않았을까.

선가에는 화중생련(火中生蓮) 즉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라는 말이 있다. 불같이 치열하게 수행 정진해야만 깨달음의 꽃이 핀다는 말이리라. 장작불길 속에 든 스님을 바라보며 나는 화중생련이란 선어(禪語)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곳에 안주하기를 거부한 스님의 구름 같은 삶도 온전하게 연소하는 장작불길 같았던 것이다. 스님은 늘 내게 "온몸으로 살고 온몸으로 죽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스님이 먼저 실천하고 떠나신 것이다.

그날 나는 다비장에서 불일암으로 내려와 스님을 다시 만났다. 스님의 흔적과 이야기했다. 마침 스님께서 제주도에서 가져온 수선화 몇 송이가 피어 있었다. 맑고 향기로운 스님의 혼 같았다. 졸참나무로 만든 의자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일명 '빠삐용 의자'였다. 내가 사다드린 수제품 풍경도 아래채 처마에 달려 있었다. 스님은 큰 바람이 불 때만 소리를 낸다 하여 '태풍의 대변인'이라고 임명한 풍경이었다. 불일암 토방에 놓인 흰 고무신도 스님의 것이 분명했다.


일러스트 · 정윤경

나는 내 산방으로 돌아와 사립문을 걸었다. 그런 뒤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혼자서 49재를 지내는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직 글에만 집중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약속도 뒤로 미루었다. 누에고치처럼 자신을 가두었다. 49일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소설은 며칠이 더 지나서야 완성됐다. 그 작품이 바로 소설 〈무소유〉다. 나는 소설의 면지에 '진리의 문을 가리켜주신 영혼의 스승 법정 스님께 향 하나 사루며 부끄러운 이 책을 올립니다'고 밝혔다. 스님은 내게 출가 전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부분이 소설에서 가장 돋보이는 때 묻지 않은 영혼이 아닐까 싶다.

"종교인과세, 종교 특성 반영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계종 예방… 의견수렴

종교인과세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종교계를 예방하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8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나 "종교인과세에 각 종교 특성을 잘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



이 자리서 자승 스님은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모두 급여를 받는 방식이 다르고, 불교계 내에서도 종단마다 특성이 다르다. 종교와 종단 형편에 맞춰 방향을 제시한다면 종교인과세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잡하겠지만 잘 조정해 체계화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당하신 말씀이다. 종교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종교계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예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예방 직후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불교계는 종교인과세에 대해 시종일관 지지 입장을 보여주셨다. 종교별로 과세기준을 달리 적용할 순 없으나 징세 행정이나 장부기록 등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익숙지 않은 내용을 한 번에 추진하기보다 긴 호흡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에는 사서실장 심경 스님, 기획실장 정문 스님, 재무부장 유승스님,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이 배석했다.

윤호섭 기자

"박성진 후보자, 뉴라이트 사관 비슷"

조계종 종평위, 지명 철회 촉구 논평 발표

불교계가 창조과학회 활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성진(4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 이력이 세간에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진 한국창조과학회는 1981년 설립된 기독교 창조과학 확산 단체로, 성서의 창조론을 과학적 사실로 보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신앙운동을 펼친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8월 30일 논평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종평위는 "박 후보자가 청와대의 지명 이유처럼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해 과학자로서 자질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종평위는 이러한 논란에 청와대가 "개인 종교의 자유가 공직자의 지명 및 임명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동조하면서도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종교가 정책이나 활동에 표출되고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과학회 활동 이력 비판
종교사상 직무에 표출 우려

이어 종평위는 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최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5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연구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역사관과 배치되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을 했다. 또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등 친일·친미·독재를 미화한 뉴라이트 사관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아름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 조계종 수행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계종의 수행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간화선연구소(소장 미산)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5시 서울 안국선원 큰법당에서 '한국간화선연구소 종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종책 토론회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며, 한국간화선연구소장 미산 스님의 '인공지능 시대와 수행 종책에 대해'와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의 '제4차 산업혁명기 전법의 과제'가 각각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정운 스님, 조은수 서울대 교수, 이언오 바른경영연구소장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일 주 문



조계사 생명살림기도

지현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9월 10일 하안거 회향을 맞아 생명살림기도를 김천 직지사에서 개최한다.



오대산 디지털사진 공모전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9월 30일까지 오대산 디지털사진 공모전 작품을 접수 받는다. 발표는 10월 12일이다. (033)339-6800



티베트 '잠 요가' 강연

티베트 텐진 왕걀 린포체는 9월 23~24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 '잠 요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엄홍길 휴먼스쿨 전시회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이사장은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히말라야의 꿈' 전시회를 연다.

스타 작가 · 미스코리아, 동국대 강단 선다

금나나 등 임용… 정덕 스님, 불교학과 교수로



금나나



정덕 스님

불자 미스코리아이자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수재인 금나나 씨와 드라마 한류의 시작을 알린 '겨울연가'의 작가 오수연 씨가 교수로서 동국대 강단에 선다. 또한, 불교대학 신규 교원으로 영국의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양학을 연구한 정덕 스님이 임용됐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지난 이사회를 통해 미스코리아 출신 금나나 씨와 '겨울연가' 작가 오수연 씨, 국립문화재연구소장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김봉건 씨,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양학을 연구한 정덕 스님 등 9명을 신규 교원으로 채용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금나나 씨는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 오수연 작가는 국문 · 문예창작학부 조교수로 각각 임용됐으며, 이번 가을학기부터 강의를 진행한다.

금 씨는 경북과학고를 졸업하고 경북대 의예과에 재학 중 2002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됐다.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으며,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보건대학원 영양학, 역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불교대학 불교학부 부교수로 임용된 정덕 스님은 서강대 불어불문학을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불교학과를 석사로 졸업했다. 이후,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양학(Oriental Institute)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8년부터 중앙승가대 부교수로 재직했다. **신성민 기자**



"현대인 명상 보급 터전 만들 터"

Interview

'회두피안' 재단에 50억 원 출연한 황경환 교수

대지 1000평 비롯 재단 출연
자택 개조한 명상센터 추진
"명상 보급화에 기여할 것"

"현대인들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는 불교명상이 최고입니다. 생활 속 명상 보급을 위해 각계 불자들이 앞장섰으면 합니다."

불교명상의 보급을 위해 한 재가불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화제다. 그 주인공은 황경환(67 · 사진) 동국대 평생교육원 교수.

황 교수는 8월 30일 경주 남산동 명상센터 예정지에서 재단법인 '회두피안'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황 교수가 출연한 재산은 대지 1000여 평을 비롯해 주택과, 주식, 현금을 포함해 총 50여억 원에 이른다.

황 교수는 경주IC 휴게소를 비롯해 진양유조선을 운영하며 자산을 모은 대표적인 한국불교계의 장자다. 그동안 동국대 경주 캠퍼스 명상센터 건립에 2억 5000만원을 기부하고, 원전 연구도 후원하는 등 불교 발전에 힘써왔다.

동국대 평생교육원 교수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교육하는가 하면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을 맡아 불전 연구에도 앞장서 왔다. 또 BBS울산불교방송 사장과 울산시 불교신도회장 등을 역임했다.

황 교수는 "번뇌에 속박된 현상 세계를 '차안'이라고 하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세계인 열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한다. 회두피안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돌려 피안을 바라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명상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많은 이들이 정작 명상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주택을 명상센터로 개조해 많은 이들이 명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상에 대해 "현재 다양한 명상법이 있지만,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 따른 명상법은 드문 실정"이라며 "명상법 연구와 보급을 위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회두피안 재단은 향후 명상수련 공간인 단마홀 건립을 비롯해 명상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명상세미나 개최와 간행물 발간, 전화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단마홀은 현재 황 교수가 출연한 주택을 개조해 건립되는 것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단 출범 후 공익재단으로도 재단 변경이 추진될 예정이다.

황 교수는 "탐진치로 인해 고통 받는 불자들이 바른 정법을 통해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 올바른 명상법을 제시하는 터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황 교수는 이에 앞서 2016년 재미과학자 김사철 박사와 반야심경 원문 해석 및 108요담을 담은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을 펴내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비실천하는 경찰들 모임으로"

박재진 제 5대 경찰불자회장 27일 취임



"지역 불자경찰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비실천을 일상생활에서 펼치도록 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경찰들의 구심체인 경찰불교회의 5대 회장에 충북지방경찰청장 박재진 치안감〈사진〉이 추대됐다. 경찰불교회는 8월 27일 범어사에서 창립 16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 경찰불교회 회장 이 ·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경찰불교회는 경찰이란 직업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모여 불교 속에서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서로 돕고 노력하는 네트워크"라고 정의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지역 단체장들과 모임을 가져 개선사항들을 찾고자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각 지역별 법회와 신행 모임 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경승단 스님들과 연계해 지역 불교와 밀접히 연결 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대전의 종립학교인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경찰대 재학 당시 교내 동아리 활동이 자유로워지며 박 회장은 종립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모아 불교 동아리를 만들었다. 1982년 용주사 주지였던 정무 스님을 법사 스님으로 모시고 불교 수행을 시작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23교구 신도회장 김문자 씨

중장기 사업으로 복합불교문화센터 건립 추진



제주불교계를 이끄는 조계종 23교구 교구신도회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인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는 8월 25일 각 신행단체와 신도단체, 말사 신도회를 아우르는 교구신도회의 새 신도회장으로 김문자 신도회장〈사진〉을 임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관음사 조실 종호 스님을 비롯해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제주불교연합회장 관효 스님 등 도내 스님들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김태석 제주도의회 길상회장 등 기관단체장, 20여 관음사 말사 주지 스님과 신도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문자 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영광보다는 무거운 짐을 느낀다"며 "교구 신도회의 부름은 시대를 포용하고 더 넓은 도량을 경작하라는 소명으로 받들어 제주불교 발전에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함께 하여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신도회'를 주제로 제주 23교구 신도회는 각종 불사에 동참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중장기 사업으로 복합불교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불교라디오방송 개설 그리고 제주불교인의 화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해인동문장학회 이사장 선출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 사진)이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 제4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일면 스님은 해인동문장학회 초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해인승가대학 발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면 스님은 "다시 한 번 큰 소임을 맡겨준 동문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기금을 늘려 해인동문장학회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덕성과 인격을 갖춘 지도자 양성에 큰 힘이 되도록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5년 발족된 해인동문장학회는 학인 스님들에게 매년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장학승 47명에게 총 4,200만원의 장학금 및 증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국사, 경주외국인센터와 MOU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8월 28일 경주외국인센터 사무소에서 외국인센터(소장 윤혁권)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한국불교 문화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부지도법사 일선 스님과 이병학 템플스테이 실장을 비롯해 윤혁권 경주 외국인센터장, 이원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한미 청소년 미국 현지 연수 성료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계성)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는 한미청소년불교교화연수단을 구성해 8월 4일부터 15일까지 뉴욕과 LA 등지에서 청소년 연수를 진행했다. 단장 정범 스님을 비롯해 27명으로 구성된 제7회 한미청소년불교문화연수단은 미국 청소년 23명과 스탭 등 30여 명과 함께 뉴욕 불광선원 등을 참배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아! 秋 성큼 달려오네 사찰에 핀 축제 속으로



지난해 조계사 국화축제 '시월 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현장서 외국인들이 형형색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내를 수놓은 국화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사

가을축제 가득한 불교계, 어딜 가볼까?

여느 해보다 절절 끓던 여름이 끝나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살갗을 스친다. 그만큼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이면 산과 산사는 다양한 변화 준비로 분주하다. 산속의 나무들은 정들었던 녹음(綠陰)을 밀어낸 뒤 선홍빛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산사는 농사의 마무리와 각종 축제준비에 여념이 없다. 가을이라는 계절엔 '천고마비'와 '문사철'이 수식어처럼 따르지만 불교계는 '축제의 시즌'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믿고 즐기는 불교계 축제를 알아보자.

화엄사 화엄음악제(9/15~17)

벌써 12회째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아~' 하고 감탄사가 먼저 나오는 바로 그 축제, 화엄사 화엄음악제다. 산사음악회의 시초는 아니지만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화엄음악제가 '자명(自明)'이라는 주제와 함께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축하하며 장엄한 무대를 연출한다. 올해 라인업 또한 보통이 아니다. 평소 만나기 힘든 숨은 보석 같은 아티스트들의 명품 공연, 별빛 내리는 산사에서 즐겨보자.

15일 전야제는 노마드 음악 듀오 '텐거(Tengger)'가 포문을 연다. 텐거는 인디언 하모니움을 연주하는 한국인 '있다'와 모듈러 신시사이저를 연주하는 일본인 '마르키도'로 이뤄져있다. 텐거란 몽골어로 '경계 없이 큰 하늘'이란 뜻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신비로운 음악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어 전야제 두 번째 무대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이양희 안무가가 꾸민다. 그는 1997년 프로젝트 댄스그룹 'Limbo'를 결성해 음악, 미술, 퍼포먼스, 설치미술 등을 접목한 다원 예술가다.

16일 화엄콘서트에는 두 손으로 세어보기에도 부족한 수많은 아티스트가 출동한다. 2010년 자라섬 국제 재즈콩쿨서 '올해의 솔로이스트상'을 수상한 색소폰 연주자 신현필, 불교음악의 진수를 전하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 일행, 거문고 산조 인간문화재 이재화, 동서양 고음악 연주를 비롯해 전통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마리, 천부적인 재능으로 급부상한 리코더 연주가 에릭 보스크라프, 이외에도 화엄오케스트라, 어썸콰이어, 화엄레지던스 등이 다채로운 선율로 가을밤을 수놓는다.

대미를 장식할 17일 야단법석 콘서트에는 포크록의 대가 장필순과 가수 조동희, 어쿠스틱 크로스오버 밴드 주스 프로젝트(Ju's Project) 등이 출연한다.

올 가을 불교계 주요 축제 일정

가야불교진흥원	가야불교문화축제	9/14~17
부산 홍법사	제13차 세계선차아회	9/23~24
서울 조계사	시월 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국화축제)	10월 중
부산 범어사	개산대재 및 부산불교연합회 팔관회	10/20~22
창원 구룡사	90주년 기념법회 및 가을음악회	10/21
양산 통도사	영축문화축제 및 개산대재	10/28~29
해남 미황사	괘불재 그리고 미황사 음악회	10/28
부안 내소사	산사음악회 및 사찰문화체험	10/28

선운사 선운문화제(9/18~23)

백제 위덕왕 24년(577년)에 창건된 고창 선운사. 1450년간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해온 선운사에는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당시 지역민들에게 소금과 한지 제작방법을 전수해 생계를 잇게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검단선사는 도적떼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이들을 양민으로 제도했다는 설화도 전한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스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소금공양이 지역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선운문화제의 백미는 검단마을 주민들이 1년 동안 만든 보은염을 검단선사에게 공양 올리는 의식이다. 이때 마을주민 100여 명이 백제시대 복식을 차려입고, 옷과 소달구지, 번 등과 함께 참여한다. 아울러 선운사 일대를 수놓은 꽃무릇을 중심으로 한 시화전과 부처님 가르침이 서역 및 중국에 전파된 사실을 기술한 석씨원류 경판이운식 등이 눈길을 끈다. 108명의 불자들은 경판을 직접 머리에 이고 일주문과 천왕문을 거쳐 경내 법계도를 돌아 스님들에게 전달한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이후에는 특설무대서 산사음악회가 열리고, 부대행사로 인경체험·직거래장터 등도 마련된다.

동화사 승시(10/6~9)

팔공총림 동화사는 조선시대 팔공산 일대서 열린 스님들의 장마당을 재현한 '승시'를 10월 6~9일 개최한다. 2017 승시는 장터·먹거리·전시·전통놀이·산중예술가 장터·키즈 존 총 7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올해 장터마당은 로컬푸드를 비롯해 승가의 전통문화와 사찰음식에 집중, 사찰에서 생산됐거나 스님이 직접 생산한 사찰용품·약초·차·다구·전통공예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사찰음식 마당에서는 연밥 등 연음식과 떡 등 평소 만나보기 힘든 사찰음식을 시음할 수 있다. 오전 10시~오후 8시 열린다.

이밖에 주요 행사로는 △으뜸 시념인 선발대회(7일 오전 11시, 8일 오후 2시) △승가 법고대회(8일 오후 5시) △마당극(6~9일 오후 1시) △남사당놀이(7~8일 오후 3시 30분) 등이 마련된다. 으뜸 시념인 선발대회는 씨름왕 선발대회로 어린이부와 승가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어린이부는 등록선수 뿐 아니라 비등록선수도 현장 접수 가능하다. 최고 상금 50만원. 또한 승가부는 전국 학인 스님 및 일반 스님 40명이 출전하며, 최고 상금은 300만원이 수여된다. 개막법요식은 6일 오후 3시 점등과 함께 봉행된다. 승시 축제 관련 리플렛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조계종 사찰에 배포된다.

대장경문화축전(10/20~11/5)

법보종찰 해인사의 가을은 대장경과 함께 한다. 해인사는 합천군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17일 동안 합천군 가야면 대장경테마파크와 해인사 일원서 '2017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록문화유산인 대장경에 담긴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축제인 만큼 기록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부대행사들로 꾸며진다. 대장경 천년관에는 국보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대반야바라밀경〉 〈불설내녀기역인연경〉 〈대방광화엄경〉 등의 경판들이 대거 전시된다. 기록문화관에서는 불복장 및 조선왕조의궤전과 신왕오천축국전 등 기획전이 열리며, 대장경빛소리관에서는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세계교류관에서는 팔만대장경 전국예술대전, 한·중 사진교류전 등의 전시가, 도예체험관에서는 도예체험과 공예전시가 진행된다.

보리수 공연장과 메인무대에서는 축전 관람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공연들이 채워진다. 대장경의 가치를 아트서커스로 전달하는 '주제공연-바다의 은공'은 축제기간 동안 평일 1회, 주말 2회 공연되며 해외 전통문화 공연, 연예인 축하 무대 등도 진행된다. 또한 대장경 축전 성공을 위한 불모산 영산재(10월 21일), 서각 퍼포먼스(10월 21·28일) 등 특별행사도 열린다. 이밖에도 고려 복식체험, 몽골군을 이겨라 등의 이벤트와 대장경 인경·페이스페인팅·천연비누 만들기·풍경 만들기 등 체험행사들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신성민·윤호섭·박아름 기자

한국간화선연구소 종책 토론회

한국간화선연구소가 오는 9월 7일 **'제4차 산업혁명시대 조계종 수행과 전법의 과제'**를 대주제로 종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종책 토론회의 취지 및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불자 300만 이탈과 개신교에 이어 2위 종교로 후퇴된 불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발전 대안을 모색하며, 둘째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기의 변화를 살피고 종단의 수행 및 전법의 과제를 진단하여 대안을 찾고, 셋째 현장에서 수행과 전법 활동하는 사부대중이 함께 지혜와 원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열리는 한국간화선연구소 주최 종책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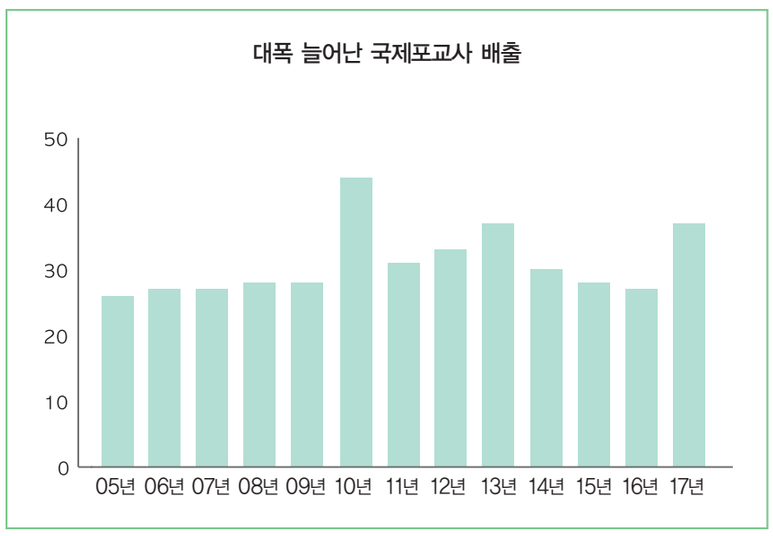
"제4차 산업혁명시대 조계종 수행과 전법의 과제"

▲축 사 : **심익섭교수**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기조말씀 : **수 불 스 님** (안국선원장)
▲발 제 1 : **인공지능시대와 수행 종책에 대하여** – **미산스님** (한국간화선연구소장, 상도선원장)
▲발 제 2 : **제4차 산업혁명기 전법의 과제** – **백도수교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토 론 자 : **토진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마가스님** (자비명상 대표), **하림스님** (부산 미타선원장), **정운스님** (철학박사, 조계종 교육아사리), **조은수교수** (서울대), **이언오박사** (바른경영연구소장)
▲사 회 : **정목스님** (정각사 주지, 유나방송 대표)
▲일 시 : **2017년 9월 7일 (목) 오후 2시 ~ 5시** ▲장 소 : **서울 안국선원 큰법당**
▲주 최 : **한국간화선연구소**
▲후 원 : **안국선원신도회**

“스터디로 국제포교 신심 · 원력 증장을”

국제포교사회, 올해 국제포교사 37명 배출 화제

양성과정 통해 능력 배양
스터디 공간 및 활동 보장
“지원자 늘고 있어 희망”



한국불교 세계화의 첨병역할을 하는 국제포교사. 영어를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이들의 중요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인증하는 국제포교사 22기 양성과정의 사전시험 결과 37명의 응시자가 합격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국제포교사 양성 교재와 교육과정을 만들어 국제포교사를 정식으로 배출해왔다.

매년 10~20여명이 배출돼 왔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증가세가 놀랍다. 기수별 배출자를 보면 정식 기수 외 54명과 기수 기산 이전 154명을 제외하고 1~5기 84명, 6~10기 145명, 11~15 158명, 16~20기 159명 등 꾸준히 늘었다. 22기의 경우 37명으로 역대 2위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영어 외 일본어 응시자도 3명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국제포교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민병완 국제포교사회 사무처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통번역 봉사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참여 외국인에 대한 봉사활동 등 국제포교사들의 역할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은퇴교사 및 번역사, 해외거주 교민출신 등 국제포교사를 지원하는 이들의 폭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포교사들의 활동이 소개되며 지원자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제포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비롯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제포교사회는 매년 초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에 참가자를 지원받아 일정 심사를 통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4월 1일 입재를 시작으로 4월에는 불교교리 교육이 진행됐으며, 5월에는 PT 및 스피치 스킬, 수련회 등 실무교육이, 6월에는 서양 및 티베트, 동남아, 비교종교학 등 해외불교 및 이웃종교 교육, 7월에는 불교미술과 불교건축 등 응용분야 교육, 8월에는 템플스테이 지도 및 다문화 교육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제포교사회는 매주 수요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외국어 실력을 가졌지만 불교지식이 부족한 이들이나, 혹은 불교지식이 많더라도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함께 참여해 자유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물론, 토론은 영어로 진행된다.

민병원 사무처장은 “달라이라마의 해외전법 등 흥미있는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해 호응이 높다”고 반응을 전했다.

박홍우 국제포교사 회장은 “국제포교사들은 한명 한명이 훌륭한 전법 자원”이라며 “특히 다양한 포교가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9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 19회 국제포교사회 창립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올해 최종 합격한 국제포교사들의 품수식을 시작으로 창립기념식, 토크쇼,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톡톡 튀는 아이디어 실현해볼까? 서울형MC 문을 두드려보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⑤ 이중서 제일상사 대표



‘이거 사업으로 하면 대박날 텐데!’ 생각보다 자주 하고, 자주 듣는 말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흔히 하는 말이지만, 대부분은 안정성 · 경제성 등 여러 이유로 생각에만 그친다. 그럴 때 든든한 자금 기반이 마련돼 아이디어가 현실로 실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 구로구에서 제일상사를 운영하는 이중서 대표(63)의 창업도 아이디어와 자금 지원, 두 박자가 맞았기에 가능했다.

이 대표는 심한 무릎통증으로 연골주사 등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운동기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하면 통증이 더 경감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착안해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이 대표는 개발비용 문제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하 서울형MC)을 통해 해결했다.

“자금 조달 방편을 찾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서울형MC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대출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담보가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이 대표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받은 대출금은 2,000만원. 무담보 · 저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이 대표의 제품 개발은 순풍에 닻을 단 듯 진행됐다.

“무엇보다 무담보 · 저금리의 장점이 가장 컸습니다. 제품 개발 및 사업 초창기에는 자금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대출 후에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사후 관리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영컨설팅은 이 대표에게 큰 힘이 됐다. 건강기구 관련 영업 경험은 있으나 제작은 해본 적 없는 이 대표에게 제작부터 판매까지 든든한 지원군이 된 것. 이 대표는 이달 제품 출시 후 인터넷 쇼핑몰 및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홍보 판매를 계획 중이다.

“자리에 앉은 채로 운동이 가능해 더욱 안전합니다. 노약자 인구가 증가하는 요즘 피로회복 및 혈액순환, 관절운동 및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될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보급해 노약자 및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아름 기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전국 포교사 논산 훈련소서 결집한다

포교사단, 9월 9일 호국연무사 8재계 수계법회

군포교 활성화 일환으로
비용 아껴 후원금도 전달


포교사단 8재계수계법회 자료사진.

전국에서 활동하는 3500여 포교사들이 논산 육군훈련소에 모여 불법 홍포를 새롭게 다짐한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9월 9일 오후 5시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15차 팔재계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한다.

포교사단은 군포교에도 앞장서 현재 900여 포교사들이 군승법사가 없는 군법당에서 전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포교사들이 군장병들의 산실인 호국연무사에서 결집하는 것은 최초다.

매년 10만명에 달하는 장병들이 수계받는 호국연무사에서 포교사들은 청정한 삶을 강조하는 팔재계를 수계한다. 여기에 22기 일반포교사 460명과 11기 전문포교사 138명이 새롭게 품수를 받는다. 입재식에서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연수특강이 진행되며 무박 2일간 철야정진으로 이어진다. 법회는 이튿날 새벽예불까지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정진과 함께 포교부장 가섭 스님의 특강과 회향식으로 끝난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호국연무사는 청년포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포교사와 가족들을 비롯해 올해 포교사 고시 최종 합격자 등 3500명이 참여해 신심을 새롭게 다지고 포교사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국연무사에서 열리는 만큼 포교사단은 무대 설치 등 절감한 행사비용과 오후불식으로 모은 식사비 등 2000여만원을 군포교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아시아 장애불자 교류 사업 결실 눈앞

보리수아래, 아시아장애인 공동시집 편집 들어가

미얀마 장애불자 8명 참여
총 37편 수록… 지원 절실

불자장애인 문화예술인 모임인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는 9월 30일 출간 예정인 〈빵 한 개와 칼 한 자루〉 편집 작업에 들어갔다.

아시아불교국가 장애인들과 한국 장애인들 간 국제교류의 첫 결실인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인 〈빵 한 개와 칼 한 자루〉에는 시각장애인 미얏쭈에잉 씨, 절단장애인 밍카웅쪼스 씨 등 미얀마 장애시인 8명의 작품 15편과 정준모, 홍현승 최명숙 등 한국장애시인 5명의 작품 22편 등 총 37편이 한국어와 미얀마어로 수록된다.

이번 시집 발간은 한국장애인 불자들의 활동을 아시아불교국가에 알리는 계기이며, 장애로 인해 여행에 어려운 장애인 불자들에게 아시아 전통불교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시집 발간에 참여한 미얀마 시인 중 시각장애인 미얏쭈에잉 씨는 시인뿐 만이 아니라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번역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 학과 박장식 교수가 미얀마 시인들의 시를 한국어로, 주한미얀마대사관 통역관 레이레이몬 씨가 한국장애시인의 시를 미얀마어로 번역하는데 재능기부했다.

보리수아래는 9월 말에 시집 출간 후, 한국에서 10월 25일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10월 30부터 11월 3일까지, 3박 5일간 미얀마 현지의 미얀마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해 시집과 원고료, 후원금을 전달 할 계획이다. 이어 미얀마 보장구센터 삐존 치두레뚜 니삔야 세윤을 견학하고 양곤과 바간 지역의 불교 유적도 순례한다.

이번 시집 발간비는 조계종 불교시민단체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500만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나 기타 미얀마 현지 활동비 등의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덕현 기자

(사) 한 국 미 륵 불 교

봉 제2회 선조사 제례 및 법계품수 대법회 행

(사)한국미륵불교 법맥인 西天과 東土 직계 큰스님의 靈位를 모신 제례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사)한국미륵불교 법계품수와 효사랑 큰잔치도 같이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日 時 : 불기2561(2017)년 9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 場 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1길 102-15 대무량사
● 문 의 : 055)672-4394

◆ **1부** : 제 례 – 선조사 고암 상언 대종사 외 19위 제례 봉행
◆ **2부** : 법계품수 – 한국미륵불교 대종사 : 혜안스님. 행화스님
한국미륵불교 종 사 : 삼봉스님. 원봉스님
◆ **3부** : 孝사랑 큰잔치 – (사)가야국악단원 축하공연(민요, 가요, 춤, 장기자랑 등)





● **주최 : (사)한국미륵불교** ● **주관 : (사)한국미륵불교. 법련문도회**



모양은 본디 허망… 고요히 자연과 하나되고 싶다

秋日隨想 - ① 몸을 붙들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더워 들뜬 마음과 몸을 정리할 시기다. 한국을 대표하는 수필가인 맹난자 작가가 본지에 가을 맞이 수상을 4회 연재한다. 그는 연재를 통해 몸과 죽음, 시간의 공성(空性) 등에 대한 깊은 사유를 유려한 문체로 전달한다. 깊어가는 가을, 문인의 수상을 통해 독자 제호들도 성찰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편집자 주〉

짧은 봄밤보다 나는 여름날의 긴 하루해를 좋아 하였다. 더구나 별안간 쏟아지는 장대비에 갇혀 무상으로 주어지는 하일(夏日)의 그 여가 시간이란 얼마나 선물같은 것이던가. 그런데 이제는 눈만 뜨면 긴 하루가 제한 없이 주어진다.

일흔에서 여든에 이르는 시간은 아이 때의 일주일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한 이가 있지만, 그 나이 때를 살고 있는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몸이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루 중 반나절밖에 살지 못하는 노년의 시간은 사라짐으로 가는 휴지(休止)의 시간, 어느새 하릴없는 노인이 되어 땅거미가 내려앉는 뜰을 우두커니 내려다 보고 있다. 어쩐지 저 물녘의 뜰도 슬퍼 보인다. 성하(盛夏)를 지나고 있지만 소멸로 가는 그 푸른 것들의 발자욱을 알기 때문이다.

몸보다 무상(無常)한 것이 다시 있을까. 감꽃 같던 계집애는 등 굽은 노파가 되었고, 풍우를 막아주던 몸도 시간의 부식으로 닳아져 오늘 새벽에는 무릎과 손가락 뼈마디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관절마디의 통증, 신경세포가 숨을 참고 통증을 견디느라 애쓸 때 비로소 내 몸의 존재가 절실하게 체감되던 것이다. 엉거주춤 이런 몸을 붙들고 나는 노후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

생에서 노사(老死)로 바로 가면 좋으련만 그 과정에 매복하고 있던 온갖 질병이 나타나 몸을 괴롭힌다. 사고가 아니라면 우리 대부분은 아프다가 죽는다.

몸이 떠날 때가 되었는데도 죽어지지 않는 사람의 몸처럼 괴롭고 끈질긴 것이 있을까. 보스톤의 한 호텔방에서 "왜 빨리 죽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고함을 치던 유진 오닐의 모습이 떠오른다. 파킨슨병으로 그는 2년 가까이 그 방에 유폐되어 있었다. 인고의 한계를 감당한 그에게 머리가 숙여지기도 했다.

'봄의 첫날 가을의 끝을 생각한다'는 어느 시인처럼 나는 가을의 끝에 붙잡혀 100여 명 인물들의 마지막 순간을 채집하여 책상 위에 한가득 부려 놓았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졸저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였다. 남산이 북산에게 건네는 생사의 은밀한 눈짓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기행'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이 나온 후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죽을 것이냐?"고 물어왔다. 모 방송국 PD가 찾아왔을 때 "글쎄, 좋은 죽음의 모델들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과연 그것대로 죽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오! 주여. 자신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게 하소서"라던 릴케의 말대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내겐 화두라고 말하며 의료행위를 거절하고 타계한 제클린 케네디 여사의 존엄사를 거론한 뒤, 나의 경우 다만 어떠한 연유에서건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죽음이 찾아와 준다면 더없이 좋으리라는 생각이며, 떠나려는 시간과 끊어지는 시간이 적절하게 맞추어지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던 게 생각난다.

그것은 죽음을 몇 미터 앞에 둔 20년 전의 일이다. 죽음은 전적으로 몸의 소관, 몸의 일인걸 몰랐던 것이다. 떠나려는 시간에 목숨이 때맞춰 끊어질리 있겠는가. 억지로 목숨을 끊어 시간을 맞추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지 싶다. 폐기종을 앓던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은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가락을 다쳤다. 그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곧 갈 건데 왜 이렇게 야단이냐?"

죽음의 시간을 알리는 신들의 예고라고 생각한 그는 그 자리에서 목을 맸다. 92세였다.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낙스도 107세가 되자 곡기를 끊고 아사를 택했다. 미국의 사회개혁자이던 스콧 니어링도 100세가 되자 식음을 전폐하였다. 그의 아내가 남편 곁에서 독려해 준 그 속삭임을 나는 내 것으로 삼고 있다.

"몸이 가도록 두어요. 썰물처럼 가세요. (…) 당신은 훌륭했어요. 당신 몫을 다했어요. (…) 빛으로 나아가세요."

스콧 니어링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몸이 가도록 두는 일이 아닌가 한다. 약을 쓸 때도 있지만 통증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노라면 경허 스님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 **죽음은 나를 쉬게 하는 것이니**
> **소로처럼 포근한 땅의 감촉을**
> **나는 맨몸으로 느끼고 싶다.**
> **진정한 휴식은 자연에의 복귀**
> **망상 끊어진 침묵, 적멸이다.**

스님은 길가는 아이들을 불러 놓고 지게막대로 자기를 때려 달라고 부탁했다. 많이 때리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니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서 스님을 두들겨 팼다. 그때마다 스님은"나는 안 맞았다 안 맞았다"고 외쳐댔다. 매를 맞은 것은 허깨비 같은 몸이요, 언젠가는 사라질 육체이고 청정한 진아(眞我)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이 허깨비 같은 몸을 붙들고 '안 아프다, 그래 아픈 게 아니다'라고 되뇌며 어떻게 하면 그분들처럼 몸을 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일체 변하는 법은 그 실체(實體)가 없는 것./ 모양이란 원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 같은 임종게를 남긴 부산의 혜월(慧月)스님은 안양암 뒷산에 올라 한 손으로 솔가지를 잡은 채 호흡을 접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경통(景通)선사는 촛불을 켜들고 스스로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제자들의 우는 모습을 보며 열반에 들었다. 불교에서는 원래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 불교에서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가?

우리의 존재는 인연에 의해 연기(緣起)상황으로 존재하다가 조건이 다하면 돌아가는 무아(無我)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연기에 의해 가합(假合)된 이 몸은 본래 공(空)한 것. 따라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재(主宰)'도 없다. 그래서 붓다의 제자 바칼리 비구가 몸의 극심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결행 했을 때 붓다는 "그는 내 설법을 듣고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 법(진리)에 대해 두려움 없이 반열반에 들었다"고 말했다.

바칼리는 '오온(몸을 구성하는 色受想行識의 5요소)이 공(空)하다'는 것을 이미 터득하여 탐애로 구하는 업(業)이 멈추었다. 색(色, 몸과 물질)은 무상하며 변하고 바뀌는 것. 그로해서 생겼던 번뇌가 끊어지고 집착할 것이 없게 되자, 안락에 머무르게 되어 반열반(般涅槃)을 얻게 된다는 붓다의 말씀을 그는 믿고 따랐던 것이다. 그가 반열반에 들었다는 붓다의 기별은 그러니까 '윤회(再生)'의 문제를 해결한 인증표인 셈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그분들의 열반을 자살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살과 열반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마음 없음(心無常)과 무아(無我)를 알지 못하고서 집착과 원한을 품은 채, 현실 도피로 자살을 감행 한다면 거기에는 묵은 빚(宿債) 이 남게 되고 업(業)이 따라 붙어 윤회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열반은 그와 반대가 되지 않을까.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금기시하여 왔다. 생명은 오직 신의 특권이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지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자신의 에세이 〈자살에 관하여〉에서 우리의 영혼은 필멸이며 죽는 순간 육체와 더불어 사라지며, 우리를 체벌할 신(神)도 없는데 자살을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를 묻는다. 이상적인 자살이란 '금식(禁食)'이라고 언급했던 쇼펜하우어가 생각난다. 107세의 데모낙스나 100세의 스콧 니어링은 떠나려는 시간과 목숨이 끊어지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금식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그들의 몸은 이미 기운이 소진할대로 소진하여 자연에 동화되는 자연사에 가까운 죽음이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모방하지 않기를 바란다.

"살 만한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삶이 우리가 짊어 질 수 없는 짐이 된다면 우리가 자살을 택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흄은 또 적고 있다.

나는 그것의 정당 여부를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최대의 고유한 선택이므로. 나는 다만 이 몸의 실체 없음(無我)을 알면서도 생인손 같은 통증을 어쩌지 못하고 있다. 통증은 현실이다.

인도의 유마힐 거사는 번뇌를 떠나지 않고도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온갖 상념 속에 이 몸을 붙들고 있다. 아니 서서히 자살하고 있는 중이다. 늙는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1980년 교통사고로 죽은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가 자주 인용하던 말이다. "늙는다는 것, 이는 서서히 자살하는 것"이라고.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다만 그것으로 가는 과정이 길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죽음은 드디어 나를 쉬게 하는 것이려니, 나는 기쁘게 땅을 껴안을 수 있었다는 헨리 데이빗 소로처럼 포근한 땅의 감촉을 맨몸으로 느끼고 싶다. 진정한 휴식은 자연에의 복귀(復歸)이다. 망상(妄想)이 끊어진 침묵, 적멸(寂滅)이다.

땅거미는 정령(精靈)처럼 사뿐히 지상에 내려앉고 푸르스름한 어둠이 사위를 감싼다. 이 고요한 시간에 나는 대지와 하나가 되고 싶다. 심장마비로 혼자 눈을 감은 어머니처럼 긴 여름날 하오에.



미물들조차 생명의 번식이 왕성한 여름, 그 조용한 숲그늘 한 켠에서 사위어가는 목숨들. 아름다운 우주의 균형을 생각하게 된다.

맹난자 / 수필가

追 慕

제 19회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 대재

귀의 삼보하옵고

(사)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21,709위의 추모대재를 봉행함에 있어 이 뜻 깊은 추모대재에 사찰 및 민간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수희 동참하기를 앙망합니다.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식은 1967년 (故)정기영 집행위원이 재단법인 부산영원설립을 사재로 설립을 하여 추모비를 설립하며 추모제를 시행하여 오던 중 1997년 부산시에 위임하여 위령제를 봉행하여 오면서 (사)대원불교조계종이 주관하여 태평양전쟁 한국인 추모제를 봉행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이번 **'제 19회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대재'**를 안내 하오니 추모의 마음을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래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10시

■ 장 소 :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 문 의 : 봉행위원장 석혜오 총무원장 화남 (010-3562-2462)

•증 명 법 사 : 화산당 월인 대선사

•집행위원장 : 정산당 청봉 대선사

•봉 행 위 원 장 : 석혜오 총무원장

•집 행 위 원 : 홍섭. 보행. 원정. 덕오. 원명. 수오. 설산. 법현. 월오. 법경. 초오. 법주. 법진. 지광. 도일. 유심. 지혜. 화성. 현오. 법원. 지담. 도현. 지현. 해안. 우정 (무순)

•봉행위원 : 혜주. 정음. 성현. 성오. 법담. 진여. 혜원. 지현. 운오. 혜통. 진오. 능현. 혜광. 능각. 법일. 정은. 지용. 무공. 정진. 가견. 성보. 가능. 혜운. 법수. 동원. 만월. 법용. 연각. 법오. 가덕. 범일. 명오. 덕운. 대덕. 대연. 혜문. 보정. 광운. 도산. 수해. 운산. 원광. 해연. 해인. 광명. 대몽. 법성. 효선. 청명. 청공. 일월. 지원. 서정. 선혜. 무관. 선담. 무설. 서진. 해동. 청화. 대범. 연하. 황산. 해월. 태일. 현각. 덕봉. 법해. 법인. 법륜. 법전. 원오. 선공. 경민. 제웅. 정각. 도산. 용수. 무해. 효인. 도인. 대산. 진광. 일해. 송산. 성진. 현진. 윤하. 해오. 우담. 보명. 도도. 범오. 태봉. 문수. 광정. 수명. 능견. 청진. 보성. 성덕. 현산. 여일. 동선. 호일. 묵오. 진도. 혜명. 지성. 우초. 현암. 진명. 보각. 일성. 주연. 지종. 월행. 현운. 혜진. 일정. 지선. 동광. 자비. 범정. 보명. 지밀. 법완. 금오. 무오. 지우. 법호. 법승. 무진. 무유. 탄허. 무일. 무상. 빈여. 진여. 일타. 해산. 혜안. 석산. 만오. 봉산. 지운. 법공. 광덕. 우초. 태호. 진공. 동삼. 덕천. 효단. 혜림. 진명. 성문. 도혜. 동운. 법인. 대오. 해성. 무착. 영공. 영현. 송제. 법우. 정현. 달오. 어정. 정관. 청호. 석두. 대공. 묘훈. 도언. 성념. 오성. 해동. 정재. 해명. 지우. 문수. 승배. 도운. 혜명. 혜심. 법경. 경민. 국담. 경오. 현산. 정로. 보담. 정해. 법산. 무량. 향산. 성종. 성심. 성진. 정연. 성인. 성산. 고봉. 자운. 성관. 능소. 법민 (무순)

(사) 대원불교조계종 집행위원장 정산당 청봉 대선사 화남

이생의 탐욕이 당신을 지옥으로 이끈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⑥ 목련존자 이야기 上

우란분재가 거행되는 백중날은 하안거 해제일이기도 합니다. 우란분재의 유래와 관련 깊은 〈목련경〉에 보면, 부처님이 목련존자에게 어머니의 천도를 위해 특별히 지정해 준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안거 기간 동안 청정해진 스님들의 집단적인 법력을 빌리면 충분히 천도가 가능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사찰에 모여 과거 7대 조상님들과 떠도는 고혼(孤魂, 후손이나 친지가 없는 고독한 영혼)들을 위해, 대대적인 공동 천도재를 거행합니다. 스님들과 대중들이 모두 모여 한 마음이 되어 공양하는 큰 축제날입니다. 우란분재를 설하게 된 연유는 '목련구모(目蓮求母)'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여느 사찰에 가도 쉽게 벽화로도 찾아볼 수 있는 친근한 내용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다' 라는 뜻인데, 바로 〈목련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고려시대 때 선왕의 영가천도를 위해 왕실에서 우란분재를 베풀었고 또 고승을 초청하여 목련경을 강설했다는 기록("癸卯 設盂蘭盆齋于長齡殿 以薦肅宗冥祐 甲辰 又召名僧 講目蓮經" 〈高麗史〉 卷12)으로 보아,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널리 유행한 경전이자 법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목련경의 사찰 판본 종류가 10종이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대중적 신앙으로서 깊이 침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목련경 목판본이 전하지만 주요 한문본을 꼽자면 소요산 연기사 1536년본 · 승가산 흥복사 1584년본 · 묘향산 보현사 1735년본 · 금강산 건봉사 1862년본 등을 비롯 10여 본이 전합니다. 또 언해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 한글로 간행된 〈목련경〉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 목련경은 우란분재의 성행과 더불어, 예로부터 우리 옛 선조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베스트셀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련경〉 내용의 골자는 무간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아들 목련존자는 어떻게 어머니를 구해내었을까요? 불화 '감로탱'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의 내용을 작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아들의 출가

옛날 왕사성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살았는데 외아들 하나가 있었답니다. 이름이 나복(출가 후 존명 목련존자)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창고 속의 물이 점점 줄어들자, 집안 살림이 걱정이 되어 장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청제부인)에게 남은 재물을 살림과 삼보 공양에 쓰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돈을 흥청망청, 그것도 온갖 사악한 방식으로 탕진합니다. 게다가 아들에게는 삼보에 공양했다며 감쪽같이 속이는 교활한 행태까지 보입니다. 이에 보다 못한 이웃사람이 "그대 어머니는 삼보 스님들은 작대기로 때려 쫓고, 오백승재 할 돈으로는 돼지 · 양 · 거위 · 오리 · 닭 · 개 등을 사들여 살찌게 키운 후, 온 기둥에 매달아 목을 찔러 피를 받고, 돼지를 묶어 놓고 방망이로 치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어 튀하였지요. 그리고 슬피 우는 소리가 끊어지기도 전에 배를 가르고, 염통을 꺼내어 귀신에게 제사하고 갖은 잔치를 벌였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맹세컨대 그런 일이 없고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간교한 말로 아들을 교란시키며, 오히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대로 중병이 들어 이레(7일)안에 죽어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며 호언장담까지 합니다. 이런 말까지 듣고 어머니를 의심할 아들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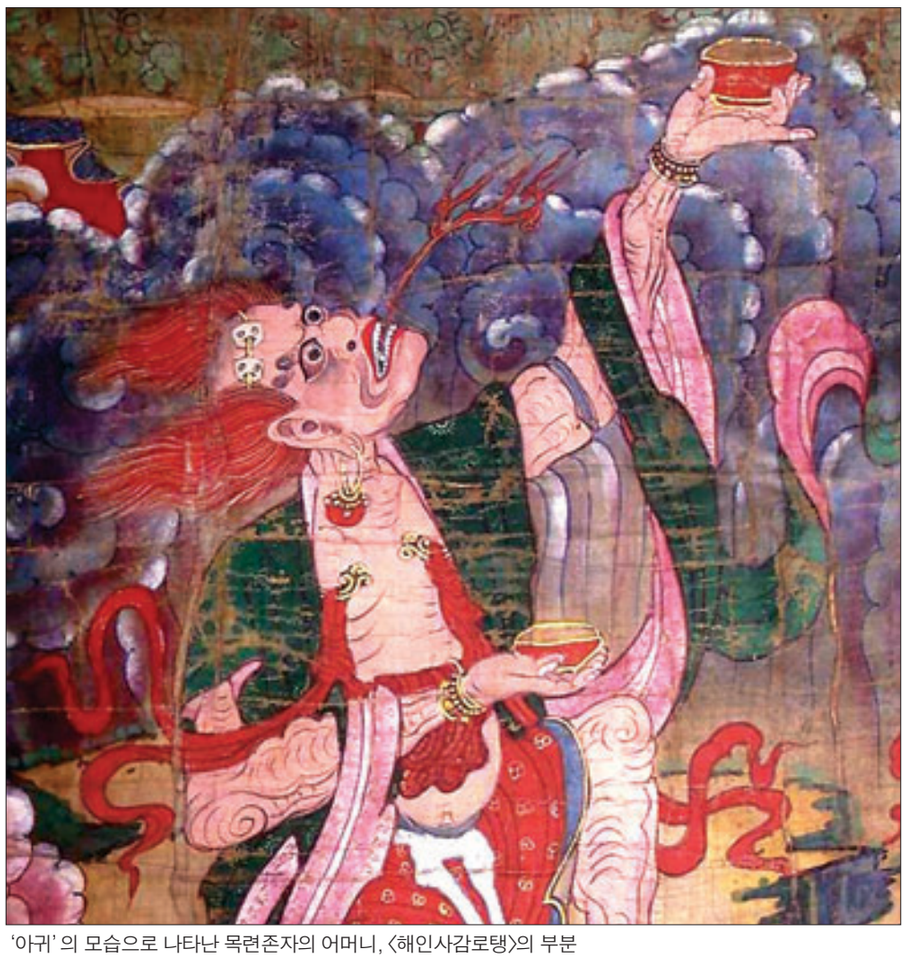
하지만, 구업(口業)은 무서운 지라, 정말로 어머니는 돌연 병이 들어 불과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자신이 한 짓을 숨기고 거꾸로 세상 사람들을 탓하며 아들을 속이려 던진 거짓말이 그대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업이란, 입으로 짓는 업을 말합니다. 욕설이나 악담으로 상대를 상처 주는 말(惡口) · 이간질하여 분노심을 일으켜 서로를 해치게 하는 말(兩舌) ·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잘 꾸며서 현혹시키는 말(綺語) · 상대를 속이는 거짓말(妄語)이 있습니다.

우란분재 봉행 이유 '目蓮求母'
고려시대부터 유행한 중요 의례
목련의 어머니 구업으로 지옥행
이를 안 목련의 고뇌는 깊어진다

결국, 삼보를 믿지 않고 개 · 돼지 등 살생을 즐겨 한 어머니는 그 업보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지옥으로 신통력으로 찾아다니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련존자가 가는 기옥마다 처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죄인들을 잘게 작두로 썰어 방아에 넣고 찧고 있는 끔직한 풍경 '좌대지옥(k 地獄)' 이 보입니다. 또 이곳은 산 전체가 칼날 나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칼날이 모두 위를 향해 날카롭게 뻗쳐 있네요. 이곳에 떨어진 중생들은 어디 피할 곳도 없이, 움직이거나 무엇을 잡을 때마다 손발이 피흘리며 산산 조각납니다(검수지옥, 劍樹地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육중한 돌판 사이에 끼어 죄인들이 피와 살이 뭉개져 나오며 압사당하고 있습니다(석합지옥, 石 地獄).

거대한 양잿물 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시커먼 강물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검은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부딪쳐 온 몸이 화상입고 부르트는 고통을 받습니다. '회하지옥(灰河地獄)' 입니다.


감로단, 〈해인사감로탱〉의 부분, 1723년, 경남 합천 해인사 소장.


'아귀' 의 모습으로 나타난 목련존자의 어머니, 〈해인사감로탱〉의 부분

이번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있고 그 안에 시뻘건 구리물이 화산의 용암처럼 끓고 있습니다. 중생들을 지지고 삶는 '확탕지옥(鑊湯地獄)' 입니다. 목련존자는 이러한 광경들을 두루 목격하고 처절하게 슬퍼집니다. "이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이 같은 고통의 과보(苦報)를 받는 것이오?"라고 물으니, 각 지옥을 담당하는 옥주들을 그 죄업을 말해줍니다.

지옥서 어머니를 찾는 목련존자

사실 지옥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행위들은, 인간이 같은 지구상의 축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짓입니다. 그 이기심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직접 '나' 를 당하는 입장으로 대입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행할 때는 모르다가 자행 당할 때야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여러 중생들을 썰고 꼬지에 꿰어 불어 구워먹으며 맛이 좋다고 즐거워했으며, 개미 벌레 등을 밟아죽이고 중생들을 다량 살해하였고, 삼보를 믿지 않고 부잣집에 태어나 중생들을 삶아 먹었기에 지금 이 수중에 떨어져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다."

지옥의 풍경이 말해주는 원리는 '한 대로 받는다' 는 업보(業報) 또는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평생 행해왔던 또는 세세생생 만들어온 업(業)의 에너지는, 육신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죽는다' 는 것을 '사대(地水火風)가 흩어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이 없어져도, 평생 지은 업의 에너지 또는 업의 덩어리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향대로 탐착을 거듭하여, 육도를 윤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흩어져도, 중생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남게 되는 이것을 업(業) 또는 업식(業識), 영식(靈識), 영가(靈駕), 영혼 등으로 부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의 영가는 그 탐욕스런 모습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뭇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살생을 즐겼기에 여지없이 지옥 중에 상지옥인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불교의 진리대로 하자면, 모든 존재는 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적용된 원리, 즉 연기(緣起)와 무상(無常)이라는 철직 속에 흘러가는 존재이니까요. 잠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축생들을 잔인하게 죽일 권리는 어디에도 없겠지요. 또 직위의 고하나 직책 또는 성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경시하거나 함부로 할 권리도 어디에도 없겠지요.

"목련은 다시 앞으로 가다가 큰 지옥(무간지옥)이 있는 것을 보았다./ 담의 높이는 만 길이요 검은 벽이 만 겹이다./ 그 위에는 철망으로 얽어 씌웠으며/ 그 위에는 또 네 마리의 구리로 된 개가 있어/ 입으로 맹렬한 불길을 토하여 질주한다./ 그 불길은 활활 허공에서 타고 있었다./ 밖에서 천 마디나 소리를 질러 봐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목련경〉 中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불교상식

'백중' 이란 ?

불교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우란분절은 백중(百中)날이라고도 한다. 음력 칠월 보름날인 이날은 일 년의 전체 절기 중 딱 중간되는 날이다. 그래서 가운데 '中' 자를 써서 백중날이라고 한다. 이날은 중요한 농사일이 끝나는 시기이기에 한 숨 돌릴 수 여유가 생기는 날이다. 그래서 채소 · 과일 · 술 · 밥 등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을 불러 감사했다. 그래서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 또 수고한 머슴들을 술과 음식으로 대접하는 날이라 해서 머슴날이라고도 불렀다. 일종의 노동절, 노동축제일과도 같은 성격도 내포되어 있다. 또 '백종(百種)' 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무렵에 과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 백가지 곡식의 씨앗(種子)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날 사찰에서는 오미백과를 차려놓고 우란분재라는 대대적인 공동 천도재를 베푼다. 그래서 백중기도라고 하며, 이 날이 49재 회향날이 된다. 전통적으로 가장 큰 세시풍속 중 하나였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사찰 속 우란분재만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깨달음 · 4차산업 등 다양한 주제 눈길가네

주요 불교학술단체 하반기 일정은?

불교계 학술단체들의 하반기 일정이 시작됐다. 상반기가 원효 1400주년을 기념한 학술대회가 주요한 흐름이었다면 하반기는 각 학회와 단체들의 학술적 고민과 개성이 묻어나는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가장 현시대에 밀접한 주제를 놓고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바로 '불교와 4차산업'이다. 12월 2~3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18명, 국외 10명 등 국내외 불교학자 28명이 참여한다.

대회는 △4차 산업기술의 불교철학적 해석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전법 포교 △사물인터넷 · 스마트시티와 불교 △가상 · 증강현실을 이용한 불교교육용 프로그램의 개발 등 5가지 소주제로 진행되며, 국내외 불교학자들은 5가지 소주제 맞춰 논문을 발표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추계학술대회를 3달 연속으로 개최한다. 주제는 '인도 · 중국 · 티베트 불교의 깨달음 논쟁'이며, 10월 14일(동국대 신공학관) · 11월 11일(혜화관) · 12월 9일(혜화관) 세 번에 거쳐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큰 주제는 각 지역별 불교로 구분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초기와 중관, 유식, 천태, 법화, 선불교 등에서 나온 깨달음 논쟁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불교학회 '4차산업' 학술대회
국내외 불교학자들 대거 참여
불교학연구회 '깨달음' 주제로
10~12월까지 연속 학술대회

보조사상硏 30주년 맞아 세미나
동국대 3개 사업단 공동으로
불교문헌 정본화와 확장성 논해
리앤원 주최 해외 석학 강연도

발표 방식과 시간도 변화를 줬다. 3인 1조로 팀을 구성해 돌아가며 논문 발제와 논평을 진행한다. 시간은 발표 · 논평 1시간, 토론 1시간으로 한 논문 주제 당 2시간 씩이다.

또한, 12월 22~23일에는 3달간의 학술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해운정사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국대 HK사업단,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단, 토대연구사업단은 공동으로 한국불교문헌에 대한 대형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한국불교문헌의 정본화와 확장성'을 대주제로 오는 10월 19~20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원효 찬술 문헌의 정본화'(주관 ABC사업단)와 '한국불교문헌의 확장성과 디지털 지형도'(주관 HK · 토대연구사업단)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은 다양한 주제의 월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9월 15일 동국대 다향관에서는 '고려시대 불교미술'을 주제로, 10월 20일에는 탄허기념관서 '오늘의 불교학, 내일의 불교학'을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연다. 11월 25일 순천 송광사에서 연구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보조사상 연구의 회고와 전망' 주제의 발표회가 진행된다.

김호성 연구원장은 "연구소 창립 이후 30년 간 보조 관련 연구가 교학 · 선학 · 역사학 분야서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토학회(회장 정인)와 **오대산월정사**(주지 정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9월 9일 '한국 오대산의 불교문화와 문수신앙'을 주제로 봉은사 문화원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신라부터 중국 · 인도 · 일본 등의 문수신앙을 점검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해외 불교 석학들의 강연도 열려 눈길을 끈다. **재단법인 리앤원**(이사장 이미영)은 9월 8일과 9일 양일간 '초기 불교-언어, 전설, 유물'을 주제로 워크숍과 강연회를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과 강연에는 인도 고대불교와 남방불교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오스카 폰 히뉘버 교수와 미국 베이츠대학의 존 스트롱 교수를 초청했다.

워크숍은 9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양관 302호에서 진행된다. 이날 워크숍에서 히뉘버 교수가 '베다, 인도 문법가, 초기 불교의 언어'에 대해, 스트롱 교수가 '피프라화 출토 불사리의 후사(後史)'에 대해 강연한다.

9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강연회에서는 '호불왕 아쇼카의 전설과 그 다양한 면모'와 '명문을 통해 본 남인도 사타바하나 왕국의 불교' 주제의 강연이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과원 사적 지정 추진 본격화

지정 추진위 발족… "용성 스님 선양 노력"


함양군은 8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화과원 국가사적 지정 함양군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근현대 불교 선지식인 용성 스님이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던 함양군 백전면 백운산 소재 '화과원(華果院)'의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함양군은 8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화과원 국가사적 지정 함양군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사업을 이끌 위원장으로 화과원 원장 혜원 스님과 임창호 함양군수가 공동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향후 화과원의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활동을 본격 진행한다.

화과원은 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용성 스님 일제 탄압을 피해 함양군 백전면 백운산 황무지와 임야를 개간해 조성한 농장이었다.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돼 있다.

화과원 원장 혜원 스님은 "화과원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추진위원들이 국가사적지 지정에 힘쓸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임창호 군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곳이 6.25 당시 소실돼 방치된 점이 안타까웠다. 창립총회를 열고 발 빠른 진행움직임을 보여 다행"이라며 "군도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적지 지정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2020년 세계불교학술대회 서울대서 열린다

IABS, 18차 대회서 결정

2020년에 열리는 세계불교학회 19차 대회가 한국의 서울대에서 열린다.

세계불교학회(회장 리처드 살로몬, 이하 IABS)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8차 학술대회에서 2020년 8월에 열릴 제19차 대회를 서울대서 개최키로 결의했다.

세계불교학술대회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을 순회하며 3년마다 열렸다. 제19차 대회를 놓고는 중국의 저장대학과 경쟁했고, 심의 결과 학회는 서울대를 차기 개최지로 확정했다. 그간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태국, 타이완서 개최된 바 있다.

세계불교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대에서 활동 중인 불교학자 조은수 · 안성두 철학과 교수, 윤원철 · 셈 베르미르쉬 종교학과 교수, 남동신 국사학과 교수, 이주형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힘을 모았다.

신성민 기자

문경 대승사 목각탱 국보로 승격

문화재청, 8월 31일 공고… '선종영가집' 등 보물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설법상이 국보로 승격됐다. 또한 〈선종영가집 언해본〉 등 3건이 보물로 지정되는 등 불교문화재의 국보 · 보물 지정 및 지정예고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국보로 승격 · 지정하고 〈선종영가집(언해)〉 등 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국보 제321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973년 12월 31일에 지정된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한 것이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물 제774-3호 '선종영가집(언해)'는 조선 7대 왕 세조가 친히 구결을 달고 신미 스님 등이 한글로 옮긴 것을 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상, 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 '교정(校正)' 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다.

보물 제1281-5호 〈자치통감 권57~60〉은 294권 100책 중의 영본 1책이지만 1436년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하다는 평가다. 보물 제1943호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8월 29일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국보 제321호로 승격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모습.

표충사 석탑 출토 유물 등
보물 지정 예고도 잇달아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은 1995년 삼층석탑 해체보수 작업 중 기단(基壇) 적심부에서 발견됐다. 이들 유물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에 이르는 20구의 금동불상과 탑에 봉안된 여러 공양물, 석탑의 보수를 알려주는 조선 초기의 '개수탑기비(改修塔記碑)'(1491년)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도 의미가 크다. 특히 제2 초강대왕도는 1976년에 도난당해 행방을 알 수 없던 시왕도 2폭 중의 1폭으로, 최근 프랑스에서 〈제2 초강대왕도〉가 발견되면서 2016년에 원래의 봉안처인 고성 옥천사로 환수돼 주목을 받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다.

신성민 기자

'교수불자연합학회지' 등재 후보지 선정

교불련 발간 학회지… 응용불교 분야 인정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연합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가 2017년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는 올해 4월 발간된 제23권 제1호부터 등재 후보 학술지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간 교불련 학회지인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인정되지 못하면서 학회지의 질적 저하가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심익섭 회장 취임 이후 학회지 발행을 년 3회로 늘리고, 교수 3인의 평가 이후 게재할 수 있는 편집시스템을 만들어 질적 향상을 시도했다.



또한, 학술지 등재 분야를 '응용불교'로 올려, 불교 사상으로 대사회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응용불교'를 학문 분야로 자리잡게 했다.

심익섭 교불련 회장은 "이번 평가로 학회지가 다양한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불교를 풍부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이를 통해 젊은 불자교수들의 학회 참여에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게

출가자들 자기비판적 모습을 가져야
사부대중 누구나 '덕 높은 스승' 가능

한국 불교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비판에도 무디다.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심마저 끄고 멀리한다.

불교계의 밝은 미래보다는 눈앞의 안일함에 안주(安住)하며 손익계산이 우선이다. 경전 중심의 바른 신앙보다는 주술적 거래 신앙으로 의식(儀式)불교의 둘레를 넓히고 있다. 깨달음 중심으로 전개되어야할 포교의 현장에서는 방편 불교를 앞세운 운명론이 뱀의 허물처럼 길게 누워있다.

생명력이 없는 말장난으로 불교 미디어의 광고 사찰은 신앙을 매개체로 구걸 비슷한 떳떳치 못한 선전문구로 들떠있다. 겨우 실눈을 뜬 거짓 깨달음으로 신도들을 끌어 모아 세력 넓히고 명예 높이는 놀이에 분주한 가짜들도 늘고 있다.

거기다가 달력에 윤달이라도 박혀있으면 크고 작은 사찰이 잔치 벌리듯 전생의 빚을 꺼내들며 예수재 동참을 요구한다. 선배 후배는 당연히 세속적 잣대일수 있어 깨달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요즘의 풍속도에선 조직 집단처럼 힘의 논리가 우선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속물근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무리들이 무리지어 세력을 규합하고 표 단속을 하는 모습이 이솝우화에서 만난 우스개 우화 같다.

조실, 방장도 할 만큼 했으면 후학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보고 싶다. 어느 스님이 어떤 사찰에서 대중의 뜻으로 추대된 방장, 조실 자리를 마다하셨다는 아름다운 소식, 어느 스님과 어떤 스님이 원로의 원을 사양하시며 대종사 법계 품수도 멀리하셨다는 전설 같은 소식을 오늘의 현장에서 듣고 싶다. 연륜과 승랍이 깊어 가면 깊어진 모습으로 서너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꾸밈과 드러냄 없이 자유인으로 자연인으로 살 일이다.

챙기고 모으며 쌓아두려는 끌어당김에서 비우고 버리며 나누는 삶이 더욱 아름답기 때문이다.

출가이부중(出家二部衆)은 대접받는 문화에서 겸허하게 자기 비판적 달라진 모습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함께 맞절하는 자세, 낮춤에서 시작하여 법당의 방석도 스님과 신도의 것으로 구분 짓지 말고 우열이 없는 평등성을 회복해야한다. 젊고 늙음에 상관없이 스님이라면 높게 마련된 법상에 올라 설법하는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형식과 격식을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지만 노교수(老教授)는 서서 강의하고 청년 승려는 법상에 올라야 높은 설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청법가에 있어서도 '덕 높으신 스승님'은 스님 몫만이 아닐 터이다. 사부대중 누구나 '덕 높으신 스승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TV에서는 끈질기게도 스님 법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깨달음은 학식의 높낮이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

홍인 문하의 신수 스님은 행자 혜능에 밀려 육조의 법통에서 멀어지지 않던가. 유마힐 거사는 문수보살의 지혜를 앞섰고 선재동자는 직분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 깨달음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치 복(福)을 부르고 화(禍)를 면하게 해주는 주술적 신앙 거래는 없었는지 살피고 또 살펴 부끄러움을 줄여 나가야한다.

해마다 신도들이 차려주는 생일 잔칫상은 마땅히 사라져야 하고 승려의 장례문화도 간소하게 검소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법회에 초청된 법사 스님이라면 연륜과 수행력도 만만치 않을 터인데 주최 측에서 내미는 현찰이 든 봉투를 사양 없이 챙겨가는 모습도 마땅히 사라져야한다. 법보시(法布施)는 당연히 스님의 몫이요 의무이기 때문이다.

사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하고 스님의 생활은 청빈을 기본으로 바른 수행의 덕목을 게으름 없이 정진하는데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큰 스님의 덕행(德行)을 기린다며 기념관을 만들고 생가(生家)복원을 서두르는 세태는 지극히 세속적인 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끄러운 작태이다. 장학재단이나 인재양성의 좋은 일을 하면서도 스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은 무주상(無住相)의 모습은 아닐 터이다.

세 발 당나귀가 절뚝거리며 간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의 선종을 오종칠가(五宗七家)라 하여 다섯 개의 종파와 뒤에 송대(宋代)에 들어와서 생긴 두 파를 합쳐서 말한다. 오종은 임제종, 조동종, 위앙종, 운문종, 법안종이며, 두 파는 양기파와 황룡파이다. 뒤에 생긴 두 파는 종(宗)이라 하지 않고 파(派)라 한 것은 하나의 임제종에서 분파되어 나누졌기 때문이다.

당대(唐代)에 오종으로 나눠져 선의 전성기를 이루어 번창했던 선종이 당말(唐末)에서 송대(宋代)에 들어오면서 쇠퇴의 조짐을 보인다. 오종의 종파들이 그 세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쇠해져 송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임제종에 포함되어버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 무렵 임제의 8세손에 해당되는 양기방회(楊岐方會:996~1049)가 등장한다. 양기파의 개조(開祖)다. 석상초원(石霜楚圓)의 제자였던 그가 원주(袁州:江西省) 보통선원(普通禪院)에 주석하면서부터 자신의 선풍을 크게 드날리게 되었다.

〈속전등록〉 7권에 양기가 어떤 학인하고 문답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다. 그를 친견하러 온 학인에게 물었다.

"구름은 깊고 길은 험한데 높은 가마를 타고 어디서 왔는가?"

"하늘에는 사방으로 막힌 벽이 없습니다."

"수행하러 다니느라 짚신은 몇 컬레나 갈아치웠는가?" 학인이 할(喝)을 하였다.

"한 번 할을 하고 두 번 할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스님께서 허둥지둥 하십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으나 주장자가 없구나. 앉아 차나 마시게."

양기에 의해 제시된 명공안(名公案)에 '세 발 당나귀(三脚驢)'가 있다. 그가 보통선원에서 개당을 하면서 설법을 하고나자 나이가 많은 한 학인이 물었다.

"스님은 어떤 가문의 가풍을 이어받았습니까?"

양기가 대답했다. "말이 있으면 타고 가고 말이 없으면 걸어간다." 학인이 다시 말했다. "소년 장로의 기연(機緣)이 매우 치열하십니다."

양기가 웃으면서 "내가 그대의 나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 20방을 칠 것을 그만 두겠소"라고 하였다.

그러자 다른 학인이 일어나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세 발 당나귀가 발목을 놀려 절룩거리며 걸어간다."

이 말이 나중에 명공안이 되었다. 발이 하나 모자란 세 발 당나귀가 절룩거리며 가는 것이 부처다? 이 말이 유명한 공안이 된 것을 어쩌란 말인가? 명공안이란 수선자들(修禪者)에게 많이 회자(膾炙)된 공안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마조가 쓴 '평상심이 도' 운문이 쓴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임제의 '지위 없는 참사람(無位眞人)' 조주의 '차나마시게(喫茶去)' 등이 선가에 널리 회자된 공안이라 한다.

양기의 오도기연(悟道機緣)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양기가 스승 자명에게 자주 불법에 대해 물었다. 스승은 속 시원히 말해주질 않았다. 어느 날 다시 물었다 "도대체 불법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네 맡은 일이나 잘 하여라."

어느 날 스승 자명이 출타를 하였는데 비가 쏟아졌다. 양기는 자명이 돌아오는 길목 나무 밑에 숨어서 자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자명이 나타났다. 별안간 뛰쳐나온 양기가 자명의 멱살을 쥐고 욱박질렀다. "말해 주시오. 불법이 뭔지. 말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소."

이렇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에도 자명은 조용히 부드럽고 침착하게 말했다.

"네가 이럴 줄 알면 됐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양기가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양기는 임제의 종풍을 후세에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 황룡파가 일찍 쇠멸해 버렸으나 양기파가 살아남아 후세까지 선맥을 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선불교의 맥도 임제의 법맥을 이었다. 고려불교의 중흥조로 알려진 태고보우(太古普愚:1301~1382) 선사가 중국에서 석옥청공(石屋淸珙)의 법을 이어 받아 돌아오고부터 실질적인 임제 법맥이 전해진 것으로 본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⑨ 동업중생의 삶이란?

勝施他苦品第十九

菩薩見他苦時æ 是菩薩極苦。見他樂時즉是菩薩大樂。以是故菩薩恒爲利他。凡愚眾生見他苦時自己爲樂。見他苦不以爲苦。賢人者自苦以樂樂他不以己苦。凡愚眾生爲己少樂而大苦他。賢人者爲與他少樂自受大苦。惡行者修少樂因得大樂時雖生歡喜。不及菩薩以少樂利他人時心大歡喜倍過於是。菩薩見他受苦以身代之。身雖受苦不以爲苦。心中快樂生大歡喜。菩薩悲心得自在樂。不爲三有諸苦之所逼惱。菩薩飮悲甘露故不爲諸苦所苦。不爲苦所苦故能爲他受苦。凡愚眾生見他苦時心中生樂。見他樂時心中生苦。菩薩見他苦時則苦樂時則樂。無悲心者見他苦時如月極冷。有悲心者見他受苦如夏盛日。不問愚智見他苦時。皆生厭離生憂惱因。有悲心者深生憐愍作決定心。一切眾生苦爲是我苦。

번역 | 승시타고품 제19.

보살은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즉시 보살도 극히 괴롭고 타인의 즐거움을 보면 즉시 보살도 크게 즐겁나니 이 때문에 보살은 항상 타인을 이롭게 합니다. 범부 어리석은 중생은 타인의 괴로움을 볼 때 자기가 즐겁고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현인은 자신은 괴로워도 타인의 즐거움을 즐거워함으로써 자신은 괴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범부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의 적은 즐거움을 위해 크게 괴롭고, 현인은 타인에게 적은 즐거움이라도 주려고 스스로 큰 괴로움을 받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이는 적은 즐거움을 닦은 인연으로 큰 즐거움을 얻을 때 비록 좋아하지만, 보살이 적은 즐거움이라도 남을 이롭게 할 때에 미치지 못하며 마음에 기쁨은 이보다 배나 더합니다. 보살은 타인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자신이 대신 받으려 하고 자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 심중에 즐겁고 큰 기쁨을 냅니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자재락(自在樂)을 얻되 삼계의 모든 괴로움으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보살은 자비의 감로수를 먹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으며,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기에 타인을 위해 고통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남의 괴로움을 보면 심중에 즐거움을 내고, 타인이 즐거울 때 심중에 괴로움을 내지만, 보살은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괴롭고 즐거울 때 즐겁습니다.

자비심 없는 이는 타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달처럼 차갑지만, 자비심 있는 이는 타인이 괴로움 받는 것을 보면 여름의 해와 같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불문하고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 모두 싫어 떠나며 근심과 번뇌의 원인을 일으키지만, 자비심 있는 이는 깊은 연민을 내며 결정심(決定心)을 지어 일체 중생이 괴로우면 즉시 나도 괴롭습니다.

해설 |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윤회가 없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이에게 윤회가 없다는 말과도 상통하는데, 이 말을 보살은 '윤회 속에 뛰어들어도 윤회한다는 괴로움이 없다'는 말로 달리 해석하고 싶다. 보살은 자신의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에게 괴로움이 있다면, 오로지 중생이 괴로울 때다. 보살이 보리(菩提)를 이룸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뿐이다. 바로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기 위해서다. 나는 청정한데 너는 잘못이라는 이분법적인 대처가 아닌, 타인의 과보에 함께 책임을 지는 동업중생의 삶을 놓지 않는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연기적 존재는 상호 연관성의 존재이며, 상호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령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에서 한 아이가 굶어죽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 지구라는 곳에 함께 사는 지금의 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연기적 존재다. 그러니 보살이 바라보는 세상은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 투성이다.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원(단체)등록 안내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제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법인설립을 허가 받은 단체로서 본회 회원(종단 및 사암)을 모시고져 지면을 통하여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 **설립동기** : 대덕 큰스님께서 활동하셨던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법인설립자와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회장단과 회원들간에 소통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모든 행사를 회원들과 협의하여 행사일정을 잡고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본회를 설립한 스님들도 위와 같은 소망을 추구해 왔던 당사자로서, 회원(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단체등록 및 행정지원

1. 종단 및 사암, 문화예술 단체등록
2.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서식
3. 관청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서식
4. 관청 단체명의 차량등록 서식
5. 종단 및 사암운영 행정 서식
6. 사단, 재단법인설립 서식

▶ 회원(종도)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1. 법인명의 가입증명서
2. 법인명의 소속증명서
3. 법인설립허가증
4. 법인명의 신분증, 승려증
5. 기부금영수증서식,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명세서 서식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홈 페 이 지 : 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한국 또는 http://sansoo5.cafe24.com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205(성당동) 2층 전화 053-621-0408
강원사무실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만우동) 정심사 전화 033-534-3956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公 告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공식 명칭이 변경 되었기 선포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종단은 불법승 삼보를 신행하고 원융무애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증흥의 새 일꾼이 되어 새 시대 총화불교의 실천자로서 종파를 초월하고 애국 애족 하는 호국 불교에 매진하여 불타의 자비 희사 정신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으로서 1982년 3월 26일 문화 공보부로 종교법인 제 1호로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 제 393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2017년 8월 8일 주무관청인 문화 체육관광부 제393호로 법인 설립허가 명칭을 원융종으로 변경 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전 종도 여러분은 현 사.암 등록증과 주지 임명장 등 승려증 및 유승증을 총무원에서 2017년 9월 30일까지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내에 재교부받지 않은 모든 문서는 본 종에서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대한불교 원융종 이사장 겸 총무원장 배진호

※ 본종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총연합진흥회광고에 기재되는 임원 명단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축구공으로 하나 되는 民心과 佛心

부산불교, 시민 축구단 부산FC 후원행사 개최

부산FC vs 부여FC 경기서
축하공연 · 시축 등 진행해
수불 스님 1억 후원금 전달
"스포츠, 미래 위한 꿈 터전"


8월 26일 2017 K-3리그 13라운드 부산FC와 부여FC 경기에 앞서 부산불교계가 부산 시민 축구단 부산FC를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부산FC 발전 후원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건강한 스포츠 문화로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 시민 축구단, 부산FC를 위해 부산 불교계가 든든한 지원군을 자청하고 나섰다.

2017 K-3리그 13라운드 경기가 열린 8월 26일, 부산불교계는 후원행사를 열고 부산FC 지속 후원 및 회원 모집에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날 특히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부산FC 발전 후원금 1억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후원 행사는 부산 불교계와 부산FC가 함께한 발자취 영상 시청과 후원금 전달, 수불 스님 격려사 그리고 내빈들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달식 후에는 내빈들의 시축과 사인볼, 기념 축하공연 등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수불 스님, 심산 스님, 하림 스님(불교축구단 축구사랑 대표), 정관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참여해 부산FC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관중석에는 안국선원 및 원오사 등 부산 불자 1000여명이 동참해 후원금 전달식 후 진행된 부산FC와 부여FC 경기를 관람했다.

수불 스님은 "부산FC 발전에 관심을 부탁한다"며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이 부산 시민과 스포츠계 발전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병수 시장은 "부산FC 발전을 위해 늘 응원하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은 "오늘에서야 부산FC의 역할과 활동을 바르게 알게 됐다"며 "바르셀로나 축구팀과 같이 발전하고 성장하길 바란다. 모두가 함께 후원하고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부산 FC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구단으로 올해 1월 정식 창단했다. 기업 구단이 아닌 시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시민협동조합으로, 그 혜택을 시민에게 돌리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손원우 부산FC 본부장은 "부산 시민과 함께 하는 구단에 불교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불교 내 스포츠 포교 활동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프로축구 K리그 출전 및 조합원 2만 명 모집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축구사랑 대표 하림 스님은 "스포츠는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미래 청소년들의 꿈의 터전"이라며 "많은 이들이 건전한 문화 만들기에 관심을 가져줄 때 행복한 사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 스님은 부산 지역에서 축구 동호회 활동으로 일명 '축구 포교'에 앞장서 왔다. 축구 동호회 활동 중 손원우 부산FC 본부장을 만나 크고 작은 후원을 이어왔다. 하림 스님과 축구사랑 회원 스님들은 지난 3년 동안 지원하고 부산FC 창단도 도왔다. 올해 1월 창단한 부산FC는 지난 제1회 범어사배 친선 축구대회 당시 행사를 후원하고 현재 각 사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단을 지도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부산FC는 지난달 27일 부산시축구협회와 협의해 서병수 부산시장을 첫 주자로 '부산시 축구시민 1만 명 모으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동참을 원하는 시민은 부산FC 홈페이지(www.busanfc.org/contact-us)를 통해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하성미 기자

자살 · 교통사고 없는 부산을 위해…

화엄승가회, 8월 27일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캠페인
부산불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200여 명 참여 '눈길'



화엄승가회와 부산불교대학은 8월 27일 부산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밝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스님들과 불자들이 나섰다. 현대인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자신 뿐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길 알리는 자리였다.

화엄승가회(회장 자인)는 8월 27일 부산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대학에서 공부한 스님들이 나눔 실천에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다. 스님들의 캠페인 의지에 동참하며 이날은 부산불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부산불교대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은 자살 1위 교통사고 1위라는 안타까운 통계를 가지고 있다"며 "죽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악업의 시작이다. 남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엄성이 부산 일대에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변화를 얻길 바라고 밝은 사회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개회식 후 참가자들은 부산 번화가인 서면 상가 거리를 돌며 '자살 예견 신호와 대처법'과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교통문화질서'를 담은 안내서 3,000장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자살 예견 신호와 대처법 안내에는 "우울증 및 정신질환 그리고 경제문제가 자살 원인이 되며 자살 전 언어 신호와 행동 변화로 문제를 파악하고 특히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서를 받은 서면 거리의 시민들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캠페인이 반갑다고 전했다.

박윤걸(55) 씨는 "저도 불자인데 절이 아닌 거리에서 스님들을 뵙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뵈니 기쁘다"며 "자살과 교통사고 예방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대학은 1982년 개교해 36년 동안 1만1,000여 졸업생과 1천200여 포교사 그리고 150여 스님을 배출했다.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대학 출신의 스님들이 2015년 창립해 자비의 연탄나눔, 장애인 행복 쌀 나눔, 무료급식 지원, 모교 발전 기금 후원, 부산지역 5개 대학 불교동아리 활동기금 전달 등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화엄승가회는 자살방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올해 1월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어린이 마음 속 감사향기를 심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제1회 어린이 재가안거 회향


조계종부산연합회는 8월 25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어린이 재가 안거 '내 안의 감사향기'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8월 25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어린이 재가 안거 '내 안의 감사향기'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내 안의 감사향기'는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처님 앞에서 감사할 내용을 찾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린이 눈높이 안거 수행 프로그램'이다. 이번 안거는 여름방학을 맞아 21일간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감사향기 프로그램 책자에 낙관과 함께 선물을 받고, 소감을 나누며 회향식을 마무리 했다.

회장 심산 스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 뿐"이라며 "겨울 하안거 수행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최하고 동련이 주관한 이번 어린이 재가 안거는 수행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어린이 안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눈길을 모았다. '내 안의 감사향기' 어린이 재가 안거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사찰 외 봉은사 유아 법회, 진해 대광사, 양청 방과후 아카데미, 서울 원광사, 의왕 청계사, 울산 정토사 등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하성미 기자

엄마 없이 보내는 1박 2일 템플스테이

성주사, 8월 26~27일 '아빠와 함께…' 실시


성주사는 8월 26~27일 성주사 일대에서 템플스테이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엄마 없이 살아보기'를 진행했다.

성주사(주지 원종)는 8월 26~27일 성주사 일대에서 템플스테이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엄마 없이 살아보기'를 진행했다. '아빠와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업무로 바쁜 아빠와 소통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추억을 쌓는 특별한 시간으로 기획됐다. 이 자리에는 주지 원종 스님과 참가자 가족 100여 명이 동참했다.

김덕민(46) 씨는 "이번 템플스테이 참가가 3번째다. 아이뿐 아니라 나 스스로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라며 "핸드폰도 반납하고 일상과 단절해 아이에게만 집중해서 마음을 나누니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주지 원종 스님은 "많은 학교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인각사, 일연선사 제728주기 다례재

8월 29일 경내 일원서… 300여 사부대중 참석


군위 인각사는 8월 29일 경내 국사전 앞마당에서 보각국사 일연선사 제728주기 다례재를 개최했다.

군위 인각사(주지 원학)는 8월 29일 경내 국사전 앞마당에서 보각국사 일연선사 제728주기 다례재를 개최했다.

주지 원학 스님은 "천년고찰 인각사는 보각국사 일연 스님께서 주석하시면서 위대한 민족문화의 정수를 모아 〈삼국유사〉를 엮은 곳"이라면서 "〈단군 건국기〉에 실린 최초의 기록으로 인각사가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곳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곳에서 일연선사의 다례재를 봉행함에 큰 기쁨을 느끼며, 민족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숭고한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8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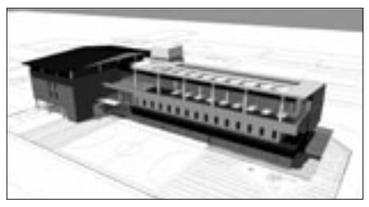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숲세대 포교 위한 불교회관 건립

고창 선운사, 2019년까지 지상 3층 규모로


2019년 완공 예정인 선운사 불교회관 조감도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어린이 · 청소년과 다문화가족 포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불교회관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선운사는 8월 18일 교구종회에서 고창 월곡지구 농어촌 뉴타운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불교회관 건립계획을 의결했다.

고창 불교회관은 지난 2013년 매입한 3,930㎡(1,188평) 대지 위에 연건평 3,596㎡(1,087평),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시설로는 법당을 비롯해 체육시설, 다목적실, 지도자실, 청소년 동아리방, 상담실, 어린이 도서관, 강의실, 북카페, 다문화 가족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운사는 약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1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선운사는 이미 선운사복지재단을 통해 고창종합노인복지관과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고창종합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어 불교회관이 건립되면 유아에서 노인, 다문화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종합 포교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그동안 선운사는 교구 내 도심 포교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며 "불교회관이 완공되면 고창 지역 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포함한 포교시스템이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 인근 폐기물 매립장 웬 말"

삼기 · 금마면 주민 반발… 불교계도 진상 파악 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륵사지 인근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성명을 내고 익산시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총 면적 2만7,698㎡의 부지에 약 30만㎥의 양을 매립하기 위해 익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폐기물 매립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대책위는 "매립장이 들어서게 되면 폐기물 침출수로 인해 삼기 · 금마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농토와 수질오염은 물론 미륵사지 복원에도 타격을 입힌다"며 "낭산 폐석산 침출수 유출과 집단 암 발병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기 · 금마면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 저지를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함께 환경부, 국민권인위원회, 문화재청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유네스코 본부에 서명용지를 보내 세계 여론에 호소할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익산사암연합회장 일행 스님은 "아직 정확한 진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행자들을 위한 사찰 경영 강좌

탑사 진성 스님, 선암사서 특강



태고종 행자들을 위한 사찰 경영 특강이 열렸다. 태고종 재경부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주지)은 태고종 행자 제42기가 수학 중인 순천 선암사를 찾아 "복지를 실현해야 사찰도 경영할 수 있다"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사진〉

진성 스님은 이날 강의서 "향후 사찰 운영을 할 때에는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신도관리는 일반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뤄지며, 사찰의 중요사업 중 복지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교류를 늘려 나가야 나중에 신도가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템플스테이 함께여서 외롭지 않아요"

전남지역, 소외계층 위한 템플스테이 '훈훈'

다문화가족 · 장애인 등에
심신 치유프로그램 제공
외부 기관과 협력 통해
템플스테이 기획도 나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증심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한 외국인이 부채에 그림을 그리며 집중하는 모습.

고즈넉한 산사의 템플스테이가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치유의 시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연광)는 광주지역 다문화가족과 유학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8월 25~26일 1박2일 동안 진행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는 파키스탄 출신 5명을 포함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등 다문화가족 3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참가자였지만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하고 즐기는 모습은 지구촌이라는 지붕 아래 한 가족과 다름없었다. 참석한 가족들은 △증심사 안내 및 사찰예절 △예불 △스님과의 차담 △자비명상 △놀이체험 △보물찾기 △단청체험 등에 참여해 가족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파키스탄에서 유학을 온 라임(27) 씨는 "절에 와서야 처음으로 한국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비록 종교적 뿌리는 다르지만 앞으로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증심사는 다문화가족 및 유학생 템플스테이 외에도 아토피피부염에 힘들어하는 아동을 위한 건강 템플스테이도 준비하고 있다. 증심사는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남태한)와 함께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증심사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고 환경성 질환 환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기획 · 개발해 왔으며,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템플스테이 연계형 건강나누리 캠프를 9월 9~10일 1박2일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 연계형 건강나누리 캠프는 산림치유와 명상, 예불 및 참선, 스님과의 차담을 비롯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자연 속에서 내면 치유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용 증심사 템플스테이팀장은 "환경성 질환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풀어가야 할 큰 숙제가 됐다. 쉽지는 않겠지만 전통산사와 어울린 깨끗한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증심사는 이외에도 소외받는 여성, 직장인을 위한 템플라이프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도 8월 28일 광주지역 시각장애인 20여 명이 참여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은 광주 기아자동차 한빛차량봉사회와 함께 1대1로 짝을 이뤄 대흥사 경내 곳곳을 둘러보면서 청정한 도량의 기운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도 찾았다.

김형수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은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설렘이다. 우리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버스 타는 것, 박물관 가는 것 그 자체가 설레는 일이고, 사찰은 다른 곳보다 찾아가기 어려워 더 뜻깊다"고 말했다.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은 "지금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비장애인보다는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겠지만 서로 의지하고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정말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종교화합 씨앗, 전북서 싹 틔운다

9월 13~16일,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



전북지역 불교 · 원불교 · 개신교 · 천주교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다양한 종교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종교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를 9월 13~16일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김제, 익산, 완주 일대에서 개최한다.

'마음을 듣다(Listen to Your Heart)'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계종교문화축제는 이웃종교의 생활과 문화예술의 체험 및 이해를 통해 종교간 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9월 13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이번 축제는 불교, 원불교, 개신교, 원불교의 성직자들로 구성된 하늘소리 중창, 스님과 목사의 색소폰 협주, 여러 종교지도자들의 환담, 정태춘 · 박은옥의 특별 축하공연이 열린다.

14~16일 한옥마을 경기전을 비롯해 한국전통문화전당, 김포 중앙승가대학 등에서 열리는 종교열린마당은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의 특강과 예수병원 설립자 잉골드의 생애,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의 일대기 공연, 프랑스 선교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가 상영된다.

이에 앞서 11일부터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라는 부제로 전주시청 로비에서 아름다운 사연들이 담긴 여러 종교 기록과 성물 등이 전시되며, 공예인 예술가들의 성물을 비롯해 전주한지로 된 기록유물의 복본기술도 소개될 예정이다.

축제기간 중에는 전라북도 일대의 종교유산을 돌아보는 종교건축, 종교탐방도 함께 추진되며, 종교영화, 종교음악 등을 만끽하는 무대도 함께 열린다. 또 경기전 광장에서는 종교인들의 릴레이 버스킹이 연일 진행된다. 모인 기금은 전주한지로 제작된 공책을 유네스코를 통해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16일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펼쳐지는 세계종교포럼에는 UN NGO 및 종교 NGO 대표를 역임한 리베라토 바티스타의 강연과 종교지도자들의 대담이 진행된다.

사단법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는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를 계기로 종교영화, 종교음식, 종교기록 등의 종교문화유산이 오늘날 다양한 분야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향후 경제선순환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흥사, 해남교도소에 더위 날릴 생수 보시

8월 27일 총 1만병 전달

사회와 격리돼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수감자들에게 무더위를 해소해줄 생수가 전달됐다. 해남 대흥사는 8월 27일 전남 해남교도소를 찾아 생수 1만병을 전달하고, 더위에 지친 재소자들을 위로했다.〈사진〉

주지 월우 스님은 전달식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불교에서는 감로라고 한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힘이 든 사람, 교도소에 잠시 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물 한 잔이 감로가 되어 앞으로 부처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7 부산광역시 민간 경상 보조금 지원 사업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제9회 희망 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걷기대회



2017. 9. 9(토) 14:00 ~ 17:00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 참여대상 : 환우와 가족, 부산시민(개인, 단체, 자원봉사단, 기업봉사단), 기증&후원회원 등
• 참 가 비 : 무료
• 사전접수 : 8월 23일(수) ~ 9월 6일(수)
전화, 팩스, 이메일 중 하나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 현장접수 : 오전 10시
• 체험부스 : 오전 11시 30분
• 문 의 : Tel. 051)853-0429 홈페이지 www.bslisa.or.kr
Fax. 051)853-0439 이 메 일 bssangmung@hanmail.net

기념품 증정 및 추첨을 통한 경품증정이 있습니다.

• 주최 |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BBS 부산불교방송 BTN
• 협찬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장수 삼진어묵 주방기구 제조회사 엘지에스 대동대학교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실업인회 KJ 김&정해운대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하나병원 장전치과 큰솔병원 좋은강안병원 대동병원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1대 (자체 USB탑제)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중고 앰프 다량 보유!"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삼천대천세계의 사나운 불 속이라도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그 속을 어려움 없이 바로 지나갈 수 있다.

– 무량수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 스님 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대불 탱화,개금,석불,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제작
이조불교재활용 센타대표
010-9177-784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 (학인모집)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81-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금강경, 반야심경 써드립니다
(금니99% 별도상담)
비구승으로 수행의 일환으로 씁니다.
포항시 남구 인덕동 262
일파 禪書畵연구원
010-3749-4553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대관령 철도개통 생활관
생활관 지분 200 여행힐링 (20분납) / 칠성불 모시는데 50 / 전자납골 1000 / 2020년 마감
서울포교당
02)2062-4488
(농)351-0962-1334-43 조계종간호복지 조계종 간호복지 교육원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 등 속히 매매 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편백 (히노끼) 시공
사찰환경 (주지실, 요사채 및 각 방사)과 힐링공간
수행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바닥,벽, 천정까지도 정성을 다해 시공합니다.
*목조건물, 신축, 증축, 개축 상담
(도량내 편의시설도 실비로 보시)
010-5737-0317
무루건업 원일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비구니 청비스님을 찾습니다
010-8833- 4416
으로 전화 바랍니다

천년고찰에서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하실 수 있는 분)
054-383-8032
054-383-232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010-3524-8930

충청도 산속 작은 암자
인생은 허망하고도 무상한 것입니다. 탐진치를 버리고 절에서 조용히 여생을 기도하며 부처님을 시봉할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스님, 보살님)
010-7423-3333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위패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
아침 죽 공양 : 오전 8시
점심 공양 : 정오 12시
저녁 간식(떡,감자) : 오후 5시 30분
010-4206-36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10-3034-211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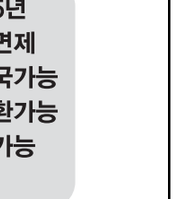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 생활역학 강의 (자격증서 제도)
▷ 자강 : 이석영
▷ 단원 : 이병렬 선생님의 정통학문, 1년과정 초급, 중급,상급 (격국론)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 (저서 특허) 강의
육십갑자의 생극제화 원리 응용법
■ 단원육효 강의
■ 작명법 : 실증성명학전서 (저서) 강의
본명사주의 자원오행법 원형이정법의 수리법, 음령법, 조후법, 통관법, 사상체질법 등의 체계적인 이론 연구의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문의 : 010-4470-6314

불교심리운명상담사 학 생 모 집
– 언 제 : 9월 16일(토) 10시 ~ 12시(입학식), 매주 토요일 6개월간
– 어디서 : 정토불교대학 대법당
– 누 가 : 정토불교대학장 상오 스님
– 무엇을 : 불교심리학, 명리학(운명상담학)
– 어떻게 : 현대감각으로 쉽고 알차게
– 왜 : 나의 심리치료와 상대의 심리(운명) 치료를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함
– 자 격 : 누구나 (학력 / 나이 제한없음)
– 혜 택 : 졸업장 수여, 심리상담사 자격증 수여
– 수강료 : 매월 10만원 (정원 30명)
정토불교대학 02)2668-3459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2번 출구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Play 스토어 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ON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 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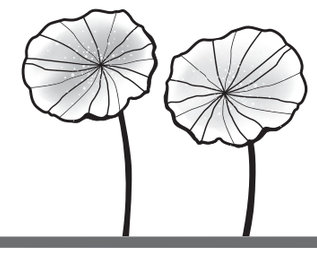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은혜를 베풀라, 부드럽게 말을 건네라, 이롭게 행동하라, 행동을 함께 하라, 그러면 대중들은 그대의 편이 되리라.

- 중아함경-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약41평) 건물 2층 1층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실3개 등 • 가액 : 8억5천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경북 영양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단청법당. 요사채. 산신각 등.
- 토지 800㎡ • 조용하고 위치 좋음. 교통 편리함.
- 양도 : 1억7천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군산 사찰을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97.5㎡(120평) • 건물 총면적 : 287㎡(87평)
- 가액 : 5억 5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 : 55평 ◎ 면적 : 2200평
◎ 인법당 : 40평 ◎ 인법당 : 40평,차량진입
◎ 산밑 청정함 ◎ 경관 수려
◎ 양도가 : 6억 ◎ 양도가 : 6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방 7칸) 스님친견실 3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3천만원

010-2498-7899

사 찰 안 내
- 위치 : 예산 수덕사 IC에서 10분 거리
- 천혜의 요지 예당 저수지위에 위치한 150년된 조그만 암자
- 평수 : 약 2만평
- 산수 물 좋은곳, 예당 저수지가 훤희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중심가
- 대지136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식당겸 요사74평,
- 그린상가 2층
- 가액 : 평당 1,500만원
- 주차장 완비

010-3752-2601

논산 사찰(급) 안내
- 조용한 마을 사찰
- 토지 400㎡,목조법당.요사채.공양간.산신각
- 마을뒷편사찰. 깨끗하고 운영이잘 됨
- 스님사정으로 양도
- 양도가액 : 1억3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서울시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 위치
- 3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5000만원, 월150만 시설비 2000만원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산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1억 6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면에서 5분 거리
-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토지 300평 공유지분 7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도심 속 깊은 암자
- 가액 : 10억

010-3867-474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사찰 및 전원주택
- 위치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서당골길 31
- 철골조 슬라브집 2층 및 부속 건물 1동
- 대지 839㎡(약 160평) 1층 50평, 2층 50평, 건평 100평
- 용도 : 사찰,전원주택,가든 등
- 가액 : 3억 9,000만원

010-5378-4113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수도권의 위치
- 목조 단청, 전통사찰로써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 가액 : 9억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 29평반(단청완료) 화장실3평, 기와집, 산신각 5평, 요사채 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공양실 20평, 기타 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1동)
- 가액 : 6억 1천만원

010-8528-4026
(주지스님 직통)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소재
- 부지 : 300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단청), 기타:석등
- 요사채:2동50평,산신각:5평
- 가액 : 4억2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조용한사찰로 포교와 기도정진할사찰로 좋습니다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청기와,단청, 2층)
- 요사채 : 35평(종무소,1층)
- 가액: 3억 3천만원
- 특징 :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하기에좋습니다

동 진 불 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2억 8천만원

010-5923-338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하마정 교차로 큰 대로변 위치
- 상가건물 2층 약 35평
- 방 5개, 주방, 화장실, 큰 거실 등 시설특A급 완비. 사무실, 포교원 다 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권리금 조금

010-9208-4030
051-862-66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32평, 창고 및 화장실 건평 총80평
- 법당 산신각은 특수 슈퍼하이칠, 경량철골판넬
- 텃밭별도 년 20만원 500평
- 가액 : 1억7천

010-4726-649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성산구 중앙동
- 상가 4층 약 5 ~ 60평
- 삼존불 :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법당, 공양간, 종무소, 스님 황토방
- 약 15년 법회(현재 법회중)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 산사로 이전)

010-3305-531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 기와 7평(단청,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 30평, 방 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팔공산하
- 춘하추동 경관이 아름답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는 곳
- 총 450평, 하우스 100평안에 CCTV 2대, 법당 20평, 방2개, 화장실 2개, 공양간 약 50평, 텃밭 150평, 과실수, 주차장
- 가액 : 2억 3천

010-4504-780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 KT 옆
- 제반시설 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 2층 건물 2층, 옥상 60평, 사용 가능
- 교통요지, 터미널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3,040만원

010-3452-1123
042)526-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 5천

010-8551-337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마산 남성동 어시장 번화가
- 3층 63평, 법당,대중방,스님방
- 가액:보증금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3039-8854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황금동 10분거리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 1, 방2, 세면장, 실내 화장실
- 벽돌조 32평 독채, 건물 개인 등기필
- 남향 교통좋음(2차선 큰길 변)
- 대지 : 공동사용 도지료 1년 35만원
- 가액 : 4천 8백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부지 : 145평
- 법당 : 요사채,방3개,주방
- 경치 최고 시내 도보 2분
- 가액 : 1억 5천

010-2849-8889

사찰 양도 및 전세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 임.
- 대중교통 편리함 (도보로 5분 정도 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9730-2251
(부재중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사찰터(절암자)안내상담전문
- 양도 양수 관계 경력이 많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정보 많음
- 일 처리가 원만합니다
- 성심 성의로 상담 합니다

(불자입소) 공신공인중개사
010-3570-0025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770-2
(사업자등록) 607-46-189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울산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 30평
- 삼존불 : 아미타불, 관세음, 관음, 지장보살, 소불 60불, 후불탱화, 미타, 관음, 신중, 칠성, 산신
- 보증금 1천만원, 월세4십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도량

010-3558-9016

단독 복층주택 법당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대지 192평, 건물 약 45평
- 1층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2, 창고
- 복층 방2, 다용도실 가건물 공양간, 다용도실(신축)
- 가액: 2억 3천 5백만원 (대출 6천 포함)

010-2544-4848

사찰 안내 및 전세
- 위치 : 인천시 서구 가정동 494-26
- 대지 : 133.3㎡
- 3층건물 2종근생 올 리모델링
- 가액 : 양도 6억, 전세 2억 (대출 2억 있음, 승계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5002-73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전체 10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만원

02)2062-44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8천안고 2억 2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원사
- 주 소 : 대전 서구 도마1동 84-6번지 3층
- 법 명 : 혜암 (송관빈) 도 석 (심영석)

위 사찰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귀하

남향 황토주택
- 위치 : 대지190평,건물20평 목조주택
- 남향 소나무숲아래 황토주택
- 전원주택,별장,기도원,암자
- 찜질방,정자,터밭,방4개
- 2016년.12월 건물 리모델링
- 가액 : 1억5천7백만원

010-3848-2452
010-3831-7979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아담한 사찰
- 대지 50평에 100평처럼 사용
- 법당 30평(단청) 2층 방1칸
- 칠성단, 용왕단, 독성각
- 사무실, 주지방, 부엌, 화장실3개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인등500개
- 가액 : 2억7천만원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산세 좋고 물 좋은 힐링사찰 기도하기 좋은 사찰
- 주변 사용 가능한 국유지 많음
- 대웅전, 산신각, 기와단청, 요사채2동
- 면적 34,000㎡, 건물 약 170㎡
- 가액 : 6억

010-5346-4138
051-861-2233
금호부동산 연사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사 찰 안 내
- 위치 : 큰강이 보이고 비룡산 중턱 차량 가능
- 전통사찰 법당 20평, A동 30평 B동 10평, 삼성각, 범종 5백관 땅 5백평 신도땅, 도지세 1년 10만원
- 위 모든 건물 법당시설비만 3천 9백만원 전체 드림
- 은사 절 급한 사정 때문

010-7637-125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전철역에서 5분
- 요사채 40평
- 몽땅 1억 6천(조정가능)

010-8861-1785

사찰안내 및 임대
- 위치 : 지리산 동쪽 끝자락
- 평수: 275평, 한옥건물 2동 30평
- 조용한 호숫가 스님 공부하기 좋은 암자
- 가액: 매매 2억 9천만원
- 임대 : 전세 7천만원

010-3869-67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여주
- 부지: 대지 300평 (500평 사용가능)
- 법당 40평, 요사 60평 외 1동(90평)
- 산속, 차량진입, 경관수려
- 가액 : 2억 8천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방 7칸) 스님친견실 3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3천만원

010-2498-7899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8백 평
- 가액: 1억8백만

010-2016-6281

국왕이 국민 설득해 민주주의 전환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연재

⑥ 부탄의 왕실

부탄의 파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해 공항 내부에 들어서면 곳곳에서 부탄 국왕 사진을 볼 수 있다. 식당도, 호텔도, 가정집에도, 마치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걸어놓듯 온갖 곳에 국왕과 왕실 사진이 걸려 있다. 혹시 북한처럼 강제적인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부탄인들 스스로 국왕의 사진을 구해 걸고, 국왕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닌다. 한때 리더가 없었던 대한민국의 과거를 빗댄다면 익숙지 않은 장면이겠지만 이곳은 진정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왕실이 있다.

이원정부로 문을 연 부탄

CNN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21세기에도 전 세계 43개국에는 여전히 왕과 왕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왕'이라는 직위에 걸맞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전제군주제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33개국은 이웃나라인 일본처럼 실질적 국가 통치는 총리가 맡고, 국왕은 상징적 의미만 갖는 입헌군주제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0개 주로 나뉘었던 부탄
히말라야 정세 악화 따라
1대 국왕 선출에 뜻 모아

왕실 재산 국민에 나누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부탄은 인류역사상 국왕이 스스로 국민을 설득해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다. 국왕은 "왕이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국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왕실이 국민통합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 가치를 중시해 자자손손 이어지는 왕실은 빠르게 교체되는 정치인과 대비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정치인들이 이전투구에 몰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왕실의 절제되고 품격 있는 모습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원인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구순 생일, 샬롯 공주의 첫돌에 국민들이 울고 웃으며 영국 전체가 축제분위기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왕실의 존재는 국가 혼란을 막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태국에서는 군부의 힘이 막강해 민주정부를 쿠데타로 뒤집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만, 성공 여부는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 받는 푸미폰 아둔야뎃(1946~현재) 국왕의 승인에 달렸다. 실제 국왕이 승인하지 않은 1981년, 1985년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태국 국왕의 중재가 없었다면 민주정부와 군부의 갈등이 핏빛 내전으로 확산됐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벨기에 왕실도 네덜란드, 독일어권 지역으로 나뉘어 지역감정이 심한 벨기에에서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연재에서 16세기 부탄을 건국한 샵둥 스님의 건국이념이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소개했다. 부탄의 모든 리더들은 이 뜻에 따라 통치했다. 그런데 부탄 탁상사원에서 파드마삼바바가 수행한 것이 7세기, 또한 송첸감포왕이 부탄에 키추사원을 창건한 것도 7세기. 약 1400년 전 일이고, 샵둥 스님이 부탄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이 16세기 일인데 현재 국왕은 5대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부탄의 독특한 정치시스템을 들여다보자.

샵둥 스님이 불교 이념에 따라 나라를 건국하기 전, 부탄은 여러 작은 지역이 모인 봉건국가였고 하나의 중심된 정부가 없었다. 샵둥 스님은 건국하면서 이원정부 조직을 구상했는데 티베트의 경우 달라이라마가 정치와 종교 수장이 되는 반면, 부탄은 이를 둘로 나눴다. 즉 둑 데씨(Druk Desi)라고 불리는 총리에게 정치를 맡기고, 제 켄포(Je Khenpo)라고 불리는 국사 스님에게 종교 수장을 맡겼다. 이처럼 부탄은 이원정부로 운영이 이뤄졌고 둑 데씨는 1대 텐진둑계(1591~1655)부터 54대 촐레예셰응둡(1851~1917)까지 있었으며, 제 켄포는 현재 70대까지 이어졌다.

20세기 초, 왕실의 탄생

당시 둑 데씨가 정치를 맡아 다스리던 부탄은 20개 주의 주지사가 각 지역을 다스리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티베트가 중국에 의해 공산화 되고 무스탕왕국이 네팔에 의해, 라다크왕국·시킴왕국이 인도에 의해 합병되는 등 히말라야 지역 정세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에 20세기 초, 20명의 주지사들이 모여 한 명의 국왕을 선출하기에 이른다. 당시 총사(Trongsa)지역 주지사였던 우겐 왕축이 만장일치로 추대됨에 따라 통일부탄의 제1대 국왕으로서 착좌식을 갖게 된다.

특히 4대왕 직메 싱계 왕축은 부탄의 대명사로 알려진 '국가총행복지수'를 제창한 국왕으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 2008년, 헌법을 고쳐 부탄을 민주주의 입헌군주제 국가로 전환한 국왕은 아예 국왕 자리도 젊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거대한 왕궁은 정부에 돌려줬다. 이어 2008년 첫 국민투표 총선을 바라보며 민주주의 부탄의 길을 두 눈으로 지켜봤다.

현재 국왕 직메 케사르 남곌 왕축 역시 아버지 가르침을 따라 어린 시절 결혼을 약속한 평민출신의 제쭌빼마와 결혼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돼 주로 사회사업 등에 몰두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왕실소유 재산과 토지를 국민들에게 나눠줘 국민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도왔고, 인근 입헌군주제 국가들과 왕실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왕실외교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국왕은 4대 선왕이 그랬듯 부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다. 올 초에는 해발 7000m 고산지대를 장비 없이 3주간 다니며 고산마을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 팀푸체추(축제) 기간에는 국사스님과 함께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의식을 치르며 국민들과 시간을 보낸다.

부탄 국왕은 항상 부처님의 제자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재가자임에도 가사를 수한다. 부탄 모든 국민들이 사원에 방문할 때 남자는 '걉네', 여자는 '라츄'라고 불리는 가사를 수하는데 일반 국민은 백색, 오로지 국왕과 국사스님만 노란색 가사를 수한다.

한편 2016년 부탄 왕실에는 큰 경사가 생겼다. 바로 미래 6대 왕이 될 왕세자가 태어난 것.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왕실 근거지인 총사의 종에서 상징적인 주지사로서의 착좌식도 열렸다. 왕세자의 미소는 국민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위로는 불법승 삼보를 모시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위해 군주제의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한 부탄. 한 국가의 리더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부탄 왕실은 정신적 지주가 없는 오늘날 한국에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만 같다.



역대 부탄 국왕의 얼굴을 한 곳에 정리한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대 우겐 왕축, 2대 직메 왕축, 3대 직메 도지 왕축, 4대 직메 싱계 왕축, 5대 직메 케사르 남곌 왕축.

5대 국왕 직메 케사르 남곌 왕축과 제준빼마 왕비의 결혼식 모습.

2016년 태어난 왕세자.


윌리엄리 부탄문화원장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승하강장치 특허기술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제등행렬 용품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전 선 시 공

과정 알아차리면 모든 행위 아름답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⑱



청소년들의 性문제 고민

인간의 성적행위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적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시각적 자극은 가장 영향이 크다. 지나간 여름은 유별나서 사람들은 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그 자연의 몸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위를 씻겨줄 뿐만 아니라 오감을 넘어 성적 감각까지도 자극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 자극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상담을 받으러온 대학생 내담자는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저는 때때로 두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떠올리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 주위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마치 저의 이상한 생각이나 행위를 알고 흉을 보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하기 싫고,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담자는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만화방에서 성인만화를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보았으나 차츰 그 만화의 성행위장면을 보고 충동을 느껴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내담자는 그러한 성행위에 대한 생각이나 체험을 자기만이 하고 있으며, 자기 또래의 다른 학생들은 모두 깨끗하고 밝게 사는데 자기만이 불결하여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은 자위행위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번민으로 보내야 했으며, 지금도 자위행위와 관련된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성(性)문제다. '신나는 전화'에 걸려온 상담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이 성문제라고 했다. 아마도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성문제만큼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성욕은 아동기의 자기중심적인 행위로부터 청소년기로 바뀌면서 차츰 이성에게 집중함으로써 이성과의 연인관계를 통해 성적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중한 발달과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성숙된 모습으로 성에 대한 경험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 행위과정이나 행위 후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내담자가 말한 자위행위와 같은 성적충동으로 인한 행위는 삶의 전시기를 통해 일어난다. 성적인 충동 외에도 울적할 때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지나치게 긴장이 쌓였을 때도 이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위행위는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삶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수치스럽거나 불결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자위행위가 약간은 의식적인 죄의식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자위행위가 의식적으로 추구된다면 개인의 심리적인 발달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적 욕구가 자위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이성과의 만남에서 일어날 성적욕구가 자신을 통해 일어난 성적행위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적 행위가 심리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이성에 대한 상호존중이라는 의식을 갖기도 전에 개방된 성적 환경 속에서 성적 행위에 몰입하는데 있다.

> 청소년기 성적 욕구 인해
> 다수 청소년 번민 휩싸여
> 자위 바람직하지 않아도
> 과정 알아차리면 벗어난다

일시적인 만족감

충주 달래강 전설에서 보듯이 성에 대한 충동은 근친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두 남매가 길을 가다가 강가에 이르자 갑자기 쏟아진 소낙비에 불어난 강물을 건너기 위해 남동생이 누나를 업고 강물을 건너게 되는데, 누나의 탐스런 몸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오누이라는 근친간의 윤리의식이 가로막아 성적충동을 자제하지만 그 성욕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성기를 돌로 쳐 자결하게 된다. 비록 전설이긴 하나 청소년 시기의 성적 충동이 이처럼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만일 이러한 순간에 적절할지는 몰라도 자위행위라는 대안행동을 하였더라면 최소한 자결에 이르지는 않았으리라.

물론 자위행위가 성적욕구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성인들도 자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자위행위의 금지는 그 행위를 포기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동시에 자위를 금지시킨 사람에 대한 반항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위행위는 남성성을 향한 길을 열어 주고, 자위행위에 대한 금지와 더불어 갈등이 시작되지만, 그때부터 성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정상적인 성 목적은 성교라는 행위를 통해 생식기가 결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행위는 성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성본능을 일시적으로 해소시킨다. 이것은 마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과 유사한 만족감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이러한 자위행위와 같은 성적행위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프로이드가 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는 그 근원을 이렇게 말한다. 남아가 태어나서 3-5세가 되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자신이 아닌 아버지에게 성적 행위의 특혜를 제공하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不貞)한 행위로 간주한다. 만일 그러한 충동이 재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면 환상에 빠지는 것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으며, 그 환상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서로 다른 별개의 환경 속에서 성행위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신적 긴장이 소년을 자위행위로 이끌며, 그런 행위 속에서 소년은 위안을 찾는다. 욕망과 복수에 대한 갈망이라는 두 가지 충동이 계속적으로 결합되어 작용하게 되면 그의 어머니의 부정에 대한 환상이 뚜렷하게 자리 잡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상대역은 거의 항상 소년의 자아의 모습이거나, 더 정확하게는 그가 아버지처럼 성장하고 자랐을 때의 자신의 이상화된 인격이라고 보는 것이다.

알아차림으로 멀어져

이러한 자위행위와 같은 성적 욕구도 통찰명상, 알아차림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성적욕구를 실제로 행하면서 그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매 순간 몸과 마음의 현상을 알아차리듯이 성적욕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허탈한 마음까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과정은 지극히 깨어 있고 순수한 알아차림이므로 처음 행동부터 마지막 행동, 결과까지 충분히 바라보아 깨달음을 얻는데 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이 있다. 행위과정이 자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대상이 성욕을 발산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관한 행위를 하면서 전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가령 성욕이 일어날 때 간절한 마음이라든가,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할 때, 마음 상태, 주의, 몸의 느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마음의 위축이나 열림을 알아차린다.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경험, 몸의 느낌, 그 결과들을 행위자 자신의 안내자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탁월한 기회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나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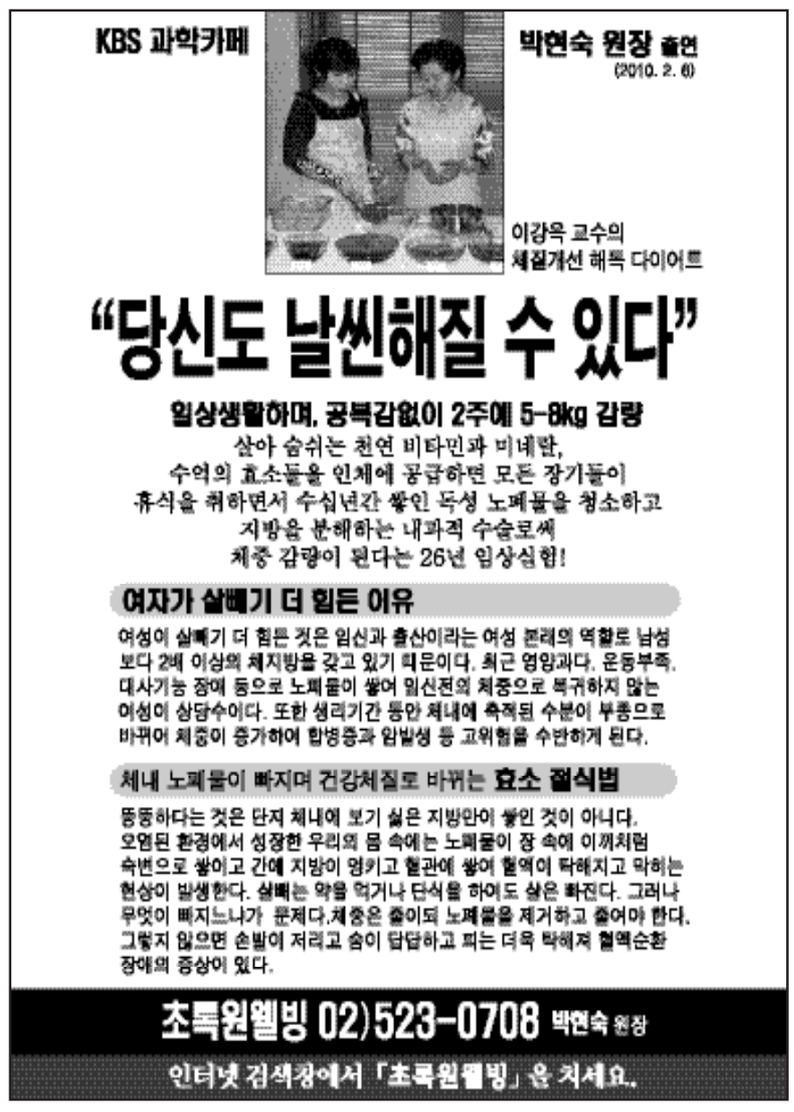
달래강 전설에 나오는 소년의 경우 강물을 건너는 동안 등에 업혀 있는 누나의 체온, 부드러운 피부, 내려놓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물에 젖은 옷이 달라붙은 몸매 등에서 강한 성욕이 일어났다면 옷을 갈아입고 뒤따라간다고 말한 뒤 자위행위를 하면 된다. 다만 그 과정을 단순한 성적 쾌감만을 느끼는 데서 끝나면 다음에도 계속 그러한 행위를 생각하거나 그 욕구를 또 경험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욕구가 일어나는 마음부터 행위과정, 느낌의 변화, 끝난 뒤의 허탈한 마음상태 등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위행위를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여기면서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어서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마주 대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그 음식을 간절히 먹고 싶어 하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다. 오래전부터 그 음식을 그려보고 먹고 싶어 했던 욕망을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입에 넣고 씹으면서 행복한 기분에 들뜨는 마음을 바라본다. 점차 음식이 뱃속을 채우고 포만감을 느끼면서 이제는 그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모처럼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마음껏 먹어 보자'고 마음이 속삭인다. 그때 그러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순간을 선택한다.

이 순간이 최고로 만족스럽지만 욕구는 더 큰 만족을 원한다. 욕구에 따라 더 먹게 되면 그 때부터 만족이 서서히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숟가락을 놓지만 지금까지의 만족감은 사라지고 고통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 결과 다시는 그 음식을 향한 불타는 욕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성욕이나 식욕이라는 강렬한 욕망은 우리의 몸, 마음, 정신이 열리도록 이끄는 안내자가 된다. 영적 열림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 욕망들이 우리의 진정한 내가 아님을 발견한다. 우리를 욕망으로 이끈 모든 쾌락 뒤에는 온갖 고통과 불안이 있으며, 그것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자유, 기쁨, 그리고 온 생명 앞의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어떠한 행위도 그 과정을 알아차리면 아름답다.









대행 스님

이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 도리를 이 밝음에서 보라!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사후

질문 스님들께서는 이 마음의 공부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에 생명을 걸고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마음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사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꼭 공부는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 그래도 진실하게 내 안으로, 낱낱이 안으로 굴려서 안으로 돌리는 거, 이 생활하는 모든 거, 죽고 사는 거, 생사윤회를, 모든 거를 내 마음 안으로 돌리는 데에 묘미가 있는 거죠. 지금도 돌려놓으라고, 놓으라고 그러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만약에 죽을 때는, 죽기 전에 자기 갈 자리를 자기가 다 마련해 놓고 가요. 이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요점이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몸을 벗을 때도 벗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벌써 정자와 난자를 좇아서 어디를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열 달 내내 길러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딱 끊어지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저런 다른 큰 생명이 된다든가 이래도 말이에요, 그걸 꼭 사람으로만 비유하지 마세요. 사람 이외의 정말 벗어난 선인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정망해서 다 해 놓고, 또 사람이 된다 하면 만 아홉 달이 되지만 이만 아홉 달은 우리 지구에서 쓰는 거지 딴 데서는 만 아홉 달이라는 게 똑같이 쓰여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그쪽으로 가고 이 옷은 벗어요. 또 사람으로 내가 화한다 할 때는 거기 배 속에 들어가서 아홉 달 내내 길러 가지고 내가 목숨이 한 찰나에 딱 떨어질 때 벌써 그리로 가요. 이건 벌써 미리 가 있어요. 여기는 사는 습만 있다 뿐이지 그리로 가서, 바로 자기가 길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선처해서 벌써 자기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 길잡이는 자기죠. 자기 이외에 길잡이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공부를 안 한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가 자기 개척을 못하고 자기가 길을 모르고 컴컴하고 그러니까 죽어도 누가 인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살던 자기의 습이 있어 가지고 눈이 캄캄하니까. 그래서 살던 습에 의해서 자기가 착을 두고 있는 데에 그냥 머물러 버리죠. 거기에 머물러져 버리니까 때에 따라서 그 영계는 집에서 뱅뱅뱅뱅 산 사람한테 도는 거죠. 자식과 부모 뭐, 누구를 막론하고 얘기예요. 집안의 친척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은 몰라도 그 길은 알거든. 그러니깐 그 습에 의해서 뱅뱅뱅뱅 돌아다니죠, 자기에게 잘해 준 사람 앞에 또는 자기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로 인해서 남의 논 등에 주저앉는 법도 있죠. 저희 집 식구들이 시원치 않고 그러면 친구한테로 가거든요. 이게 참, 문제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에 한해서, 바깥으로만 만날 돌고 다니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길을 자기가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타의에 의해서 내가 길을 인도받아야 할 텐데 그 은사도 똑바른 사람을 못 뒀다면 그마저도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캄캄하고 그래서 결국은 개집이나 뭐, 새 둥우리나 무슨 쪽제비 소굴이나 돼지 소굴이나 소 외양간으로, 뭐 이런 데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또 자기가 마음이 착해서 참, 요행히 걸려서 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차원을 가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런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십중팔구란 말입니다. 아니, 열 번에 한 사람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열 사람이라면 그 도리를 공부하지 못한 컴컴한 사람으로서는 사람 되기가 열 명 중에 두 명 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왜 우리에게 이득이 없느냐 하면, 인간에게도 이득이 없고 사회에도 이득이 없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세계를. 예전보다도요. 예전엔 그렇게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알고 있는 자기가 벌써 계발이 된 겁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기를,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난 저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는 그냥 우리가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잠재의식 속으로 가서 컴퓨터에, 자연 컴퓨터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도리를 모르면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박혀 있는 대로 길을 갈 것이고, 자기가 자유권을 갖고 자유자재한다면 그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미리미리 그렇게 다 해서 자기가 한 찰나에 딸깍하면 그냥 옷만 벗는 거뿐이에요. 우리가 옷을 벗으려면 훌훌 그냥 벗죠. 그 순간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 놓는 거뿐이다 이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 못한 사람은 '길다, 짧다' 이런 것이 있는데, 한 찰나다 이거야. 이쪽에서 한 찰나는 이 집으로 들어가느냐 이 집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 즉 한 찰나는 한 찰난데 이 집으로 들어가느냐, 이 집으로 들어가느냐야!

그러면 열 달이 걸리고 한 찰나가 걸리고 일 초가 걸리고 열흘이 걸렸다 또는 아홉 달이 걸렸다 이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됐대도, 만약에 본래 이렇게 믿고 다니던 데에 아는 사람이 길잡이로 있다면 벌써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다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즉시 그것을 막아 줄 수 있는 겁니다, 즉시! 막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홉 달이 됐다 하더라도 일 초로 축소한단 말입니다, 이건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뜬 사람 하나 만나기가 극히 어렵다. 하나 만나면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있는 것이죠. 사람 하나 만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디? 그러고도 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 하나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림 · 최주현

북두칠성을 보라고 하신 뜻은

질문 예전 어느 선사가 제자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공부가 조용한 중에는 그만한 편이나 움직이는 중에는 아직 멀었구나." 하시면서 북두칠성을 보라고 했답니다. 그렇다면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 북두를 보라' 함이 무슨 뜻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가 얼른 쉽게 말하면 발은 하늘을 보고 머리는 땅속을 본다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물질이 다 허망한 것이니 그 허망한 물질의 움죽거림이 움죽거림이 아님을 알면 바로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북방을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북방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마음세계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움죽거리는 것이 여러분이 움죽거리시는 겁니까? 네? 이 물질을 가지고 허망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망한 것이 움죽거리는 것이 움죽거림이 아님을 알라 한 것도, 그것도 바로 마음으로부터 움죽거림이 나오지, 마음이 아니라면 움죽거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깐 마음의 주인이 하자는 대로 육신은 움죽거리게 돼 있으니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가 "아, 칠성이 참 잘 생겼다. 아! 고놈, 아주 칠성이 곧잘 생겼는데…." 이러기도 하죠. 그러니 이 밝은 마음, 이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 도리를 그 밝음에서 보라 하는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북두를 봐라. 내 마음의 제일 높음을 말하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인간은 머리가 제일 위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위가 아니라 정신이 위란 얘기죠. 북두, 이 모든 것을 "남쪽으로 얼굴은 돌리되 그 내면의 북두를 봐라. 그걸 볼 줄 알아야 어느 일을 하더라도, 어느 걸 하더라도 함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죽거려도 움죽거림이 아니니라. 그게 움죽거려도 움죽거림이 아니요, 움죽거리지 않아도 움죽거림이요, 그 가운데 묘미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이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가진 여러 조사들도 부처님들도 다들 그렇게 앉아서 이 얼굴을 여기다 두고도 팔방미인이었지요.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땅속도 보고 위도 보고, 다 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안 보이는 게 없어서 면경 알 같다. 면경에 자기가

☞ A18면으로 계속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7년 7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대련, 관욕 (기초부터 시작)
◇원서교부 : 2017년 7월 15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해야만 대뇌로 통신이 된다

☞ A17면에서 계속

비치는 게 자기가 아니고 그 팔방미인이 바로 보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 사무 사유(四無四有) 이 모두를, 한꺼번에 시공을 초월해서 걸림 없이 돌아가는 이 소용돌이를 바로 우리는 고개를 이리로 두고도 뒤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과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현실에, 미래에 이 삼세가 바로 일심(一心), 현실 지금 이 자리라는 겁니다.

삼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했죠. "바로 삼세가 있으니 네가 태어나기 이전을 찾아라." 이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을 찾느라고 바깥을 그냥 헤매고 도는데 그게 아니에요. 즉 과거도 자기요, 현실도 자기요, 미래도 자깁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죠. 작년 씨를 갖다가 올봄에 심었더니 싹으로 화했더라. 싹으로 화했는데 작년 씨를 어디서 찾는고? 그래서 싹으로 화해서 벌써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익어서 그냥 그 열매가, 씨가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아니, 작년 씨를 작년에 가서 찾다니!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씨를 올봄에 심었더니 싹으로 화해서 태어난 것을 작년 씨를 어디 가서 되찾노?"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한생각을 잘 내서 새 물로 바꿔 쓸 수만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

질문 큰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다운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 법우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지금 사람 몸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이 자리까지 정말 귀중한 생명을 얻어서 오게 됐다고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변하면서도 뭔가 찾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저 콩나무로 표현을 할까요? 콩이 말입니다, 콩씨가 있어서 땅에다 심었더니 콩싹이 났어. 뿌리로 화해 가지고 싹이 났다고요. 싹이 났는데 그 싹은 그 뿌리에 의지를 해야죠. 그렇죠? 뿌리에 의지를 해야 싹이 잘 되죠? 그리고 또 콩씨가 열리죠? 콩꽃이 피고. 그럼으로써 또 콩나무는 내년을 기약한다는 생각도 없이 영원히 지속해서 이어 가는 겁니다. 그 생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어 가게 돼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뿌리는 자기 싹을 위하고 자기 싹은 자기 뿌리를 연상하고, 즉 붙들고 믿고 나가야죠. 그런데 그 콩이 말입니다, 뿌리로 화했는데 그게 무슨 콩이냐고 그럴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콩이냐고 한다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찾으려고 아무리 뿌리를 헤쳐 봐도 콩이 없더란 얘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콩씨를 찾으려고 그래도 콩씨는 없고 자기 몸에, 즉 콩나무 안에 콩씨가 있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콩씨가 아직 안 열린 콩나무는 콩씨가 잘 되게 꽃이 피고 콩씨가 열리게끔 뿌리에게 거름을 줘라. 이런 거는 뭐냐 하면 모든 거를 믿고 거기에 의지하면은 콩나무는 거름이 된다. 그 마음이 말이에요. 거름이 돼서 그 콩나무를 푸르르게 만들고 꽃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나무에서 무르익게 하고, 그래서 모든 만민을 또 먹이게 하고, 되남게 하고, 되남아서 또 심어서 또 먹이게 하고….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다 이겁니다.

새들도 뭐 자기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것도 없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려고 애를 쓰고 주워다 먹이느라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도 누구한테 알을 뺏기면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쳐다보고 울고 서게 되는 거죠. 우리도 자식을 기르다가 어쩌다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만약에 채 갈 때 그냥 누가 채 가는 놓고는 자기 헌 옷은 그냥 죽어 버리는 거, 즉 부모가 죽어 버리는 거 이런 거 있지요? 껍데기를 벗고선 또 새 알맹이가 나오고 말입니다. 또 다른 벌레가 또 다른 벌레로다가 진화하고 이러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도 역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차원에 의해서 바뀌짐으로써 모습도 바뀌져요. 현재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내 체질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 낳는 사람이 "순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순산치 못하게 될 때는, 즉 말하자면 거꾸로 있거나 뭐 잘못됐거나, 태반이 기울어졌다거나 이런다면 벌써 거기다가 관하면은 그 태반도 올바로 세워지고 또 거꾸로 있던 아이도 바로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속에 소임 맡은 공장에서들 다 너 나 할 거 없이 통신이 정수에서, 대뇌에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가면 다 그렇게 작용을 해 주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해야만 대뇌로 통신이 된단 얘기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길렀습니다. 근데 그중 한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자식들을 기른 그 어머니가 손자를 봤으니 얼마나 손자가 귀여울 것이며, 아들들을 기르느라 얼마나 손발은 다 터지고 못쓰게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홀연히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절에 나갔습니다. 절에 나가서는 부처님 전에 시주도 많이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저 쌀 서너 되 짊어지고 올라가고, 또 무슨 음식이라도 새로 나는 거 있으면 깨끗하게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이런 말만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은공을 다 갚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부처님! 어머니의 은공을 꼭 갚게 해 주소서." 하고선 항상 그렇게만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 **칠석날에 내가 닦아서 백종일에 넓고 광대무변한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할 수 있게끔, 그 의식이 확 트이게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일 것입니다.**

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는 없죠. 어떡해요? 보이는 사람이 때려서 죽였다면 그냥 사생결단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채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 마음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는 날까지는 꼭 편안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콩씨가 다 여물어 심을 수 있게끔 된 연에 콩깍지가 벗겨져야지 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깐 인간도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는 날까지 꼭 틀림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정상적으로 기르려면은 이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새알 잊어버리듯이 자식들도 잊어버리고 새 새끼가 죽거나 또 채여 가고 먹히듯이 그렇게 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이 도리를 알아야만 되는 거죠. 새 새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강하게 스스로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즉 소임을 꼭 해야 지키고 간다 이겁니다.

연어나 뭐 뱀 새끼나, 뭐 뱀도 여러 종류지마는 종류대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새끼를 살려서, 즉 말하자면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는 짐승은 다 자기가 희생하고 들어가요. 자기 껍데기, 즉 옷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딱 자기 새 옷을 많이 내무턱대고 생긴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도 과학적이고 이것도 벌써 자동적인 컴퓨터가 머리 위에 달려 있어요. 대뇌가 인간 컴퓨터예요. 오신통이라고 하는 바로 머리의 누진(漏盡)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입력된 거를 지울 수도 있고 입력된 거를 입력된 대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누진이에요. 컴퓨터를 만지는 주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소상히 말을 해 줘도 아리송할지 몰라요. 그러니 그저 잘못되든지 잘되든지 내가 떡 그릇에 들어가 보고 그냥 아무 데라도 들어가 보고 그걸 체험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백 가지 음식 차려야 하는지요

질문 저는 불교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불자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백종날 백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좋은 곳에 태어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위해서 백 가지 음식을 모두 차려야 어머님이 좋아지실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뜻으로 표현하신 것인지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극락왕생하실 수 있으려면 백종날 어떻게

그러다가 어느 날 나무를 해서 지고 내려오다가 너무 무거워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느 스님께서 옆에 턱 앉으시면서 "더워서 식혀 가느라고 이렇게 앉았느냐." 하시더랍니다.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참 자네는 효성이 지극한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모르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자네는 자네 턱 밑에, 자네를 사랑하던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당신 마음에 있고, 어머니의 은공을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 마음에 있으니, 어머니도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이고 당신 마음도 바로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이니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마음 안으로 항상 지켜보라."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 명경에 당신 어머니가 비칠 때에 바로 당신은 어머니의 은공을 갚을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항상 '내 마음 안의 명경이 어디 있어서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저 자나 깨나 마음에 관했답니다. 마음의 명경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를 좀 뵙게 해 주며, 은공을 갚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명경이, 정말 마음의 눈이 뜨여서 보니까 어머니가 바로 자기 네 집 연못의 큰 구렁이가 돼서 자기들을 지켜 주고 집을 지키고 계시더랍니다. 그 연못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님이 그 모습을 벗지도 못하신 채 여기에서 그렇게 계시다니,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고 그 모습을 이렇게 쓰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계시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냥 연못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둘이 돼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한마음 속에 어머니도 계시고 나도 있고 모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네가 나를 봤으니 나는 인제 한이 없다. 너는 너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길을 밝게 인도하기를 바란다. 네 마음속에 명경이 있는 거를 봤으니 나는 인제 홀연히 떠나도 손색이 없으리라 믿는다. 너를 믿고 이젠 떠난다." 하면서 말이 끝나자마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너는 모습이 있는 것이요, 나는 모습을 벗느니라. 이 생사의 교차로에서 돌아다보지 마라." 하는 목소리가 그냥 요란하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돌아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서 엎드려서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간 곳이 없고 그렇게 요동치던 날이 환하게 밝으니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춤을 추었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백 가지 음식을 해 놓기보다는, 왜 백 가지만 해 놓겠습니까? 부모의 은공이라는 것은 백 가지 해 놓고 백 가지를 다 스님들한테 해 드린다고 해도 그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욕심이 많아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떡을 둥글게 하나 해다 놓고, 이 속에 천 가지 만 가지, 백종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돌아가신 부모나 죽은 자식이나, 스님네들이나 유생 무생이 다 먹고도 남을 떡 하나를 해다 놓는다면, 그 속에 다 들어 있으니 그 속에 먹고 싶은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물이 그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칠보가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한마음이 그쯤 된다면 어느 누구도 덜 먹었다 더 먹었다 할 게 없이 두루두루 몽땅, 내 부모 네 부모 따로 없이, 내 자식 네 자식 따로 없이 전부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러니 예전에 살던 대로 여러 가지 차려 놓고 그 의식을 잡아 두지 말고, 칠석날에 내가 닦아서 백종일에 넓고 광대무변한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할 수 있게끔 그 의식이 확 트이게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일 것입니다.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지진에 강함
• 비틀림이 없음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

지수화풍 지장보살

회향선원 주지 스님은 불사를 결심하고 도량에 어떤 부처님을 모실까 의증을 내던중 지장보살님이 현몽을 하셨다. 이후 스님께서는 1,000일 기도를 세번 마치니 다시 지장보살님께서 나투시어 "천일기도 3번이 끝나면 만불자에게 나를 내놓아라. 병고액난자가 내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그 원을 들어주리라. 내가 지수화풍 지장보살 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병고 액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회향선원에
오셔서 지수화풍 지장보살님을 친견하시고
기도하시어 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성일 합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봉현리 산 44-1)
010-3771-7575



| 불자 세상보기 |

청소년 도박은 질병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피해자 없는 범죄, 도박
성인들의 문제로 여겨져
스마트폰으로 쉽게 중독돼

청소년 죄의식 없이 일탈
단기 쾌락주의 성향 키워
성인 돼서도 습관 남아

청소년 문화로 봐선 안돼
"치유 골든타임 지켜야"

한국도박분제관리센터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전국 중고등학생 일부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의 해당학년 학생 전체의 1.1%, 약 3만여 명이 도박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인 위험수위 이상의 도박증세를 보이는 문제군에 해당되고 추정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훨씬 더 높은 5.1%의 문제군에 해당되었으며, 도박에 몰입한 상태인 위험군도 20%나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도박이 더 이상 기성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기성세대의 도박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의 하나인 도박이 전통적으로 성인세대의 문제로만 여겨졌으나 이제는 세대를 넘어 전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도박이 급속하게 청소년층을 파고들었을까. 우선 도박세계로의 진입이 너무나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중고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게까지 도박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때와 장소에 거의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도박의 특성에 기인한 바 적지 않다. 우선 도박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도박이 젊은이들의 놀이요 문화적 전통이라는 오해가 깊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할 수 있어서 타인에게 발각되기 어려우며, 도박도 하나의 심각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도박중독과 의존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중독성은 특히 충동조절이 쉽지 않은 청소년들이 빠져나오기는 더 어려우며, 또 하나 청소년일탈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청소년 도박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모방과 자기 과시적 행동으로 친구를 중시하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파고들기 쉬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박 게임의 방식도 점차 단순해지고 쉬워져서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 중 하나인 단기 쾌락주의적 성향, 즉 '복잡하게 두뇌 싸움을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게임의 특징도 한 몫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도박, 또는 도박중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도박이 단순히 중독에 그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건강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중독에만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소위 '한탕주의' '기회주의'에 물들어 건전한 노동과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학생들의 상당수가 성인이 되어서도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곧 청소년 도박이 청소년 시기의 성장통이나 지나가는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성인세대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알려진 강력범죄의 적지 않은 사례에서 범행의 동기가 도박을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서였단 진술들이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은 날로 심각해지지만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로만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릇 모든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해결책을 사후적으로 찾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옳음에도 예방적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 악화, 심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 아니, 우리 학생은 그럴리 없다'는 학부모와 학교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마는 것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도박이 '하우스라는 컴컴한 도박장에서 화투나 카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모바일 게임 등을 통해 일상 활동처럼 되고 생활에 가까이 있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은 성인도박에 못지않게 살피고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요 과제이다.

社說

不法 없는 선거문화 정착 기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가 교구선거관리위원회, 교구 호법국장단, 공명선거위원단 등을 망라해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 실현 선포식'을 실시했다. 승가화합과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선거 SNS신고센터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총무원장선거에 앞서 중앙집행부를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가 함께 이 같은 움직임을 펼친 것은 과거에 빗대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과거에도 공명선거위원단을 운영한 적은 있으나 극히 소규모에 불과했다.

이번 움직임이 한편으로는 진정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일련의 청정승가운동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불교계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들이 있었는지 가늠케 한다.

기실 불교계서는 총무원장선거뿐만 아니라 교구본사주지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금권선거 · 매관매직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어왔다. 이와 더불어 폭로 · 괴문자 남발 · 흑색선거 등 불자들의 신심을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였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지금, 과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종단 내외서 갈등이 불어지고 있다. 바로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제도의 불신은 선거과정서 이뤄지는 부정행위, 그리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부실한 관리감독으로부터 시작됐다. 선거문제에 대한 자정능력이 떨어진다는 뼈아픈 지적을 돌이켜볼 때 이번 움직임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갈등을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 부디 공염불로 끝나지 않길 기대한다.

불교복지 아젠다 기구 창설해야

최근 복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등 계층별 복지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를 수용하는 방면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복지가 중점 진행됐다면, 복지수요가 늘어나며 마을복지, 지역복지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불교계가 수탁운영하는 복지관의 운영방식도 변모하고 있다. 수영장과 목욕탕, 심지어 골프장까지 건립 과정에서 사전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용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노인종합복지관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세워진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하루 이용객이 2500명에 달한다.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기존 불교계 복지관이 따라 잡기 위해서는 불교계 복지관 간의 연계활동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복지 아젠다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종단의 기구들은 지도자 협의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아젠다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지역별 연대는 개별 복지관에 맡겨져 있다. 사회 흐름에 맡게 적극적으로 불교복지 트렌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종단 주도 하에 권역별 아젠다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복지 수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맞춘 복지관이 지역민의 사랑을 그리고 차후 수탁과 운영을 보장한다. 불교복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지역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함께 연대해 대응해 나가는 기구 창설이 시급하다.



空으로 본 세상만사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우리는 윤회하는가

사찰에 강연 갈 때면 난 항상 신도님들께 농담 삼아 여쭤본다. "윤회를 믿습니까?"라고. 그러면 자신 있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하는 경우는 잘 못 보았다.

주지하듯이, 윤회는 불교의 전유물은 아니다. 불교 태동 이전의 고대 인도인들의 공통된 사후(死後) 관념이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대지의 곡물을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을 사람이 먹어 생명을 영위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면 화장(火葬)하여 산산이 흩어진 그 몸은 하늘로 올라가 다시 빗물이 되어 곡물을 키우고, 그 곡물은 또 다른 사람이 먹게 되고, 그 사람 역시 죽음과 함께 빗물이 되어 곡물을 키우게 되고…. 이러한 순환의 법칙에서 고대 인도인들은 끝과 시작이 물고 물리는 윤회의 관념을 발전시켜 나갔다. 즉, 윤회는 자연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한 고대 인도인들의 지혜의 산물이었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 역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같은 윤회의 관념을 받아들였다.

윤회론의 발생에 관한 이러한 통시적 고찰은 인도학-불교학을 근대적 학문 체계로 만든 유럽학자들에 의해 알려졌다. 이들 위대한 인도학자들 중에는 가톨릭 사제도 있듯이, 그들은 철저한 고고학 · 문헌학자들이었다. 따라서 불교를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접한 그들에게 윤회는 하나의 상징체계 즉, 인과응보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장치로 해석되었다.

내가 아는 불교학자들 중에서도 불교인이지만 윤회를 상징적 의미를 띤 신화적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분이 많다. 그런 이유에서, 자칭 '윤회파'인 나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과학적' 견해를 빌려 윤회를 논증하려 하는데 그때 늘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안 스티븐슨(Ian Stevenson, 1918~2007) 박사 이야기이다.

버지니아 의대 정신과 주임 교수를 지낸 그는 1961년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있음을 알고 그 사례를 인도 등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실지(實地) 대면 조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에 의하면 윤회 관념은 고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주민들에게서 보고되고 있고,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는 2~5세 사이에 전생 기억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윤회 관념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말을 믿어주기도 하지만, 현재는 윤회를 거부하는 종교나 문화를 가진 곳이 대부분이므로 '아이들의 상상력' 정도로 치부된다. 그래서 5~8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전생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성장함에 따라 그 기억도 사라진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약 3000여건 이상 조사, 수집한 그는 이를 바탕으로 1987년에 방대한 사례와 함께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ves)〉을 출간하였다. 물론 그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과학자로서 그가 책 서두에서 남긴 말이 늘 기억에 남는다.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윤회라는 것을 생각조차 않았던 사람들이 이러한 관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만이라도 한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깨달음 山門은?

깨달음을
사유하고.....
본각(本覺)의
불가사의한 묘력을
스스로 체득하는 곳임.

진귀장자의
수인(手印) 수행법

• 문 의 : 1899-9532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여럿의 두 팔과 두 눈을 한 데 모아 천수천안을 이루고, 대자비를 실천하는 사단법인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 혼자라면 어려운 일도 이들이 함께하면 아무리 외진 곳에도 자비광명을 비출 수 있다.

중생의 몸으로 千手千眼 보살행 이루다

〈천수천안〉

그대는 자비보살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

2002년 고양시 사찰 연합해 창단

이듬해 사단법인 인가, 본격 돌입

15년간 경기 지역서 다방면 봉사

무료급식소 · 지역 관공서 등 활동

20여 사찰 참여, 연대 · 포교 효과

분별없는 보살도 실천 앞장 귀감

이웃 종교 시설서도 자비행 '눈길'

실천 뿐 아니라 내실강화도 힘써

호스피스 · 발마사지 전문교육 등

"봉사자의 책임감 · 전문성 UP"

중생의 힘 모아 곳곳에 자비를

천 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낱낱이 살펴 천 개의 손으로 구제한다는 대자대비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두 팔과 두 눈만을 가진 중생의 몸으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대자비행을 좇기는 불가능할 것만 같다. 하지만 중생으로서의 한계를 딛고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 있다. 사단법인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이사장 대오, 이하 천수천안봉사단)이다. 이들은 여럿의 두 팔과 두 눈을 한 데 모아 천수천안을 이루고, 대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천수천안봉사단은 2002년 경기 고양시 내 사찰들이 모여 출범한 연합 봉사단이다. 이듬해인 2003년 11월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 현재까지 15년간 경기 지역 곳곳에 자비광명의 빛을 밝히고 있다. 20여 사찰이 참여하며, 고양 화정동 무료급식소 봉사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 복지관 · 관공서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단원 수가 방대해 어느 한 사찰의 활동이 미약하거나 소외될 법 하지만 천수천안봉사단은 어느 한 곳, 어느 한 명 도태됨 없이 하나의 수레바퀴가 되어 굴러간다. 여럿이 함께하기 때문에 환희와 보람도 더욱 크다고. 단원들은 특히 소수가 짊어져야할 부담이 덜고, 그만큼 책임과 집중이 높아진다고 입을 모은다.

송경순 천수천안봉사단 사무국장은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월~금 내내 운영되기 때문에 1곳 사찰이 전담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집중도와 책임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천수천안봉사단 소속 사찰인 기쁨정사의 서혜숙(58) 봉사팀장도 "얼굴 한 번 본적 없어도 천수천안봉사단 일원이란 이유만으로도 다른 사찰 신도들과도 유대감이 생긴다"면서 "또 경기도 내에서 많은 불자들이 모여 함께 봉사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웃어보였다.

또한 천수천안봉사단은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전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고양시에서 포교효과도 뛰어나다. 천수천안봉사단은 각 사찰이 매일 동국대 일산병원 · 국립암센터 · 일산병원 등 의료기관 4곳과 복지시설 5곳, 관공서 3곳 등에 배치돼 봉사한다.

특히 이들은 기독교계 명지명원과 일산홀트아동복지관에서도 자비행을 펼치며 종교 간 경계도 허물어 귀감이 되고 있다. 불자들만을 위해 봉사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만 나눔행을 펼치는 기존의 관습과 편견을 완벽히 깨트린 행보다.

이사장 대오 스님은 "지역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며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포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또한 봉사는 종교를 초월해야한다는 정신으로 이웃종교 시설에서도 열심히 활동한다"고 말했다.

실천 뿐 아니라 내실 강화에 힘쓰는 것 또한 천수천안봉사단의 강점이다. 봉사자들에 대해 호스피스 전문교육, 발마사지 교육 등 자원봉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전문 소양 갖추기에도 노력하는 것. 현재까지 1,500여명 수료생을 배출하며 불교봉사 인재 양성소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오 스님은 "자원봉사교육은 새로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교육받은 봉사자들은 확실히 책임성과 전문성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고 했던가. 하지만 천수천안봉사단에게는 그저 옛말일 뿐이다. 교육과 실천,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사공이 많아도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 천수천안봉사단의 숨은 비결이다.

자(慈)와 비(悲) 함께해 참된 보살행

천수천안봉사단을 만나기 위해 무료급식소(고양 화정동 소재)를 방문한 8월 21일은 8월 생신 어르신들의 잔치가 한창이었다. 이날은 기쁨정사에서 6명의 봉사자가 찾아 어르신들을 위해 생신축하 노래를 부르고, 생신상을 마련했다.

자식 손자들과 둘러 앉아 케이크의 초를 불고 재롱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련만,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행복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독거 어르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료급식소 안에서의 사정은 다르다. 친딸처럼 재롱을 피우고 갓 지은 밥과 맛깔 나는 반찬을 내놓는 천수천안봉사단이 있어 어르신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이날도 기쁨정사 봉사단은 어르신들을 위해 청포묵 무침과 잡채, 떡 등 정성스런 한 끼 식사를 마련했다.

조혜종(83) 어르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점심시간이면 이곳을 찾는다. 평소에 여래사를 자주 찾는데 젊은 불자들이 우리를 위해 밥을 지어주니 더욱 맛이 좋다"고 웃어보였다. 또 이날 생신을 맞은 한강자(77) 어르신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잔치도 좋지만 천수천안봉사단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면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저절로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봉사자들을 칭찬했다.

이처럼 어르신들은 연신 고마움을 표했지만, 봉사자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어르신들에게서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웃어보였다. 송경순 사무국장은 그것을 바로 '마음의 선물' 이라고 말한다.

"식사하러 오신 어르신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사탕 한 알, 초콜릿 한 개 등을 손에 꼭 쥐어주실 때가 있어요. 가을이면 단풍잎 한 장과 도토리 세 알을 주워다가 '예뻐서 가져왔소' 하며 건네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에 대한 정도 더욱 깊어지고,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 감산 대사

B5
문화
그림 그리는 스님들 '그스님'

B6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 초암사에서 비로사 가는 소백산자락길

“‘봉사했다’는 생각마저 버려야 참된 자비”


2015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MOU를 맺고 사회공헌 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탈북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일일찻집에서 스님들이 축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천수천안봉사단은 올 4월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을 방문해 자비의 쌀과 타이머콕을 무료 보급했다.



천수천안봉사단은 매년 10월 ‘자비의 연탄 나누기’를 개최한다. 지난해 10월 26일에도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비의 연탄 나누기가 진행됐다.

사단법인 천수천안 불교봉사단은?

고양시 지역 사찰들이 참여하는 연합 봉사단체로, 500여 자원봉사자가 경기도 지역 의료기관 · 복지시설 · 관공서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흥국사(주지 대오, 이사장) · 봉덕사(주지 현진, 상임이사) · 덕양사(주지 도명) · 노적사(주지 종후) · 성보사(주지 도원) · 광명사(주지 대덕) · 남양주 무량사(주지 홍선) · 자비정사(주지 자원) · 법계사(주지 지성) · 미타사(주지 정수) · 연덕암(주지 법완) · 아미타사(주지 해선) · 관산동 여래사(주지 여여) · 괴산 각연사(주지 법공) 등 사찰이 소속돼 있다. 각 사찰 주지 스님은 이사 및 감사 등을 맡았다.


천수천안봉사단에 소속된 사찰은 20여 곳. 봉사단원만 500여명이 넘는다. 이들은 매일 순번을 정해 화정동에 위치한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를 짓는다.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

B1면에서 계속

기쁨정사 봉사자 이정은(61) 씨에게도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는 시간은 힐링과 다름없다. “부모님한테 못 다한 효도를 어르신들에게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어요. 불교계에서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이 흔치 않은데, 이곳에 와서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고 저희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기쁨만 넘쳐난다면 좋겠지만 마음 애태우는 날도 적지 않다. 매일 오전 11시 30분이면 급식소를 찾던 독거 어르신이 며칠씩 오지 않을 땐 ‘혹시 무슨 일 생긴 게 아닐까’ 마음 졸이며 전화를 건다. 송경순 사무국장은 “매일 환하게 웃으며 급식소를 들어서던 어르신이 갑자기 안 오시면 걱정이 돼서 꼭 전화를 드린다”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 더 신경이 쓰인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사실 봉사(奉仕)는 쉬워도 자비(慈悲)는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랑과 함께 애달픈 마음, 비(悲)가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을 자신의 친부모와 같이 진심으로 대하는 천수천안봉사단에게서 진정한 자비보살의 모습을 본다.

서로에게 功 돌려 더욱 따뜻

“내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의식하면 대가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봉사했다’는 마음마저도 비우는 것이 참된 불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현 이사장 대오 스님(흥국사 주지)은 평소 봉사자들에게 무주상 보시를 강조한다고 한다. 아무 조건 없이,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해야 참된 자비행이자 보시라는 뜻이다.

대오 스님은 창립이사로 참여해 2~4대 째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천수천안봉사단에 소속된 사찰 주지 스님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 활동 중이다. 그 중에서도 대오 스님은 천수천안봉사단의 15년 역사 중 10년을 이끌어온 만큼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매년 10월 말에 봉사단 식구들과 연탄 나눔 행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줄을 이어 연탄을 옆 사람에게 한 장씩 전해주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니 새삼스레 환희심이 차올랐습니다.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복을 지을 기회를 얻었구나’란 생각이 순간 머릿속에 스친 겁니다. 항상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스님의 임기 중 천수천안봉사단이 이룬 가장 큰 공적은 무료급식소 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문을 연 무료급식소 ‘자비 나눔의 집’은 천수천안봉사단의 봉사 거점이자 각 사찰을 하나로 묶는 유대감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대오 스님은 “독거 어르신들은 혼자 공양 드시는 것이 일상이고,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밥 한 끼 때우는 것이 큰 걱정이다. 이런 어르신들이 또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스님들과 봉사자들이 모두 무료급식소 개소를 위해 적극 노력했기 때문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오 스님은 무료급식소를 1~2곳 더 개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여럿이 모여 한 끼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큰 활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양시 내에 무료급식소를 1~2곳 확충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대오 스님은 특히 천수천안봉사단이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던 것도, 또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스님들과 봉사자들의 원력으로 가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님께서 잘 이끄신 덕분에 천수천안봉사단이 발전할 수 있던 것 아니냐’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모든 공을 돌렸다.

“저는 행정업무에 바쁘단 핑계로 현장 봉사를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묵묵하고 무탈하게 봉사해주는 봉사자들이 있어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봉사자들을 더욱 격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겠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 천수천안봉사단이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 고양시라는 한 지역에서 시작된 자비의 마음이 천리만리 대자대비의 빛으로 뻗쳐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글=박아름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2014년 화정동 무료급식소 개소

차상위 · 독거어르신들 많이 찾아
봉사단원들 거점 · 원천으로 작용
사찰 순번 정해 급식 당번 맡아
매주 월~금 점심 새 식단 마련

참된 ‘무주상 보시’ 실천 노력

“어르신에게 받는 것 더 많아”
2~4대 이사장 흥국사 대오 스님
15년 중 10년 봉사단 이끌어
무료급식소 1~2곳 확충 목표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⑱ 감산 대사

'누가 염불하는가?' 정토로 참구하다

"많은 선(禪)수행자들이 생사 해탈에 실패하는 반면, 정토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쉽게 생사를 해탈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에서는 생각을 끊어야 하지만, 염불에서는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감산대사몽유록( )〉

참선보다 염불이 더 쉬운 생사해탈법

명나라 최고 고승이자 등신불(육신보살)인 감산덕청(감山德淸, 1546~1623) 대사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방편으로 염불이 참선보다 수승하다며, 그 이유를 〈 〉산대사몽유록〉에서 이렇게 풀이했다.

"중생은 무량한 세월에 걸쳐 허망한 생각에 골몰해 왔으므로, 이들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염불은 청정하지 않은 생각을 청정한 생각으로 바꾸고, 독을 독으로 다스려 여러분의 생각을 청정하게 한다. 진실로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 염불에 전력을 다한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감산 대사는 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인 정토법문을 권하면서도 참선 수행자를 위해서는 이른바 '참구(參究)염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염불과 선을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아미타불 명호를 화두로 삼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행법까지 가르쳤다.

"부처님 명호를 외울 때, '누가 염불하는가?(念佛者是誰)' 하고 스스로 물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묻고 또 묻고를 지속해 나가면, 모든 망상이 갑자기 끊어지는 때가 온다. 망상들이 생기지도 않고, 또 생겨도 곧 없어진다. 마음속에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단 하나의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마음의 부침(浮沈)을 놓아 버리면,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깨어지면서, 여러분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보게 된다. 몸과 마음과 온 세상이 즉시 평화로워 진다. 이때 허공의 꽃들(환영의 세상)이 사라지고, 거대한 광명이 도처에 빛나 시방의 모든 것들이 밝아진다."

선종 중흥조로서 정토법문 선양

임제종 문하에서 선종을 중흥시킨 조사인 동시에 유식(唯識)과 화엄(華嚴)의 대가로서 유불선의 고전에 대한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깊이 있는 저작을 남긴 감산 대사는 정토종 제8조 연지(蓮池) 대사의 11세 연하의 도반이자, 제9조 우익(藕益) 대사의 정신적 스승이었을 정도로 정토종과 인연이 깊은 선지식이다.

이 세 고승은 자백진가(紫栢眞可) 선사와 함께 명나라 4대 고승에 속하기도 한다. 〈감산노인몽유집〉에 들어있는 '감산대사전'에 기록된 대사의 삶을 따라가 보면 선과 교, 정토가 하나로 조화된 원융불교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

명나라 가정(嘉靖) 25년(1546) 10월 12일 탄생한 감산 대사의 속성은 채 씨(蔡氏), 자는 징인(澄人), 호는 감산( )山), 시호는 홍각선사(弘覺禪師)이다. 안휘성(安徽省) 전초(全椒) 사람으로, 부친의 성함은 언고(彦高)였고, 평생 '관세음보살' 염불을 한 모친의 성은 홍(洪)씨였다.

대사는 12세에 남경 보은사(報恩寺) 서림영녕(西林永寧) 스님의 문하로 들어가 주요 불경을 모두 암송하고, 유교와 도교의 경전까지 함께 배웠다.

염불할 때마다 서방삼성 나타나

19세가 되자 서하산(棲霞山)의 운곡법회(雲谷法會) 선사를 알현하고 〈중봉광록(中峰廣錄)〉을 배운 뒤, 참선에 뜻을 두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수행의 요령을 잘 몰라 오로지 '아미타불' 염불만 하였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염불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아미타부처님이 서쪽 하늘의 공중에 서 계신 모습으로 나타났다. 눈부시게 빛나는 그 얼굴을 바라본 뒤 부처님의 발을 손으로 만지고 절을 했는데, 한없는 자비심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 다시 관음 · 세지 두 보살님을 뵙기를 원했더니, 두 분이 즉시 상반신을 드러냈다. 이때부터 대사가 염불할 때마다 수시로 세 분의 불보살님이 눈앞에 눈부시게 나타났다. 이로써 대사는 염불수행이 성공하고 있음을 자신할 수 있었다.

같은 해, 감산 대사는 보은사로 돌아와 무극명신(無極明信) 대사에게서 화엄현담(華嚴玄談) 강의를 듣고 구족계를 받았다. 〈화엄현담〉 가운데 십현문(十玄門)의 '해인삼라상주처(海印森羅常住處)'라는 구절에 이르러, 홀연히 마음이 열리면서 법계가 원융하여 다함이 없는 도리를 깨달았다. 대사는 당나라 청량징관(淸凉澄觀) 스님의 경지를 실감했고, 그를 본받고자 호를 징인(澄人)으로 지었다.

염불공안 참구로 공삼매에 들어

이듬해(20세) 10월, 천계사에서 안거를 날 때 운곡(雲谷) 선사로부터 "염불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염불공안 참구법을 배웠다. 그 때부터 대사는 일체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 집중했는데, 석달이 되지 않아서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이 되었다. 대중 가운데 있어도 대중이 보이지 않았고, 일상의 행위를 하고 있을 때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대중은 그가 멍하다고 여겼지만 실은 깨어있었다.

28세에 오대산에 갔을 때, 북대(北臺)에 위치한 감산( )山)의 풍치가 마음에 들어 호를 삼았다. 같은 해 반산(盤山)의 한 석실에서 홀로 수행하는 은자를 만나 함께 수행하다가 공정(空定; 공삼매)을 체험했다. 산하대지와 몸과 마음, 온 세계가 텅 비어버린 체험을 했지만, 은자의 가르침대로 그런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더욱 향상일로를 걸었다.

유식 · 화엄의 대가이지만
선 · 정토 겸수 사상 펼쳐
유불도 합일 융합의 근간





이근원통 증득하고 여환삼매에 들다

30세에 대사는 오대산 용문사에서 관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을 증득했다. 어느 날 물소리가 시끄러운 계곡 위 외나무 다리에 앉아 있었는데, 생각이 움직이면 물소리가 들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홀연히 몸을 잊어버리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갔다. 이때부터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모두 고요하기만 했다.

31세에 연지 대사가 오대산에 오자 감산 대사는 며칠 동안 밤을 세우며 대화를 나눠 그의 선과 정토의 겸수(兼修)사상을 들었다. 같은 해, 5일 동안 삼매에 들었다가 깨어난 후 감산 대사는 여환삼매(如幻三昧)를 체험했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꿈속의 일같이 보였다. 이때의 경계는 마치 비가 그치고 구름이 밀려간 뒤의 광활한 창공처럼 깨끗했다.

혈서사경 시 몽중에 미륵보살 친견

33세에 대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며 피와 금물(泥金)로 〈화엄경〉 한 부를 쓰는 데 집중했다. 일 점 일 획을 쓸 때 한 번 붓이 갈 때마다 한 번씩 염불을 했다. 손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사경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획 하나 틀리지 않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사경삼매에 들어 있었다. 혈서사경 중에는 몽중에 청량 대사와 미륵보살,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는 등 상서로운 꿈을 많이 꾸었다.

38세에 대사는 동해 뢰산(牢山, 산동 勞山)에 가서 움막을 짓고 안거했는데, 정토종 초조 혜원(慧遠) 대사 계통의 염불수행에 전념하면서 대중을 교화하였다. 대대로 도교가 융성했던 이 지역 주민들은 처음으로 불교를 알게 되었고, 12년 후에는 세 살 먹은 아이들까지 염불할 줄 알게 되었다.

공삼매에 들어 무량광을 체험하다

41세에는 신종이 대장경 15부를 명산의 사찰로 보냈는데, 태후가 그 중 한 부를 뇌산에 있는 감산대사에게 보냈고, 조정에서는 뇌산에 해인사(海印寺)를 건립하고 대사께 주지를 맡아주기를 청했다. 같은 해 11월, 하루 저녁에 선실에 앉아 있다가 밖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니, 바다는 고요하고 허공은 깨끗한데, 눈의 흰색과 달빛이 한데 어우러지고 있었다. 이때 홀연히 몸과 마음, 그리고 세계가 그 자리에서 고요히 가라앉더니, 마치 허공 꽃의 그림자처럼 떨어져 내렸다. 바로 이 순간 큰 광명의 바다가 펼쳐졌고, 일체가 사라져 아무것도 없었다.

50세에는 조정의 정쟁에 연루되어 광동의 뇌주(雷州)로 유배당하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불법을 널리 퍼뜨리면서 선종과 화엄종의 융합 및 유불도 삼교의 합일을 주장하였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 그가 옛 오나라 땅에 머문 5년 동안 강남과 강북의 불교가 흥성해졌다.

육조대사 선종본찰 남화사 중창

56세에는 100여 년 동안 엉망이 된 선종의 본찰 보림산 남화사(南華寺)를 1년 만에 회복했다. 사람 다니는 길과 물길을 새로 내고 스님을 선별하여 계를 주고 사미들을 길러냈다. 청규를 새로 제정하고 사중의 땅을 회복했다.

61세(1606)에 이르러서야 황제는 황손 탄생을 축하하는 뜻에서 대사를 사면시켜 주었으며, 1614년 태후가 죽자 비로소 승복을 다시 입도록 허락하였다. 대사는 그 뒤 많은 저서를 쓰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대중을 교화하였다.

74세가 되자 정월에 오유봉에서 목석암을 짓고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 〈기신론〉 〈유식〉 등의 경론을 가르쳤다. 8월 보름에는 폐관(閉關)하고 혜원 대사의 법을 본받아 마음을 오로지하여 정업(淨業: 염불수행)을 닦았다.

4년간 폐관 염불수행 후 육신보살로

1622년 소양 태수 장공의 청에 응해서 감산 대사가 조계(남화사)에 들어간 이듬해인 천계(天啓) 3년(1623) 10월 병에 걸렸다. 11일 목욕재계하고 불전에 분향한 후 대중에게 유훈을 남겼다. "생사의 문제가 크고, 죽음이 금방 닥쳐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간절하고 실답게 염불을 해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단정히 앉아 입적하니, 세랍이 78세였다. 21년이 지난 뒤에도 살아계신 듯 손 · 발톱과 모발이 길게 자라 있었고, 살색은 선홍색일 정도로 육신이 그대로인지라, 남화사 조전(祖殿)에 육조 대사의 육신상 옆에 나란히 안치하였다.

'오묘하게 밝은 참마음(妙明眞心)'을 깨달아 명말의 선종을 중흥시키고 정토법문을 선양한 감산 대사는 사후에까지 육신보살로서 말 없는 법문을 설하고 있으니, 중국 남화사를 방문하는 분들은 꼭 조전에서 대사를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란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 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8.30~2017.9.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心卽極樂, 마음 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극락

〈심즉극락〉

지장경을 읽는 즐거움

정현 스님 | 민족사 펴냄 | 1만 6500원



이 책 〈지장경을 읽는 즐거움〉은 정현 스님〈사진〉이 불교텔레비전(BTN)서 〈지장보살본원경〉을 강의한 내용과 그 외의 자료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지장보살본원경'은 간단히 '지장경'이라고도 불린다. 지장경은 관세음보살과 함께 대승불교의 대표적 보살인 지장보살의 원력과 공덕을 찬탄한 경전이다. 자기를 희생해 남을 구제하는 보살로서, 곤경에 처한 이웃을 보면 스스로 몸 바쳐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 공덕으로 자기도 구원될 것으로 믿고 실천하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가 지장행자(地藏行者)이다.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지장보살의 대비구제 원력을 앞장서 실천하는 스님이 있다. '한국의 지장도량'으로 유명한 철원 심원사 정현 스님이다. 스님은 오랫동안 지장보살의 본원(本願)을 자신의 본원으로 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보살행을 남 몰래 실천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불교텔레비전을 통한 〈지장보살본원경〉 강의는 많은 불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책은 그때 정현 스님이 강의한 거룩하고 훌륭한 설법을 엮은 것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입에서는 향기가 나고 귀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찌 기쁜 마음으로 찬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밝혔다.

실제로 설악 무산 스님 말처럼 정현 스님은 누구보다 지장보살의 대비구제 원력을 앞장서 실천한 수행자이다. 스님은 모든 사람을 지장행자로 만들려는 원력으로 지장 기도를 하고 지장 신앙을 널리 전파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불교텔레비전을 통해 절찬리에 방영된 〈지장보살본원경〉 강의는 많은 불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저자는 책 머리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대원력 지장보살의 가르침이 담긴 지장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금생에 더할 수 없는 복을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장경을 보고 듣고 읽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 됩니다. 지장경을 읽는 순간부터 대단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체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여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책을 읽으면서 체험할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라고 독자들에게 호언 장담한다. 즉 지장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금생에 더할 수 없는 복을 짓게 된다는 말이다. 정현 스님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해 부처님 수기(授記)를 받도록 하라는 부촉을 받고, '한 중생이라도 지옥서 고통 받는 자가 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워 '대원본존(大願本尊)'으로 신봉되는 보살이다. 지장경은 고통 받는 중생들을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이다.

'무불시대(無佛時代)'에 고통 받는 6도(六道) 중생들을 제도해 해탈케 하겠다는 지장보살은 다겁생 동안 사바세계의 모든 고통을 덜어 주겠다, 치유해 주겠다, 중생을 기쁘게 해 주겠다, 지옥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자비의 원력(願力)을 세운 분이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 전신인 정광명여래 이전부터 생이 있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남자 또는 여자, 천신 혹은 노예의 몸으로 태어나 큰 원력을 다져왔다. 이런 지장보살의 원력은 말로 형언키 어려울 정도로 대단해서 지장보살의 음성을 듣거나 찬탄했거나 조성했거나 예경하였거나 참배를 하였거나 그 어떤 공덕을 지었더라도 3악도(三惡道)를 멸한다고 한다. 3악도는 대표적인 고통의 세계로 지옥도 · 축생도 · 아귀도를 말한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지옥중생' '3악도' '성불' …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지장경이 우리 시대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장경은 그저 우리 삶의 신비한 묘책 같은 것을 전하는 경전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지장경 공부는 마음 다스리는 공부, 신행(信行)은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지장경(地藏經)'의 '지'는 우리의 지평 안에, 즉 현실을 뜻한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지배한 삶이라 해도 모든 존재는 현실 속에서 존재를 둘러싼 무수히 많은 조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여기에는 늘 고통과 번뇌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고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면서 삶을 허비한다. 불안한 마음에 점집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캐묻고, 점쟁이의 말에 일희일비 한다.

대다수 경전이 그렇듯 지장경도 문답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지장경은 '왜 고통 속에서 사는가? 왜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왜 가난 속에서 사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져 있다. 경전 공부는 읽고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앎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현실에서 법문을 듣고 경전을 배우고 기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갖가지 장애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큰 공덕을 지으신 지장보살의 음성을 듣고 찬탄하며 가르침을 실천하는 행위는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보다 건강하고, 건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끄는 값진 공부인 것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지장경 공부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해 해결해 줍니다. 심즉지옥(心卽地獄)이라는 말도 있고 그와 반대로 심즉극락(心卽極樂)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라고 지장경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경전이 가르쳐 주는 지혜로써 괴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길이다. 지장경을 수식하는 말인 '신통 묘용'은 속임수나 사이비 기적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장경을 '약속(約束)의 서(書)'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발원하고, 수행하고, 선행을 하고, 원력을 세워 행하면 결실을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신행을 행하는 주체도 '나', 결실을 이루는 주체도 바로 '나'다. 지장경이 전하는 가르침의 모든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지장경은 나의 선행이 살아 있고 나의 원력이 살아 있는 한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것이 우리가 지장경을 공부하면서 꼭 챙겨야 할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지장경을 '선행(善行)의 서(書)' '원력(願力)의 서(書)'라고도 부른다. 정현 스님이 누구나 지장경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 것은 스스로 바르게 보고 이해해 바르게 깨닫게 되어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때 행복이란 우리가 세속적으로 집착하는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수행 하면 할수록 원력이 생기고 원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에게 좋은 일이 열릴 거라는 확신을 갖고 마지막으로 '지장경을 보고 듣고 읽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라는 정현 스님의 말을 곱씹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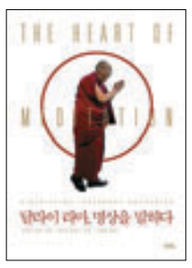
"모든 분들이 지장보살본원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는 진리를 자각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영글어지길 거듭 발원합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마음 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명상 하라"

달라이라마, 명상을 말하다

달라이 라마 지음 | 제프리홉킨스 편역
이종복 옮김 | 담앤북스 펴냄 | 1만 5천원



노벨평화상 수상가, 평화운동가로 유명한 달라이 라마. 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한 사람의 구도자이자 불교도다. 그는 지금도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어김없이 명상을 한다. 〈달라이 라마, 명상을 말하다〉는 근작 중 그의 수행자다운 진면모가 가장 잘 드러나는 명상 수행서다.

이 책의 특징은 달라이 라마가 직접 자비심을 계발해야 할 이유, 명상 자세와 방법 등의 기초 수행(1부)부터 더 깊은 단계의 수행(2-4부)에 이르기까지 직접 설명한다는 데 있다. 이 책에서 달라이 라마는 말한다. "마음의 힘을 강화하는 길은 명상"이라고(1부 3장).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이타심을 계발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명상이다. 그리고 그 명상이 일으킨 무분별심이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휴식을 줄 것이다.

이 책의 원제는 "명상의 심장 - 가장 심오한 의식의 발견"이다. 달라이 라마는 명상의 심장, 즉 명상을 살아 숨 쉬게 만드는 것은 '자비'라고 말한다. 이 자비라는 본질적인 기반 없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운 좋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비롭게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사랑, 동감, 친절,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마음을 길들였다면 대완성 수행을 할 준비를 마친 사람이다.

대완성 수행(족첸 수행)은 티베트 불교의 닝마빠 전통의 수행 중에서도 최고봉으로 치는 수행법이다. 도널드 로페즈 주니어(미시간대 교수)에 따르면, "400년 넘게 달라이 라마들이 연구하고 수행해 온 가장 명망 높은 수행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완성 수행"이다. 이 책에서 달라이 라마는 19세기의 스승, 빠뚤 린뽀체의 깊은 지혜가 담긴 시를 인용해 대완성 수행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완성 수행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심오한 의식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심오한 의식을 일상 속에서 알아차리며, 그 의식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런 통찰력 속에서 일어나는 지혜와 자비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달라이 라마는 강조한다. 이는 명상 가운데 개개인의 수행의 진전뿐만 아니라 각종 분쟁과 내전으로 시끄러운 세계의 평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집단적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김주일 기자

책속의 밑줄 긋기

▲"인간의 마음은 강철보다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강철과 같은 모양새를 갖출 때까지 인내와 결단을 연습해야 한다. (…) 불굴의 인내, 끊임없는 수행 그리고 그 노력에 공들인 시간이 합해진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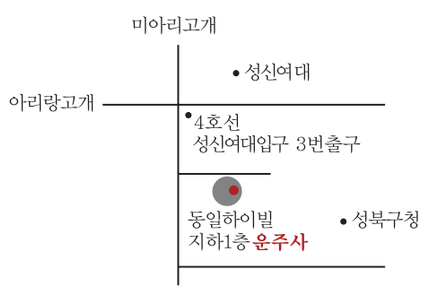
▲"증오는 마음의 바탕에는 없다. 증오는 타당한 기반이 없는 마음의 헛된 상태이다. 그 반면에 사랑은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탕이 없는 마음의 상태와 오랫동안 겨룬다면, 타당한 마음의 상태가 근본 없는 마음을 압도할 것이다."

▲"당신이 해방의 진정한 뿌리이며 해방의 길인 이미 알고 있는 그 바탕의 경험 안에 머물면서 요동하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별 개념들 역시 바로 이 바탕서 나타난다. 즉, 이 감정들은 심오한 의식 영역 속으로 해방돼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 감정들로 인해 일어나는 후사도 당연히 없다. 이 감정들은 일어나자마자 일어난 그 자리로 녹아 없어진다. 이 분별 개념들은 어디로 해방된 것일까? 가장 심오한 의식이다."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지찬 스님의 시그니처 캐릭터 '어라'



아도 스님의 문수동자를 모티브로 한 어린 아이 '수야'



'유노'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윤호** 스님이 주로 선보이는 동자승 캐릭터.



벼리 스님은 글과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낸다.

'그림 그리는 스님들' 그들이 뭉쳤다!

지찬·아도·윤호·벼리 스님 소모임 '그스님'을 만나다

그림그리기 취미 수행자 모여
페이스북 페이지 '그스님' 개설

스님들은 산속에 존재를 감추고 살거나 법석에 앉아 불자들을 만나는 일이 전부라는 것은 옛말. 요즘 젊은 스님들은 노래·스포츠·글·그림 등을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여과 없이 분출한다.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에서 랩하고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스님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그림 그리는 스님들의 온·오프라인 소모임 '그스님'은 조금 특별하다. 선방에서 수행만 하던 스님들이 그림 하나로 뭉쳐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스님(guusunim)'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선보인다.

'그스님'은 이미 불교 카투니스트 '어라 스님'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끈 지찬 스님을 중심으로 뭉쳤다. 곳곳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스님들이 많은데, 이들이 불자들과 더욱 가까이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지찬 스님은 "내가 '어라'란 캐릭터로 만화를 그리며 알려지니, 평소 만화에 관심 있던 스님들이 이것저것 물어왔다. 그러다 그 스님들을 한데 모아 주기적으로 작품을 소개하면 대중들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취미를 가진 스님들이 모이니 정보 공유도 쉽고, 정서를 나누기도 좋다"면서 "그림 뿐 아니라 사진, 글 등 다양한 콘텐츠에 장기를 가진 스님들 모두 환영한다. 추후에는 함께 전시회를 열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어라·아도·윤호·벼리 스님이 만났다. 4명의 스님은 만화 캐릭터, 글과 어울리는 그림 등 독창적인 작품들을 '그스님'을 통해 소개한다. 수행자들의 그림답게 동자승, 연꽃,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문구는 빠지지 않는다.

아도 스님은 동자승 '나도동자'와 문수동자를 모티브로 한 어린아이 '수야' 캐릭터를 그린다. '나도동자'라는 이름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있어 망설임 없이 '나도!'라고 외칠 수 있는 천진한 동자의 모습을 담아 지었다.

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기 전까지 그림을 한 번도 그린 적 없다는 아도 스님은 "동자승은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회화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했다"면서 "'그스님'을 통해 SNS에 그림을 게재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유노 스님'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윤호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호주 멜버른에 애니메이션을 배우러 갈만큼 열정이 남다르다. 사중 행사를 위해 간간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스님 및 SNS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윤호 스님은 "승가대학에 다닐 때도 주변에 손재주 있는 스님들이 참 많은데 왜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의아함이 있었다. 그림을 통해 포교를 하면 일반인들에게도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어 좋다"면서 "'그스님' 활동이 더 활발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벼리 스님은 그림보다 글이 주특기다. 글만 쓰는 것이 허전해보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의외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벼리 스님은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일기처럼 글로 적었다. 그런데 혼자만의 느낌으로 그칠 수 있는 글들을 SNS를 통해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면서 "또 스님들로부터 조언을 얻으며 아이디어를 얻고 경험이 풍부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단순히 페이스북 페이지에 작품을 공개하는 것만이 아닌, 각자의 작품을 굿즈(goods)로 제작해 선보이기도 하는 '그스님'들. 화려하거나 고전적이지는 않아도 편안하고 톡톡 튀는 젊은 세대 취향저격 콘텐츠로써 미래 세대 포교를 이끌어 가고 있다. **박아름 기자**

송광사 대숲에서 '모든 것'을 찾다

불일미술관, 조은령 초대전 9월 10일까지

대나무 숲으로 달려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던 미다스 왕의 왕실 이발사처럼 마음 속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조은령 작가의 그림 속 송광사 대나무 숲으로 떠나보자. "6월의 송광사에는 1월에 있던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채워져 있었다"고 말하는 작가처럼 보는 이도 묵은 것을 잊고 새로운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조은령 초대전 'Echoes-대나무 숲으로 그리고 대나무 숲으로부터'를 9월 10일까지 1관에서 개최한다.

조은령 작가는 서울대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2008년 '내 마음의 은유', 2010년 '書架에서 기억의 그림자를 만나다', 2013년 '한국화-힐링을 만나다', 2016년 '미궁-자존적인 정체성 혹은 배타적인 경계' 등 6차례 개인전을 연바 있다. 또한 제2회 MBC미술대전 우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에 입상했다.

조 작가의 이번 전시는 그리스 신화의 미노스 왕과 신라 제48대 경문왕 때의 설화로부터 시작한다. 비밀을 간직한 이들이 대나무 숲에서 외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외침 바람이 불면 허공에 울려 퍼졌다는 이야기다.

조 작가의 마음 속 대나무 숲은 교토의 아라시야마(嵐山)이자 송광사다. 조 작가는 송광사 대나무 숲을 여러 번 찾았던 일을 회상하며 "매번 참 다른 풍경이다. 다시 대나무 숲에 앉았을 때 내 귓가가 복잡해졌다. 대나무 숲의 정적 사이로 울림들이 퍼졌다. 1월의 풍경 소리, 북소리, 독경 소리, 그리고 파괴된 불상의 얼굴들이 울려오기 시작했다. 대숲에는 아무 것도 없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의 울림이 있었다. 모든 것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은령 作 'Echoes-대나무 숲으로 그리고 대나무 숲으로부터' |

조 작가는 대나무 숲에서 계절이 바뀜에 따라 느낀 바를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았다. 불일미술관은 "작가 노트를 음미하며 작품을 본다면 관객들도 어느새 송광사 대숲 한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일미술관은 최은숙 신인작가 공모전 '공존의 경계'도 9월 10일까지 2관에서 연다. 최은숙 작가는 단국대 동양화과를 졸업해 홍익대 대학원에서 동양화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또한 동대학원서 동양화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아름 기자**

버려진 파편, 새 생명으로 '재탄생'

스페이스선+, 조재 작가 개인전 9월 12일까지

도시 속 소비되고 버려진 파편들이 모여 하나의 미술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새로운 생명으로 진화한 파편들은 그 존재를 다시 인정받은 채 위용을 드러낸다. 하지만 또다시 누군가에게 소비될 것이 자명하다. 조재 작가는 그 사이클에 주목한다.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선+은 조재 작가의 3번째 개인전 'Object Chain: 사물이 움직이는 방향'을 9월 12일까지 연다.

조재 작가는 소비되고 버려진 파편들을 재조합해 새로운 오브제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철저히 작가의 본능과 직관에 의존해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자신이 속했던 원본으로 돌아가려는 동경과 새 존재로서 탄생에 대한 기대를 함께 뿜어낸다.

조재 작가는 "이 덩어리들은 매우 아슬아슬하고 약한 결합의 구조물로, 언제든 다시 붕괴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 불완전성 속에서 나는 새로운 맥락을 던진다. 극적으로 대비되는 이 중성은 불안하게, 그리고 즉흥적으로 나의 순간적인 손길을 만나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먹이사슬'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조재 작가의 조형 및 회화 작품 등이 선보여진다.

(02)732-0732 **박아름 기자**



조재 作, 기다란 덩어리,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7

용성 스님 가르침, 예술·문화로 승화

2017용성문화제 9월 24일 우면산 대성사서
'해설이 있는 불교의례' 등 프로그램 '다채'

용성 스님의 3가지 교화 지침, 생활화·대중화·지성화를 목표로 불교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2017 용성문화제가 9월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백제불교 초전법륜성지 우면산 대성사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어산작법보존회가 주최하고 불교의례문화연구소·아트플랫폼 주인공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설이 있는 불교의례 △올해의 불교미술인상 △청소년 그림축제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해설이 있는 불교의례'는 범패(복청게)·바라춤(천수바라)·나비춤(도량게 작법)·법고춤(법고) 등 불교의례를 해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다.

아울러 올해의 불교미술인상은 총 3명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불교미술 특별상) △이성도 조각가(올해의 불교미술인상) △서수영 동덕여대 겸임교수(올해의 청년작가상)로 선정됐다.

류종민 교수는 서울대 미술대 조소과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해 중앙대 예술대학장을 역임하고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등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성도 교수는 서울대 미술대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조소전공을 졸업해 현재 한국교원대 교수 및 한국미술교육학회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수영 교수는 동덕여대 대학원 미술학 조형예술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청소년 그림축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오후 4시 대성사 경내에서 열린다. 주제는 자유주제 및 불교의례·절 풍경 등이다.

시상내역은 △국회의장상(1명, 상금 100만원) △국회부의장상(1명, 상금 5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1명, 상금 30만원) △서울시장상(1명, 상금 20만원) △조계종 총무원장상·포교원장상·교육원장상(각 2명, 상금 10만원) △대회장상(10명, 문화상품권 5만원) 등이다.

접수는 홈페이지(www.daeseongsa.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9월 22일까지 이메일(2017ys@daum.net)로 보내면 된다.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소백산 맑은 정기가 절로 절로~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소백산 비로봉 중턱에 있는 비로사. 비보사찰을 세운 선조들의 지혜에 참배객들의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울창한 나무로 대낮에도 어두운 소백산자락길.



갑작스런 폭우로 낙과한 소백산 사과들.

- 걷는길 : 배점분교 주차장 – 죽계구곡 – 초암사 – 달밭골 – 비로사 – 삼가리 주차장
- 거리와 시간 : 12.6km, 4시간 30분 소요

저 절로 가는 길
⑱ 초암사에서 비로사 가는 길

느림의 상징, 소백산자락길
사찰 세워 逆地를 吉地로
선조들 지혜에 고개 숙여져

서울서 영주로 내려오는 고속도로에서 수없이 많은 '속도규제' 표지판을 보았다. 속도를 내도록 만들어 놓고 속도를 규제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궁극적으로 정지 상태를 소망하는 것이 모든 고속도로의 존재 이유 같았다.

그러나 내 의문은 오래지 않아 풀렸다. 소백산자락길에 들어서면서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처럼 뻥 뚫린 고속도로 위에서의 견딜 수 없는 금지증후군이 숲길로 나를 이끌었다는 것을.

소백산자락길은 소백산 산자락을 에둘러 충북 단양과 강원도 영월, 경북 봉화를 잇는 길이다. 이 길은 행정적이지도 산업적이지도 상업적이지도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가 다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속도규제 표지판을 볼 일도 없고, 중형차나 외제차를 만나 피해줘야 할 일도 없다. 이 길에서 흔히 보는 나무와 풀은 언제 봐도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뿐이므로 한껏 늑장을 부리는 여행자의 걸음이 그리 낯설지 않다. 소백산자락길에서는 빨라 봐야 계곡을 타고 흐르는 시냇물뿐이지만 느림의 미학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조차도 너무 빠르다.

차 없는 길, 특히 어둡게 썬팅한 차 안에서 운전대에 매달린 박쥐인간이 없는 길이라야만 길다운 길이라 주장한다면 차에 대한 원초적 혐오를 의심할 텐가? 덕수궁 돌담길이 차도로 변하지 않은 게 다행인 세상에서 소백산자락길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길을 빼앗은 게 어찌 자동차뿐인가. 컴퓨터와 스마트폰도 길을 해킹하는 자들이다. 길을 가다 보면 스마트폰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다니는 신자들을 무수히 만나는데, 다행히도 소백산자락길에서는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다. 대신 쭉쭉 날아간 창처럼 하늘에 닿은 전나무와 계곡을 따라 힘차게 흐르는 시냇물이 우리 마음을 뚫어놓는다.

소백산 자락길은 모두 12자락인데, 가장 멋진 자락길을 꼽으라면 단연 1자락길, 그 가운데서 비로사에서 시냇물을 따라 초암사로 이어지는 길이다. 내가 불자라서가 아니라 이 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단언컨대 엄지를 추켜세울 것이다.

차를 타고 왔다면 배점 주차장에 세우고 내려야 한다. 그때부터 죽계구곡과 더불어 사과나무 길이 열려 초암사로 향한다. 소백산에는 사과나무가 많다. 소백산에는 또 희방사 · 부석사 · 보국사 · 초암사 · 구인사 · 비로사 · 성혈사 등 절 또한 많다.

'소백산엔 사과나무 한 그루마다 절 한 채 들었다' 어느 숲길에 돋아난 팻말에서 김승혜라는 향토시인은 노래하고 있었다. 줄곧 푸른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길을 지나왔기에 시가 쏙 들어왔다. 그런데 사과, 하면 뉴턴의 사과 아닌가. 시인은 푸른 사과에서 절을 보았지만, 내 눈엔 절과 더불어 구도자도 보였다. 푸른 사과가 땅의 중력을 이겨내고 다 익을 때까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야말로 구도자의 그것 아닌가. 땅만 사과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다. 뉴턴의 통찰은 사과도 그 질량만큼 땅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데에 이른다. 다만 그 힘이 약해 땅에 떨어질 뿐인데, 소백산엔 사과나무가 많아 땅을 끌어당기고, 수많은 구도자의 깨달음의 힘으로 소백산을 번쩍 들어 올릴 것도 같았다.

김정호가 쓴 지리지인 〈동국지지(東國地誌)〉는 '이 산은 수도하고자 하는 자가 살 만한 곳이다' 라고 하였는데 바로 사과나무의 힘 아닐까.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이 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라고 기술한 대목이 나온다. 소백산을 처음 본 술사 남사고가 말에서 내려와 넙죽 절하며 내뱉었다는 감탄사다.

이에 나는 생각한다. 남사고가 말한, 사람을 살리는 산이란 어떤 산일까? 사과나무뿐 아니라 산에 깃든 잡초와 잡초에 떨어진 빗방울에도 절이 깃들고 구도자가 깃들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산이다.

명산의 조건으로 예나 지금이나 산세를 으뜸으로 치고, 거기에 풍수를 논하지만 때때로 꿈보다 해몽인 경우도 없지 않다. 해발고도 4,000km가 넘는 티베트를 보라. 물 한 동이 구하기 어려운 땅임에도 깨달음을 품고 사는 수도승이 많은 건 풍수가 나빠서인가.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스키나 봅슬레이를 탈 수 없으려니 단정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길지가 있으면 역지(逆地)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땅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기보다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옛사람 도선 국사의 생각이었다. 나쁜 땅에 절을 세워 재앙을 막겠다는 의도에 앞서 사람의 몸에 쑥을 놓고 뜸을 뜨듯이 땅의 상처를 치료해주자는 것이 비보사찰(裨補寺刹)의 참뜻이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진리는 사과와 땅처럼 상대적인 듯싶다. 소백산자락길은 이황과 주세붕, 안향과 안축 등 영남의 선비들이 거닐었던 길이다. 소백산 밝은 정기가 그들의 학문에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들의 학문이 소백산을 드높였다고도 볼 수 있다.

소백산자락길도 상대적이다. 시냇물과 길이 나란히 걷거나 헤어졌다 걷기도 하고, 시냇물이 길 위를 걷거나 길이 시냇물 위를 걷기도 하는 길이니 말이다. 그러자니 데크로 된 다리의 계단을 쿵쾅쿵쾅 밟거나 징검다리를 건너려 경중경중 뛰거나 양팔을 벌려 외나무다리를 위태로이 걷기도 하지만, 그중 죽계1교를 건널 땐 묵언을 미덕으로 삼아야 한다. 다리 건너에 초암사(草庵寺)란 절이 있기 때문이다. 초암사에 들렀을 때 대부분은 돌거북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약수를 떠먹으러 우르르 몰리지만, 순례에 나선 사람으로선 의당 상륜부 없는 신라의 삼층석탑에 합장 삼배부터 해야 할 일이다.

초암사에서 잠시 쉬었다 다시 이어지는 숲길은 나무들이 워낙 울창해서 한낮인데도 어둑신하다. 벌써 해가 지려나 시계를 내려다보게 하는 길이었다. 수년 동안 통행이 금지된 길이라 시냇물 소리는 우렁차고 간간이 보이는 못은 깊고 푸른 에메랄드빛이었다. 그 금지의 시간 너머에서 석륜사로 가려고 시냇물을 건너는 퇴계 이황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어느 날 소수서원을 나온 이황은 국망봉 아래 있는 석륜사를 찾아갔고, 소백산을 샅샅이 유람할 요량으로 거기서 사흐레 머물렀다. 석륜사는 기록에만 자취를 남겼을 뿐 지금은 소백산에서 보이지 않는 절이다.

초암사에서 국망봉까지는 4.4km였다. 비로사(毘盧寺) 가는 길은 등산로와 자락길로 나뉘는 갈래에서 3.4km를 더 가야 한다. 퇴계가 그 자락길, 달밭골을 지나 비로사로 하산했다는 길로 나도 걷는다. 비로사에 가까워지자 잣나무 숲이 쭉쭉 뻗은 수직의 세상이다. 퇴계의 시대에도 잣나무 숲이 있어 땅에 촘촘히 깔린 잣잎이 지친 다리를 위로했던가.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마음은 거울과 같다

슬플 때 거울 보면 슬픈 얼굴을 비춰 주고

행복할 때 거울 보면 행복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거울처럼 마음의 현상은 우리를 속이는 환영입니다.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반영에 집착합니다.

태양은 쓰레기도 비추고 꽃도 비춰 주듯이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환영에 속지 마세요. 좋게, 나쁘게 비춰주는 투영에 끌려가지 마세요.

오염 할 수 없는 청정본심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편안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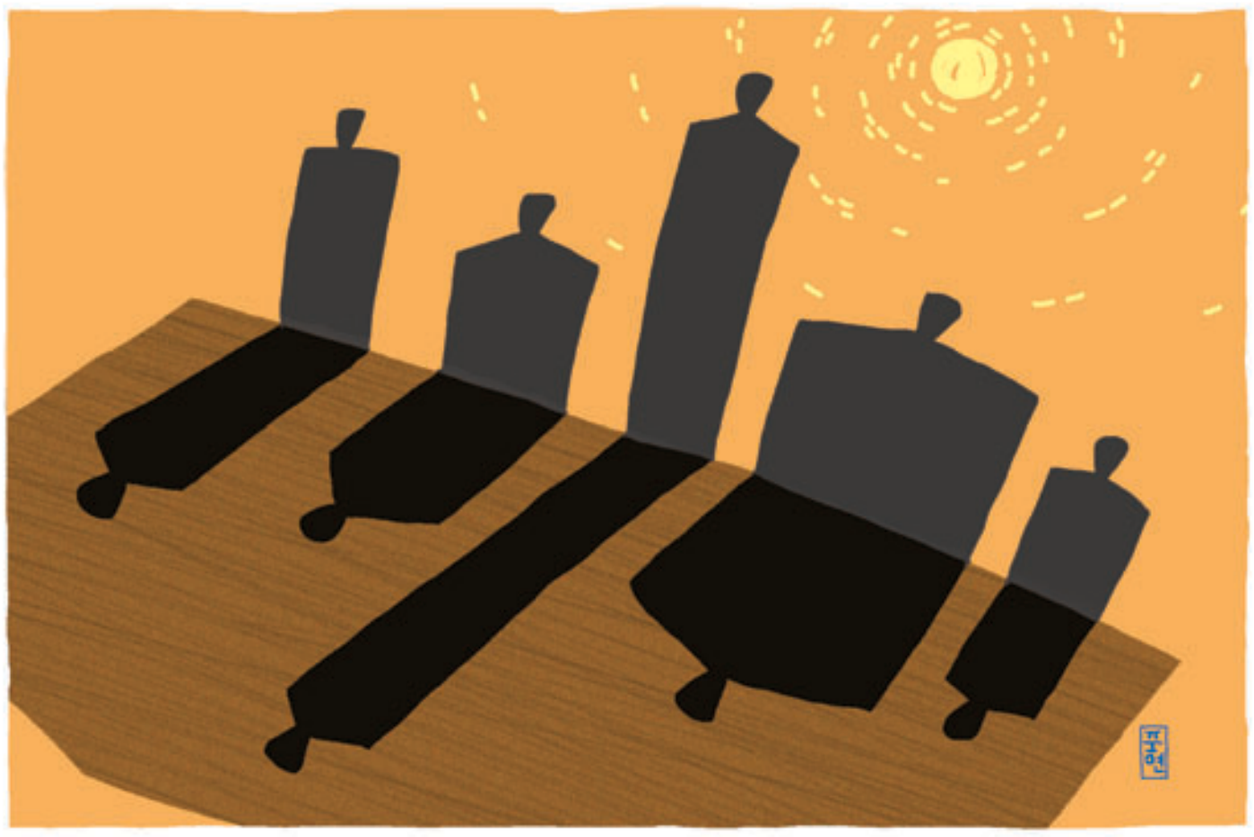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연 스님의 '青春사이다'

⑤ 사랑하지 않을 용기

'냉정과 열정 사이' 지혜를 찾아서…

그룹 '어반 자카파'의 노래 '널 사랑하지 않아'를 들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멜로디가 편안하고 서정적이어서 좋았는데 점차 가사가 귀에 들어오더니 가슴에 새록새록 담기기 시작했다.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 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그게 내 진심인거야." - '널 사랑하지 않아' 中

사랑은 늘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하지만 동시에 아픔도 가져다준다. 사랑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그것만큼 잔인한 것도 없을 것이다.

사랑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그것이 주는 '기쁨과 아픔'이라는 이중성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의 본래적 기능이다. 우리의 마음은 늘 사랑으로 영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마음이 한 없이 커졌다가도 급격하게 작아지기도 한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함과 동시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일까?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들을 살아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존재의 이유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은 사랑과 그로인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출발한다고 한다. 즉,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네모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상징하는 부호라면 네모 안에는 들어 있는 동그라미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된다. 그것은 또한 둥글둥글한 사랑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네모 안에 든 것은 둥근 마음과 사랑'이 된다. '모 안에 든 것이 사랑'이라는 말은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정리된다. 부호로 표현하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다. 모든 존재에는 사랑이라는 생명력이 자리한다는 이치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부터 벗어나기 힘든 족쇄가 채워진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본래 사랑 그 자체는 아름답고 숭고하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것에 집착한다. 집착하는 그 상태를 불교에서는 갈애(渴愛)라고 하는데, 사랑을 갈구하는 그 목마름이 고통을 만든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랑의 가치는 훼손되고 변질되며 그로인해 고뇌가 따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반가운 손님 '어반 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노래가 갈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 주었다. 거기에는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팁이 숨어 있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고 단순했다. 그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인 것이었다. 이 간단한 메시지는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묵직한 하나의 힘이 되었다. 마치 청량감을 주는 시원한 사이다를 한 모금 들이킨 기분이 들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야하고 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행복을 위한 모든 행동에는 자신의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게 되었다고 해 보자. 아이가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다는 것이 인과법칙에 맞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아들러는 거꾸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서 배가 아파진 것이라는 원리를 주장한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배가 아픈 '상태와 행동'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랑'에는 아픔도 공존해
많은 경우 집착도 뒤따라
불교에서는 '갈애'라 표현
사랑ㆍ관계서 중도 찾아야

아들러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목적의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인연이라고 한다면, 그 인연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감정'이며 그 감정의 핵심은 '사랑'인 것이다. 어반 자카파의 노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헤어지고 싶다는 '목적'을 만들었고,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 다음 상대에게 '통보'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흐름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무엇으로 인해 발행하는 것인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까르마(Karma) 또는 업식(業識)이라고 한다. 전생부터 만들어지고 쌓인 업의 무더기가 나의 현재 의식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감정은 내가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의식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업식에 사랑이라는 깊은 원천적 의식이 자리한다. 그래서 사랑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집착한 나머지 상대방을 구속하려 들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채 상대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그 집착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나와 남에게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 단순하게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다'는 마음을 내거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 마음을 비우고 단지 심플하고 쿨하게 상대방을 놓아 주는 것이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을 구속하고 못살게 굴어서야 되겠는가? 결정이 섰다면 용기를 내어 나의 진심을 상대에게 전달하면 된다. 단, 결정에 책임을 져야한다.

반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갑작스런 이별통보에 가슴이 아프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나는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으로 대하고 있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차갑게 마음을 접어버리고 표현하는 것도 매정한 것 같아서 조금 꺼림직스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 이러한 '냉정과 열정사이'에서 늘 신음하고 갈등하면서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과하지도 지나치게 모자라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을 중도(中道)적 삶이라고 한다. 한 쪽으로 치우친 삶이 편협하고 조화롭지 못한 삶이라면 중도적인 삶은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삶이다. 중도적인 삶을 위해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나와 가까운 사람과 어떤 감정적인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도적인 마음을 가져 보자. 기존에 내가 가진 습관적인 생각이 아닌, 상대방과 그 중간의 적절한 균형감을 찾아보자.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행복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랑 때문에 울고 웃으며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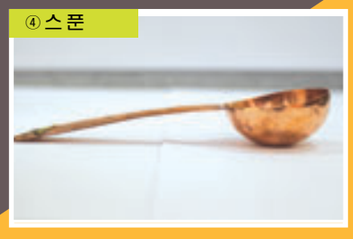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향나무향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단)



(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